2022 한국구술사학회 후기 학술대회

□ 학술대회 개요

○ 제 목 : 구술사, 문화탐구, 공공기록

○ 일 시 : 2022년 11월 12일(토) 9:30～18:00

○ 장 소 : 한성대학교 상상관 205호, 전면 대면회의(온라인 생중계 제공)

○ 주 최 : 한국구술사학회

○ 후 원 : 한성대학교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사전 등록	09:30~10:00	사전등록
개회사	10:00~10:10	사회: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귀옥 (한국구술사학회 회장)
제1부 구술방법론을 통한 문화탐구		
제1부	10:10~12:10 (120분)	사회: 이호신(한성대학교) 발표1: 주춘자(권선중학교), “구술사를 활용한 중등 교육의 실제: 1980년대 후반 학교생활 이해” 발표2: 윤보영(동국대학교), “북한사회의 과시적 소비현상: 북한 이탈주민 구술사를 중심으로” 발표3: 김량(존 필름), “영상이 기록하는 기억의 언어와 몸짓” 토론1 김영미(국민대학교), 토론2 차승주(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토론3 이하나(연세대학교)
	12:10~13:30 (80분)	<한국구술사학회 총회 및 점심식사>
기조 강연	13:30~14:20 (50분)	사회: 오제연(성균관대학교) 함한희(전북대학교), “구술사와 학문의 정체성”
제2부 “우리동네 이야기”		
제2부	14:30~16:00 (90분)	사회: 조정우(경남대학교) 발표1: 최우영(국민대학교), “미용사는 어떻게 ‘장인’이 되었는가: 1960~80년대 미용사의 삶과 직업정체성” 발표2: 정현봉(국민대학교), “어느 3대 농부의 자수성가 이야기” 토론1 유철인(제주대학교), 토론2 정계향(경북대학교)

	16:00~16:10	<휴식>
제3부 “구술사료 수집 관리의 제도화”		
제3부	16:10~18:00 (110분)	사회: 윤택림(한국구술사연구소) 발표1 박준규(한양대학교) “해외사례로 본 구술사료 수집관리의 제도화” 발표2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 토론1 이호신(한국구술사학회), 토론2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토론3 정보원(아르코예술기록원), 토론4 한정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 1 부

“구술방법론을 통한 문화탐구”

발표1

구술사를 활용한 중등 교육의 실제-1980년대 후반 학교생활 이해

주춘자(권선중학교 교사)

Ⅰ. 서론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역사 수업을 마련하고자 교사들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의 및 토론수업, 연극을 활용한 수업, 역사 그림책 토론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활동 중심 학습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대체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지식이며, 사실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사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역사 수업을 통해 역사연구 방법을 체험하거나 비판적 글쓰기를 통해 사료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내가 사는 시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학교사란 학생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역사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이다.[1] 학생 본인이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된 학교의 역사, 학교와 관련된 지역의 역사, 학교와 관련된 인물의 역사 등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은 역사란 내 삶과 관련을 맺고 있는 특별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학교사 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딱딱한 한국근현대사를 친숙하고 흥미롭게 이해하게 된다. 학교와 관련한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학자의 역사 연구 방법을 경험해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은 학생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후반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80년 신군부의 자율화조치로 사회 전반에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현장에도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조치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1980년대 후반 다시 중단되며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1980년대 후반 학교에 나타나는 변화는 오늘날 학생 생활의 모습에 기초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학생들의 교복 모양, 두발 규정, 학생회 운영이나 체험학습 운영은 198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었던 학생들의 자율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학교사를 탐구하는 것은 학생 생활의 변천을 이해하고, 학생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구술사를 활용한 학교사 교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는 K 교육청에서 추진되었던 '학교사 구술 활동 사례'를 분석한 연구 논문이 있다. K교육청은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를 대상으로 구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한 학교사 사료 발굴 및 자료관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연구는 학교사 자료관 사업에 구술을 적용한 사례 6교를 대상으로 추진과정과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활동은 전반적으로 교사가 가르치고 안내하되, 학생 주도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으로 설계되었다. 6개교에서 진행한 구술 활동은 면담 이후 구술을 채록하고,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구술사 수업을 경험한 소감을 발표하였다. : 황현정, 「학습자 주도 역사 탐구 활동의 역사 교육적 함의-학교사 구술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교육』 제32집, 2021, 2～12쪽

구술사는 구술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역사연구 방법으로, 학교사 탐구 수업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 된다. 학교 동문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 학교의 모습과 학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구술사 학습을 통해 사료를 생성하고, 생성된 구술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료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 교육을 통해 1980년대 후반 학생의 학교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만나는 상황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학생 개인은 시대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순간을 선택하여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술자료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역사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구술사의 학교사 수업 적용

1. 구술사 교육의 절차

구술사 교육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업의 유형은 구술 인터뷰를 수업에 직접 진행하는 형태와 구술자료를 활용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술 인터뷰는 시행하지 않고 구술자료만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증언자료나 교사가 정리한 구술자료를 학습자료로 활용하거나, 구술아카이브를 이용하여 역사 수업을 진행한다.

구술 인터뷰를 실행하는 구술사 수업의 절차는 대체로 '구술사 안내-면담 및 채록-발표 및 소감 쓰기'의 3단계 과정을 보여준다.[2] 첫 번째 '구술사 안내' 단계에서는 학습주제와 구술 활동을 안내하는 강의와 구술 인터뷰를 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구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인터뷰를 위한 질문 만들기가 진행된다. 두 번째 '면담 및 채록' 단계에서는 구술 인터뷰와 구술 채록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발표 및 소감 쓰기' 단계에서는 구술 인터뷰 내용 정리 및 역사 쓰기가 진행된다. 세 번째 단계는 교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소감 쓰기를 하거나, 구술사 자료를 분석하거나, 구술자료를 해석하여 연극 등으로 재구성하거나, 구술자료와 관련한 제작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구술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가의 역사연구 방법을 체험하고, 사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구술 증언자가 직접 전해주는 과거 사실을 접하면서 역사에 대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구술사 교육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구술사 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다소 발생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술사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 인터뷰와 채록을 충분히 진행하기에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 역사 교과 수업에서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와 관련한 역사 쓰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업 시간 확보가 필요한데, 정규시간에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대체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이후 교육부는 정규 교육 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구술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수업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영상 인터뷰를 활용하거나 인물을 초청하여 교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 수업안을 개발할 필요가

2) 강남진, 「구술사를 활용한 한국 현대사 교수·학습방안」, 『역사교육연구』40, 2021, p.175. 2021

있다.[3]

둘째, 구술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다.[4]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구술 대상자 선정과 인터뷰는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습주제에 맞는 구술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 방과 후에 구술 활동이 이루어지면 적합한 구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학생들에게도 방과 후에 시간을 할애하여 구술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구술자료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술 방법을 안내하고 구술 인터뷰 및 채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면담 이후 학생 활동은 채록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소감을 발표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5] 학생들이 구술사의 개념과 방법론을 학습하는 것도 '역사하기'의 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구술사를 활용한 수업이 하나의 역사 수업 모델로서 대안이 되려면 면담과 채록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술 활동을 통해 얻은 구술자료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더 비중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6]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제기한 구술사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체 동아리 시간을 활용한 구술사 수업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창체 동아리 수업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시수를 정하여 운영된다. 연구가 이루어진 대상 학교는 창체 동아리 수업이 1학기 8시간 교육과정 내 개설이 되었으며, 수업 대상과 주제는 교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창체 동아리 수업은 역사 교과 시간과는 달리 교과 진도로부터 수업 주제 선정과 운영이 자유로워서 교육과정 내에 구술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구술자료를 활용한 주제 탐구 발표하기를 진행하여 역사 쓰기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구술사 활용 수업의 기본 절차를 참고하고 '역사 쓰기' 부분을 강화하여 수업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수업 절차는 '구술사 수업 안내-면담 및 채록-역사 쓰기'의 3단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구술 활동과 더불어 구술자료와 관련한 탐구주제 발표하기를 진행하였다.

2. 수업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은 2022학년도 1학기 창체 동아리 시간에 진행한 구술사를 활용한 학교사 수업 방안을 기반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구술사를 활용한 학교사 수업은 K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주도형 근현대사 탐구프로그램 활동의 하나로 진행하였다. K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사 탐구프로그램은 학교사를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해하고자 한 학생주도형 프로그램이며, 연구 학교 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2년째 학교사 탐구 수업에 참여하였다.[7] 학교사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의 역사를 탐구하는 수업으로서 학생들이 학교 역사를 흥미롭게 탐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현대사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인 창체 동아리 시간에 운영하였으며, 창체 동아리 수업은 교사가 주

---

3) 강남진, 앞의 글, 2021, p.175.
4) 김경아, 「공공역사의 교육적 실천으로서의 구술사 방법의 의미와 가치」, 『역사교육연구』39, 2021, pp.49~50.
5) 강남진, 「구술사를 활용한 한국 현대사 교수·학습방안-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40, 2021, 168~169쪽
6) 강남진, 앞의 글, 173-174쪽
7) 주춘자, 「중등 학교사 구술 활동 교육의 실제」, 『2022 제4차 한국 구술사학회 아카데미 자료집』, pp.144~156.

제를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내에 구술 활동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수업 프로그램은 '구술사 수업 안내-면담 및 채록-역사 쓰기'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총 8차시로 구성하였다.

수업 주제는 1980년대 후반 학생의 학교생활 이해이다. 1980년대 후반은 연구 학교의 설립 초기로서 학생들에게는 현재와 과거의 학생 문화를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는 시기이다. 연구 학교는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교복 자율화 및 두발 자율화로 인해 교복 미착용 시기였고, 1991년부터는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재학생들에게 1980년대 후반은 '두발 및 교복 자율화' 시기로서 교복을 착용하는 현재와 비교가 되어 흥미로운 시기로 이해된다. 연구 주제인 1980년대 후반 학생의 학교생활은 '학교 안팎의 학생 일상생활, 고입과 공부, 학교 행사 및 학생 활동'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학생들의 학교 안팎 문화를 탐구하였다.

1차시는 수업 안내 단계로, 수업 주제, 구술사 및 학교사, 수업 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2~4차시는 면담 및 채록 단계로, 구술 대상자 선정, 인터뷰를 위한 질문 목록 작성하기, 구술 인터뷰 및 채록하기를 진행하였다. 구술 대상자는 2명 선정하였고, 학생이 내담자가 되어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술 채록은 컴퓨터 문서 작성에 능숙한 학생이 방과 후에 담당하였다.

5~8차시는 역사 쓰기 단계로 역사 쓰기는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역사 쓰기는 구술자료 해석하기, 2차 역사 쓰기는 구술 내용과 관련한 탐구주제 발표문 쓰기로 진행하였다. 5차시에 진행된 1차 역사 쓰기 시간에는 구술 인터뷰 내용과 채록을 분석하여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구술 인터뷰와 채록을 토대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과거와 현재 학생들의 생활 모습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글쓰기를 하였다. 6차시에는 구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1980년대 후반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탐구주제를 정하고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1980년대 후반 학생 생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되었다. 6차시에 학생들은 각자 탐구주제를 정하여 발표 준비를 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완성하도록 하였다. 7, 8차시에는 6차시에 준비한 탐구주제에 대하여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8차시 수업 프로그램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계	차시	수업 내용	학습 활동
수업 안내	1	구술사 및 학교사 안내	▷구술사 및 학교사 주제 안내 -구술사 절차 이해하기 -학교사 주제 이해하기
면담 및 채록	2	구술 대상자 안내 및 구술 인터뷰 준비	▷구술 대상자 안내 -구술 대상자 이해하기 ▷구술 인터뷰 준비 -구술을 위한 질문 만들기 -구술 면담자 선정하기
	3	구술 인터뷰 및 채록 1	▷구술 인터뷰 진행 및 채록 -구술 인터뷰 참여 및 인터뷰 내용 이해하기
	4	구술 인터뷰 및 채록 2	▷구술 인터뷰 진행 및 채록 -구술 인터뷰 참여 및 인터뷰 내용 이해하기

역사 쓰기	5	구술자료 이해 및 분석	▷구술자료 해석하기 -구술 인터뷰 및 채록 이해하기 -구술자료를 토대로 글을 쓰고 공유하기
	6	탐구주제 정하기 및 조사하기	▷탐구주제 정하기 -1980년대 후반 학생 생활 이해를 위하여 탐구할 주제 만들기 -구술자료를 토대로 탐구주제 정하기 ▷탐구주제 선정 및 조사하기 -이전 차시에 작성한 탐구주제 공유하기 -발표할 탐구주제 정하고 자료 조사하기
	7	탐구주제 발표 및 토의1	-1980년대 후반 학생생활과 관련한 주제 발표 -발표문과 관련하여 토의 및 토론
	8	탐구주제 발표 및 토의2	-1980년대 후반 학생생활과 관련한 주제 발표 -발표문과 관련하여 토의 및 토론

3. 적용 대상 학교와 학생

구술사 수업을 시행한 연구 학교는 수원에 있는 권선중학교이며, 1985년 개교 때에는 남자중학교였다가 2002년에 남녀공학으로 변경되었다. 1985년 설립 시기부터 1990년까지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시기로 교복 미착용이었으나, 1991년부터 교복 착용으로 변경되었다. 권선중학교 설립 초기에는 수원 전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을 고려치 않고 중학교에 배정되어 현재와 달리 거주지가 학교와 다소 먼 거리에 거주한 학생들도 권선중학교에 통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학교와 가까운 지역을 학군으로 정하여 입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 초기 권선중학교 졸업생들은 수원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현재 재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12명이며, '슬기로운 학교사 탐구반'이라는 창체 동아리 수업에 2년간 참여하였다. 수업 학생들은 구술사 수업을 2년째 참여하여 구술사 수업 절차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구술사 수업에 흥미가 있고 자발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였다. 수업은 총 8차시로 진행하였으며, 창제 동아리 수업은 1학기 동안 격주로 금요일 6교시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였다.

4. 구술 면담 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구술사를 활용하여 1980년대 후반 학교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시기에 권선중학교에 재학하였던 구술 면담자를 선정하여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탐구 시기인 1980년대 후반은 대상 학교의 설립 초기로서 남자중학교 시기이며,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시기였다. 구술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985~1990년에 권선중에 재학하였던 졸업생 섭외를 홍보하였고,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님들께 구술 대상자 선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구술 면담 대상자는 1988년 권선중 입학생으로 2명을 선정하였다. 구술 면담 대상자 1명은 현재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며,

또 한 명은 현재 권선중 재학생의 학부모이다. 구술 대상자와는 사전 인터뷰를 시행하여 프로그램의 취지와 일정을 설명하였고, 구술 인터뷰 내용은 녹화되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 구술 인터뷰 시행 3~4일전 구술자에게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았고, 질문목록을 미리 파일로 보내 구술 대상자가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구술 및 채록

1980년대 후반 학교생활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당 시기에 권선중학교에 재학하였던 동문을 섭외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술 대상자는 같은 시기에 재학하였던 인물로 2명 이상 섭외하고자 하였다. 구술 대상자는 2명으로 모두 1988년 중학교 입학생이다. 1명은 수업 교사가 인터뷰를 의뢰하였고, 또 한 명은 재학생의 의뢰로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구술 수업을 위하여 모둠을 구성하였고,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모둠원들은 각각 인터뷰 진행자, 보조 진행자, 인터뷰 촬영, 구술 채록을 분담하였다. 구술 인터뷰는 2회에 걸쳐 1명씩 진행하였고, 동아리 학생 중 인터뷰 진행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구술 인터뷰의 면담자가 되었다. 구술 인터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구술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화면녹화를 하였다.

구술 인터뷰에 필요한 질문목록을 준비하기 위하여 1차시 수업 시간 동안 질문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구술 주제는 '1980년대 후반 학교생활'이며, 주제는 '학교 안팎의 학생 일상생활, 고입과 공부, 학교 행사 및 학생 활동' 세 영역으로 나누어 구술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였다. 학생들은 각각의 영역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만들었다.

구술 인터뷰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시기 권선중에 재학하였던 인물 2명을 섭외하였다. 학생들은 2명의 구술 대상자에게 같은 질문목록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구술 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든다면 과외 및 학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1명은 중학교 재학시절 학원이나 과외가 없었다고 대답하였고, 또 1명은 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아마도 구술 대상자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사교육이 일부 허용되었기 때문에 기억에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구술 인터뷰는 구술 대상자 1명당 1차시 동안 진행하였다. 동아리 학생이 구술 면담자로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구술 대상자는 중학교 후배인 면담자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가지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인터뷰에 응하였다. 인터뷰 방식이 비대면 화상 인터뷰였으므로, 구술 대상자와 면담자는 노트북에 설치된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면담자를 제외한 수업 학생들은 노트북이 연결된 교실 대형 TV를 통해 구술 인터뷰를 지켜보았다. 수업 학생들은 질문목록을 참고하여 구술 인터뷰를 경청하였고 궁금한 사항이나 인상 깊은 내용, 구술 소감을 해당 차시에 각자 기록하도록 하였다.

구술 인터뷰는 화면녹화를 하였고, 모둠에서 채록 담당자를 1명 정하여 방과 후에 구술 채록을 하였다. 구술 채록의 소요 시간은 인터뷰 진행 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45분간의 인터뷰를 채록하는데 대략 4~5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채록을 맡은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여, 채록할 때 인터뷰 내용을 교정 없이 들리는 대로 옮기도록 하였다. 채록을 맡은 학생들은 컴퓨터 문서 작성에 익숙한 학생들로 스스로 채록 작성을 희망하였다. 다음은 1차 구술면담에 사용한 질문목록으로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취합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면담 학생이 다시 정리한 것이다.

1차 구술			권선중 4회 졸업생, 1988년 권선중 입학
학생일상생활	교내생활	1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2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 몰래 하던 딴짓은 무엇이 있었나요?
		3	도시락 반찬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4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5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않는 학생이 있었나요?
		6	등교할 때 사복은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학교에서 금지하던 사복 스타일이 있었나요?
		7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던 옷 브랜드나 운동화 브랜드가 있었나요?
	방과후생활	8	학생들은 방과 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9	방과 후에 친구들과 주로 하던 놀이나 놀러 간 장소는 어디인가요? 선생님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은 어느 곳이었나요?
		10	당시 중학생들의 취미생활은 주로 무엇이 있었나요?
		11	당시에 인기 있던 스포츠, 유행어, 노래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인기 있던 음악 장르는 무엇이었나요?
		12	이성 친구가 있는 학생이 있었나요?
		13	불량한 학생들이 많았었나요?
		14	학교 관련 괴담이 있었나요?
		15	당시 권선중학교는 어떤 학교로 인식되었나요?
고입준비		16	그 당시 학생들은 인문계와 특성화고 중 어떤 고등학교를 선호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17	그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했던 고등학교는?
		18	그 당시에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가 인기가 많았나요?
		19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많은 학생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았나요?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20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가 심했었나요?
		21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나요?
		22	당시 학생들의 고민은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학교행사		23	소풍, 수학여행, 체육대회, 학교 축제 등 학교 행사 중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던 행사는?
		24	소풍 장소는 어디였나요? 소풍 장소를 정할 때 학생과 선생님 중 어느 쪽 의견이 더 반영되었나요?
		25	소풍 때 점심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26	수학여행은 어디로 갔었나요? 수학여행 때 선생님 몰래 했던 가장 긴장감 넘치는 행동은?
		27	체육대회에서 재미있었던 일은?
		28	축제 때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학생자치		29	당시 반장과 부반장은 주로 무슨 일을 했었나요?
		30	당시 학생회는 어떤 일을 하였나요?
		31	학생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32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땠나요?
		33	자율 동아리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동아리가 있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최종질문		34	교복 자율화 시기에 학교를 다니셨는데, 교복 자율화 조치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줬다고 생각하나요?

다음은 2차 구술면담 때 사용한 질문목록으로, 1차 구술면담 후 2차 구술면담을 담당한 동

아리 학생들이 질문목록을 일부 수정하였다.

2차 구술			권선중 4회 졸업생, 1988년 권선중 입학
학생일상생활	교내생활	1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2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 몰래 하던 딴짓은 무엇이 있었나요?
		3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4	등교할 때 사복은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학교에서 금지하던 사복 스타일이 있었나요?
		5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던 옷 브랜드나 운동화 브랜드가 있었나요?
	방과후생활	6	학생들은 방과 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7	방과 후에 친구들과 주로 하던 놀이나 놀러 간 장소는 어디인가요? 선생님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은 어느 곳이었나요?
		8	당시 중학생들의 취미생활은 주로 무엇이 있었나요?
		9	당시에 인기 있던 스포츠, 유행어, 노래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인기 있던 음악 장르는 무엇이었나요?
		10	학교 관련 괴담이 있었나요?
		11	당시 권선중학교는 어떤 학교로 인식되었나요?
고입 준비		12	그 당시 학생들은 인문계와 특성화고 중 어떤 고등학교를 선호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그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했던 고등학교는?
		14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기 위해 많은 학생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았나요?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15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가 심했었나요?
		16	당시 학생들의 고민은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학교 행사		17	수학여행은 어디로 갔었나요? 수학여행 때 선생님 몰래 했던 가장 긴장감 넘치는 행동은?
학생 자치		18	당시 반장과 부반장은 주로 무슨 일을 했었나요?
		19	당시 학생회는 어떤 일을 하였나요?
		20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땠나요?
		21	자율 동아리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동아리가 있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최종질문		22	교복 자율화 시기에 학교를 다니셨는데, 교복 자율화 조치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줬다고 생각하나요?

1차 구술 인터뷰	2차 구술 인터뷰

6.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역사 쓰기

학생들은 구술 인터뷰와 채록을 활용하여 역사 쓰기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구술 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구술 인터뷰 내용과 구술 채록을 토대로 과거와 현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고, 그 배경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역사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를 하였다. 198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구술자의 인터뷰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글로 작성함으로써 자신만의 견해를 창출하는 경험을 하였다. 비판적 역사 쓰기는 역사적 진술을 비판적으로 읽고 더 나아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이 내포된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지식 창출에 참여하게 된다.[8)]

역사 쓰기는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역사 쓰기는 구술자료 해석하기, 2차 역사 쓰기는 구술 내용과 관련한 탐구주제 발표문 쓰기로 진행하였다. 1차 역사 쓰기 시간에는 구술 인터뷰 내용과 채록을 분석하여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학습지를 제공하였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구술면담과 채록을 참고하여 현재와 비교하여 변화된 점이나, 비슷한 점, 인상 깊었던 점 등을 찾아 문장으로 쓰고 그에 대한 소감을 함께 써보자.
② 1번 항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중요 단어를 써보자.
③ 구술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탐구 수업을 한다면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하고 싶은지 써보자.

학생들은 학습지 질문 ①,②를 작성하고 발표함으로써 구술 인터뷰를 통해 1980년대 후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다. ③은 구술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1980년대 후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좀 더 알고 싶은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구술 인터뷰를 통하여

8) 김한종 · 이영효,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도서출판 책과함께, 2006, pp.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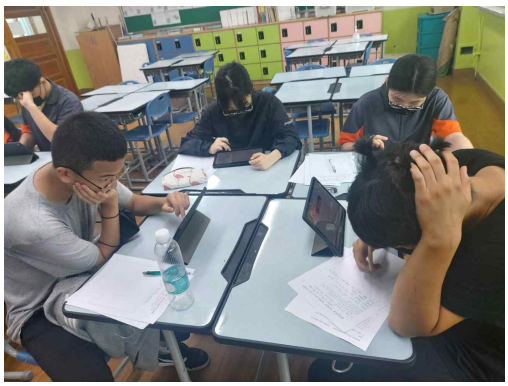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관련 주제를 탐색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거 사실의 배경과 원인을 찾아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탐구주제는 구술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생활 문화를 세 가지 영역인 '학교 안팎의 학생 일상생활, 고입과 공부, 학교 행사 및 학생 활동'으로 구분하여 탐구주제를 작성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제안한 탐구주제의 내용이 적절한지, 자료 조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발표문 작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학생들 각자 발표할 주제를 하나씩 정하고 발표문을 작성하였으며, 발표문 작성할 때 반드시 내용 출처를 밝히도록 안내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제안한 탐구주제 목록이다.

주제	소주제	탐구주제 목록
1980년대 후반 학교생활	학교 안팎 친구들과의 일상생활	1. 교복 자율화 시기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에 대해 왜 제한하였는가? : 특정 색깔(빨강, 파랑, 노랑), 특정한 형태의 옷(정장 바지) 제한 2. 교복은 왜 부활하였는가? 3. 1980년대 후반 인기 있었던 스포츠는 무엇인가? 4. 1980년대 후반 학생들의 방과 후 놀이(취미)는 무엇인가? 5. 1980년대 후반 청소년들이 정보를 접하는 매체에는 무엇이 있었나?
	대입 또는 고입 준비를 위한 공부	1. 교복 자율화 시기 과외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2. 교복 자율화 시기 학생들이 방과 후에 공부를 위해 이용한 장소와 방법은? 3.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를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학교 행사와 학생 활동	1. 교복 자율화 시기 학생회 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학생 의견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가? 2. 교복 자율화 시기 선도부 활동은 어떠했으며, 선도부가 사라진 이유는? 3. 교복 자율화 시기에 없었던 자율 동아리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학생들은 탐구주제를 하나씩 정한 후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문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은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 및 토의 시간을 진행하였다. 발표 및 토의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은 구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공식적인 역사서술과 개인의 시선에서 진술된 역사서술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공식적인 역사서술 아래 숨어있는 개인의 역동적인 삶을 발견하게 되었다.

1차 역사 쓰기	2차 역사 쓰기
	

Ⅲ. 구술사 수업에 나타난 1980년대 후반 학생 생활 이해

구술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학교 안팎 친구들과의 일상생활, 입시와 공부, 학교 행사와 학생 활동’으로 영역을 나누어 1980년대 후반 학생 문화를 탐구하였다. 학생들은 설립 초기 졸업생 2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술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구술 인터뷰 내용과 채록을 참고하여 구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역사 쓰기를 진행하였다. 역사 쓰기는 현재와 비교하여 변화된 점이나, 비슷한 점, 인상 깊었던 점을 쓰고 그에 대한 소감 쓰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구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198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탐구주제 발표하기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구술 수업을 통해 알게 된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여 발표 준비를 하였다.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자료를 조사하였고, 발표문 작성 때 출처를 밝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1980년대 후반의 학생 문화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시대적 맥락 속에서 삶의 주체였던 학생 개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 학교 안팎 친구들과의 일상생활

연구 학교의 설립 초기인 1980년대 후반은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시기였다. 교복 및 두발 제한이 없었던 ‘교복 자율화 시기 학생들의 일상은 현재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구술사 수업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구술 인터뷰 시행 후 1980년대 후반 학생들의 학교 안팎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인상 깊었던 점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다.

> 현재와 달리 사복을 입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 과거에는 두발과 교복이 자율화여서 좋았을 것 같다.
> 교복 자율화 시기인데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같은 눈에 띄는 색상의 옷을 착용하지 못 하게 한 것이 신기하다.
>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 1980년대 후반 패션과 비슷하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학교에 체벌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체벌을 했다는 사실이 인상 깊다. 과거에 있었던 체벌이 지금은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휴식 시간에 남학생들이 축구나 배드민턴을 즐겨 했다는 것이 지금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기 위해 점심을 먹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 현재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오후 9시 이후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없었다는 것이 현재와 많이 다른 것 같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저녁 9시가 넘으면 대체로 잠을 잤던 것이 현재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일찍 잤다)
과거에는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방과 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에 갔거나,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것을 알았다. 산을 탔다는 것에 조금 놀라웠다.
30년 전에는 학교 주변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와 달리 시내버스가 많지 않아서 시외버스를 이용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수업 시간 친구와 얘기하다 혼나는 것은 현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학교 매점이 사라진 것이 아쉽다.

구술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인 것은 '사복 착용과 체벌'이었다.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자율화 시기였던 1980년대는 선망의 시기로 이해되지만, 한편으론 체벌이 이루어졌던 두려운 시기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교복 및 두발 자율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율과''억압'이 공존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모순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또한 등교할 때 눈에 띄는 색상의 옷이나, 특정 형태의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복 자율화의 성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니거나, 휴대전화기나 컴퓨터 사용으로 취침 시간이 대체로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1980년대 후반에는 밤 9시 이후에 학생들이 대체로 잤다는 점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 현재와 달리 1890년대 후반은 사교육이 거의 없었으므로 학생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방과 후에 학원 대신 TV 시청, 산에 놀러 가기, 놀이터에서 놀기 등을 했다는 것을 신기하게 받아들였다.

구술 인터뷰 실시 후 1차 역사 쓰기를 종료한 후, 학생들은 학생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여 2차 역사 쓰기를 진행하였다. 2차 역사 쓰기 활동은 198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학생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학생들의 탐구주제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탐구주제	발표내용	소감
교복은 왜 부활하였	교복 자율화 및 교	1983년 이전의 교복이 일제

는가?	복 자율화 폐지의 과정 조사	강점기 교복이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으며, 교복 착용의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다
1980년대 후반 인기 있었던 스포츠는 무엇인가?	1980년대 후반 인기 스포츠인 프로레슬링에 대한 조사	자료 조사를 하면서 1980년대 후반 인기 있던 스포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잘 몰랐던 프로레슬링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친구들 발표를 통해 1980년대 후반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1980년대 후반 학생들의 방과 후 놀이(취미)는 무엇인가?	1988년 인기가요 조사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우리 학교 역사에 관해 공부하다 학교 범위를 벗어나 1980년대 후반 학생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1980년대 후반 청소년들이 정보를 접하는 매체에는 무엇이 있었나?	1980년대 후반 청소년들이 정보를 접하는 매체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으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였으며, 현재는 쌍방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형태인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비교 조사함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1980년대 후반 방송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청소년들은 라디오를 많이 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웠다.
	1980년대에 워크맨이라 불린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가 급격히 보급되어 1인 기기로 노래를 혼자 듣는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함. 1980년대 말 고음질 콤팩트디스크가 보급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중요한 수용자로 부상했다.	자료 조사를 하며 구술 인터뷰 내용과 일치하는 학생들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입시와 공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1980년대 후반 학생들도 오늘날 학생들처럼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지금처럼 학원에 다녔는지를 궁금해하였다. 학생들이 구술 인터뷰를 통해 공부와 관련하여 인상 깊게 받아들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지금보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학원을 가지 않고 학교 수업으로만 공부했다는 것이 인상 깊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없어서 학생들이 오늘날보다 더 자유로웠던 것 같다.
지금은 사교육에 의지를 많이 하는데, 1980년대 후반에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이 현재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험 기간에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학교에서 독서실을 마련해주고 밤 8시까지 공부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시험 기간에는 오후 8시까지 학교 교실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인상 깊다.
1980년대 후반에는 실업계를 더 선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공부를 못하는 경우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였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에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였다는 점이 오늘날과 비슷하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현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진학 때 남녀공학보다 남고를 더 선호했다는 점이 신기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과거와 현재 모두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시와 공부’ 주제에 대한 구술 인터뷰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인 부분은 과외가 금지되었고,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은 사교육이 금지되어 학생들은 방과 후에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사교육 기관이 없었으므로 방과 후 학생들의 일상이 지금 보다 자유로웠다고 느꼈다. 또한 일반고와 특성화고(실업계고)에 대한 당시 학생들의 선호도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현재와 비슷하며, 특성화고를 지금보다 더 선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과거와 현재 모두 여전했다고 느꼈다.

구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입시 및 공부'와 관련한 학생 문화를 198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탐구주제 발표하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의 탐구주제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탐구주제	발표내용	소감
교복 자율화 시기 과외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7·30 교육 개혁조치로 과외를 전면 금지함. 이후 다시 과외가 허용되는 과정을 조사 발표함. 사교육에 큰 비용을 충당하는 현재 교육실태를 비판함.	현대에도 이어지는 사교육의 폐해가 1980년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역사를 통해 문제를 자각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1980년대 신군부가 시행한 다양한 자율화 정책들을 조사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지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조건 없는 억압은 답이 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신군부가 과외를 금지하였으며, 이후 위헌 결정으로 과외가 다시 허용되었음을 조사함.	자료 조사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 전두환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화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교복 자율화 시기 학생들이 방과 후에 공부를 위해 이용한 장소와 방법은 무엇인가?	구립도서관을 이용하여 공부하거나, 신문 자료를 이용함.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독서를 공부에 몰두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해하였음. 대부분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음.	자료가 많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발표문을 완성하여 뿌듯하였다. 과거 모습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주제 정하여 연구하는 수업을 또 하고 싶다.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를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실업계 고등학교는 현재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의미이며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 2001년, 2005년 뉴스 기사를 통해 실업계고의 부정적인 편견과 인식을 확인함. 구술 인터뷰에서도 실업계고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진학 학생의 차이를 조사하면서 1980년대 상황을 검색해도 지금 사례가 제시되었다. 지금도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인가?	간다는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인문계보다 실업계에 대한 진학률이 낮았을 것으로 보임.	

3. 학교 행사와 학생 활동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고 매우 강조한다.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 활동을 존중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회 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1980년대 후반과 비교하였을 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는 다소 회의적이다. 구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관심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고, 주로 관심을 보인 부분은 소풍(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구술 인터뷰를 통해 '학교 행사와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인상 깊게 받아들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소풍(현장 체험학습) 장소로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을 선호한 것은 지금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소풍 장소를 정할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정하였다는 것이 인상 깊다.
> 소풍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은 같지만, 현재와 달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 행사와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체험학습과 관련한 것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체험학습(소풍), 체육대회, 학교축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인지 구술 대상자의 재학시절 소풍, 체육대회 얘기에 대해 많은 흥미를 보였고 부러워하였다. 구술 인터뷰 때 '학생 자치회의 자율적인 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졸업생이 '학생 자치회의 활동이 특별히 없었고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아쉽거나 안타깝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학생 자치회의 자율적인 활동은 1980년대 후반과 비교했을 때 현재에도 크게 진전된 모습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구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학교 행사와 학생 활동'을 198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탐구주제 발표하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의 탐구주제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탐구주제	발표내용	소감
교복 자율화 시기 선도	선도부 학생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 폭력을 유발하며, 교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권위주의	졸업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다. 교복 자율화

부 활동은 어떠했으며, 선도부가 사라진 이유는?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등의 문제점으로 폐지됨. 선도부 활동은 주로 학생들의 복장·두발 단속 및 학생 선도를 하였음.	시기 선도부 활동과 폐지 이유를 조사하는 것이 흥미로웠고,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선도부는 교내 질서를 지키게 하고 행사를 이끄는 순기능이 있었으나, 같은 학생이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문제가 제기되어 폐지됨. 선도부가 사라지면서 학생생활지도는 교사가 맡게 되었고, 학교 행사와 캠페인 등을 학생회가 맡는 등 변화가 나타남.	신문 기사 외의 자료 찾기가 어려웠다. 선도부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나,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선도부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추측만 하다 직접 조사를 하여 알 수 있어서 신기했다.

Ⅴ. 결론

1980년대 후반 학생 문화를 탐구하기 위하여 구술사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자율화 시기였던 1980년대 후반은 선망의 시기로 이해되기도 하나, 한편으론 체벌이 이루어졌던 두려운 시기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교복 및 두발 자율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율과 억압'이 공존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모순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교복 자율화임에도 특정 색상이나 특정 형태의 옷 착용에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 교복 자율화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다. '입시와 공부' 관련 학생 문화에 대해 학생들이 인상 깊게 받아들인 부분은 과외가 금지되었고,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교육 금지로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과외 금지가 부활하는 과정을 조사하면서 조건 없는 억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행사와 학생 활동' 관련 학생 문화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행사에만 관심을 가졌고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관심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적었다. 학생 자치활동은 1980년대 후반과 현재 모두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생 자치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와 관련한 주제를 정하여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구술자료와 관련한 탐구주제 발표를 하였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질문과 궁금증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학생들은 구술 인터뷰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구술자료를 활용한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의 견해를 창출하는 경험을 하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구술사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구술사 교육을 통해 동문인 구술 대상자와 특별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교과서가 아닌 나와 관련된 인물을 통해 우리나라 현대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다. 구술사는 학생들이 역사를 친근하고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역사교육 방법이다.

학생들은 구술 수업을 통해, 1980년대 후반 학생 문화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고, 시대적

맥락 속에서 학생 문화가 어떻게 변천하였는지, 학생 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 이해 수업을 통해 한국 근현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 문화를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은 역사란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현재를 사는 나도 역사를 살아가는 주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단행본

손인수,『한국교육운동사 4: 1980년대 교육의 역사인식』, 문음사, 1999.

손인수,『한국교육운동사 5: 1980년대 교육의 역사인식』, 문음사, 1999.

허영란 외『현황과 방법: 구술, 구술자료, 구술사』,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한국구술사연구회,『구술사(방법과 사례)』, 선인, 2005.

김한종·이영효,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역사교육과 역사인식』, 도서출판 책과함께, 2006,

윤택림,『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19.

•논문

김성진,「구술사 방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 - 보령지역 6·25전쟁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25, 2013.

최신호, 증언 자료를 활용한 부·마 항쟁 수업, 역사교육연구 24, 2016,

박찬교,「구술사교육의 다양한 접근」,『역사교육연구』36, 2020.

강남진,「구술사를 활용한 한국 현대사 교수·학습방안」,『역사교육연구』40, 2021

김경아,「공공역사의 교육적 실천으로서의 구술사 방법의 의미와 가치」,『역사교육연구』39, 2021.

정무용,「1980년대 중 · 고등학생 '교복 자율화' 조치의 시행」,『역사비평』135, 2021.

황현정,「학습자 주도 역사 탐구 활동의 역사교육적 함의-학교사 구술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역사와교육』제32집, 2021

주춘자,「중등 학교사 구술 활동 교육의 실제」,『2022 제4차 한국구술사학회 아카데미 자료집』

발표2

북한사회의 과시적 소비현상: 북한 이탈주민 구술사를 중심으로

윤보영(동국대학교)

< 목차 >

Ⅰ. 서론
Ⅱ. 생활문화 규범의 변화
Ⅲ. 능력과 소비
Ⅳ. 욕망과 한계
Ⅴ. 결론

【국문요약】이 글은 북한의 과시적 소비현상이 왜, 어떻게, 어떤 사회적 맥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북한은 과거 공고했던 봉건시대 계급구조 구조를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에 이바지한 계층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계층화 과정을 구현해왔다. 그러나 “골고루 잘 사는” 문화를 엄격하게 지향해왔기 때문에 정부는 필수식생활 부문의 낮은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검소한 소비문화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경제적 어려움을 지나며 ‘낮은 물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삭제되고 점차 개인이 능력에 맞춰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능력에 맞춰 소비할 수 있는 물질문화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을 이동시켰다. 인민은 변화된 세상에 얼마나 잘 적응하였는지 각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징표로 소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비문화는 북한의 소득불균형과 계층의 분화가 과거보다 더욱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새롭게 부상한 신흥 부유층 즉 돈주가 일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권력 엘리트 계급이 사회적 지위를 기반에 두고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며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계급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과시적 소비, 추가적 혜택, 인민적 시책, 소득불평등, 계급

Ⅰ. 서론

1980년대 말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는 북한경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정부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생필품을 기존의 낮은 가격으로 인민에게 제공해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인민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이지만,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며 시장화 현상은 확산되었다.[9] 시장관계의 도입과 함께 능력주의적 원칙이 구현됨에 따라 북한인민 안에서 소득의

차이와 사회적 불평등은 증가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장경제에 얼마나 더 빨리 능숙하게 적응하는지에 따라 실질적 소득에 차등이 생겨났고, 기존 출신성분 체계 안에서 강하게 구획되었던 계층의 이동 공간은 보다 확장되었다. 기존 질서 안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민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낮은 계층이었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경제 질서 안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적 지위 즉 부를 얻게 되는 가능성 다발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부를 획득한 신흥계급 이른바 '돈주'가 바로 이들이다.[10)]

이에 따라 북한인민의 소비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는 시장화를 통해 부를 획득한 신흥 부유층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을 주목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서사가는 북한 여성의 소비문화를 20대 북한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새 세대 여성은 사회 구성의 핵심이며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으로 북한의 소비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한 세대이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세대가 공식과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목도한 세대이며. 이를 통해 실리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특기할 것은 부족한 소비재 공급에도 불구하고 새 세대 여성의 소비는 급증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신흥 부유층의 소비패턴에서 강한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사가의 분석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민 특히 시장화 된 북한사회에서 성장한 젊은 여성의 소유욕구가 팽창했다는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11)]

박정인은 북한에서 일명 '돈주'로 호칭되는 경제적 부를 구축한 집단의 소비행태를 의식주 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 자녀양육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이들의 과시적 소비 행위에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싶은 개인적 욕망 즉 차별화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행위는 아직 개인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계급적 수준에는 머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12)]

사회학 및 경제학에서 과시적 소비는 실제보다 더 높은 품질, 가격 또는 더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의 행위를 지칭한다. 특히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유한계급이 자신의 소득과 축적된 부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고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시적 소비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베블런의 과시적 소비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유발하기 위한 행동이 단순히 그의 성격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개인의 욕망 발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획득하는 명성, 명예를 얻고 유지하는 즉 신용과 연결되며 소비주의적인 사회경제적 관행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는 것임을 설명한다.[13)]

부르디외는 과시적 소비행태가 계급의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드러내는 상징권력으로, 계급체

---

9) 경제체제의 변화와 시장경제의 확산에 대한 연구로는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65-71,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김석진, 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참조.

10) 정영철, "북한 경제의 변화-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역사비평』 126(2019): 1340159.

11) 서사가, 『북한 여성 소비문화의 변화』, (서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2) 박정인, 『북한 돈주의 소비행태 연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3) 소스타인 베블런 지음, 이종인 옮김, 『유한계급론』 (서울: 현대지성, 2018), 76-106.

계가 완고한 시기보다 사회적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계급체계에 혼란이 있을 때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급지위로부터 탈락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이 분화하는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재계급화 되는 공간에서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의 전략과 계급탈락에 대항하는 투쟁의 과정이 소비의 행태를 통해서도 그 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때 유한계급의 지위를 확보한 소위 벼락부자들이(robber barons)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은 경제적 혼란이 극심한 사회에서 타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회적 윤리의식이 희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본가의 소비행위로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지위를 지속하고 더 팽창하는 수단으로서 과시적 소비를 이해한다면 이들의 사회적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유한계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위계층의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보다 지나치게 과시적 소비를 하는 행위 역시 유한계급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심 그리고 동경에도 기인한다. 부자가 소유한 재산은 명예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습득한 재산인지와 상관없이 그저 부자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부러움을 사게 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동경하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위계층의 사람들은 이들 유한계급의 소비행위를 모방하게 된다. 자신의 여건에 가당치 않은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과시는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는 즉 가진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보다 더 많은 경제력이 있음을, 더 높은 서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지나침 애씀 혹은 전략인 것이다. 가난한 이에게 과시적 소비는 생산적인 모방이 아니라, 결여된 자존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생계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생각의 여유마저 잃어버린 자의 어리석은 행위로만 이해할 수 없다.[14)]

북한이탈주민이 이야기하는 경험 안에서 발견되는 북한사회의 소비문화는 신흥 부유층만이 과시적 소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비교적 최근에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과 만나자 마자 본인이 북한에서 어떤 물건 혹은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를 테면 “나는 화장품은 □□만 썼어요,” “나는 □□담배를 피웠어요,” “나는 컴퓨터가 □대였어요,” “우리 집은 아파트 □□□평이었어요,” 물론 비교적 과거에 이탈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이 북한에서 어떤 정도의 지위와 부를 가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만나자마자 소지했던 물건과 재산으로 자신이 어떤 지위였는지를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지 가늠하는 대화를 반복하면서 북한사회 안에 ‘과시하는 문화’가 생긴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15)] 본 논문의 관심은 이러한 경향이 북한사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러 연구에 참여하며 만나 온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난 7명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16)]

---

14)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서울: 새물결, 2006), 191-307.

15) 과시란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서나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행동이지만, 북한사회의 어떤 변화가 인민의 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쳐 결국 ‘과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이다.

16) 국경의 이동은 기존보다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으며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중국에 오랜

번호	성별	연령	탈북연	입국연	거주지	면접일
1	여성	40대	2019	2020	평안남도	2022.8.20
2	여성	30대	2019	2020	평안북도	2022.8.14
3	여성	30대	2019	2019	함경북도	2022.8.18
4	남성	40대	2019	2019	함경북도	2022.8.28
5	여성	20대	2017	2018	함경북도	2022.9.4.
6	여성	40대	2003	2005	함경북도	2022.9.7
7	여성	40대	2019	2019	함경북도	2022.9.13

<표 1> 면접대상자 인적사항

Ⅱ. 생활문화 규범의 변화

1.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기

북한은 사치와 낭비 없이 허례허식을 없애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아끼면서 아름답고 고상하게 생활하는 소비와 태도에 대한 규범을 인민에게 교육해왔다.[17] 소비에 대한 금욕적인 태도는 인간의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논의에 기원을 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그 자신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계급에 실질적인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사람이 갖는 의식이란 어딘 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회적 계급 구조 속에서 무엇을 먹고 입어왔는지 와 같은 경험으로부터 배태된 것이다.[18]

규범은 해당시기 북한의 상황에 맞게 시기별로 북한의 상황이 적용되며 북한인민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양식을 세밀하게 요구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옷차림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입는 것이 고상하고 식생활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아끼며 자그마한 비판과 실망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이 북한정부가 요구한 인민의 모범적인 생활문화이다.[19] 깨끗하고 단정하게, 때와 장소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정돈된 머리모양을 해야 한다. 고상하지만 검소해야 한다. 북한정부는 지위가 높아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인민성이

기간 머무르지 않고 남한 입국 직전에 탈북한 사람은 매우 소수이다. 이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과 연령, 북한에서의 거주처와 같은 정보를 통해 대상자의 신상이 쉽게 특정되지 않도록 성별, 연령대, 탈북과 인터뷰시기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적시하고자 한다.

17) 김경숙 외, 『사회주의 생활륜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215.

18)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독일 이데올로기』(서울: 두레, 2015), 78-92.

19)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63.민속학편: 사회주의생활문화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2010.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로 규정하며[20] 모범적인 행동의 전형을 가장 큰 권력자가 실천한다. 평범한 북한주민과 같은 옷을 입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이다.[21] 지나치게 눈에 띄는 옷차림, 과도한 액세서리, 문신, 아이라인과 같은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와 풍경을 해치는 차림새를 하는 것은 규범에 어긋난다.

이러한 금욕적인 규범의 틀은 속물주의, 과시적 소비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설명되었다. 북한은 가장 상세한 예로 남한의 소식을 전한다. 자본주의 사회 남한은 소수의 자본가와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가 극단한 개인 이기주의를 통해 절대 다수의 하위 노동계급을 착취하며 쉽게 재부를 취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 자신만을 위하며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봉건 통치배, 특권층, 날라리와 건달 즉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 사치와 낭비를 일삼을 수 있는 부르주아 생활문화와 비교했을 때 전체 인민이 각자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며 소박하고 알뜰하게 공동체의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주의 생활문화는 자본주의가 모순적 구조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회주의 북한의 우월성을 증명해준다. 더불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노력과 남들보다 더 눈에 띄는 외모를 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은 고상하지 못한 행위로 비난받는다.[22]

어떻게 살아야 사회주의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인민 개인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다. 인민이 입고, 먹고, 쓰는 것 중 많은 부분이 북한 안에서 만들어진다. 북한은 인민이 물질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봉사로 설명한다. 봉사는 해당시기 북한 처한 형편에 따라 내용과 범위가 조정된다.[23]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것을 현실에 맞춰서 선택하고 집중하며 조정하는 정책은 추가적 혜택, 사회적 시책, 인민적 시책의 언어로 표현되며 해당 시기에 맞춰서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추가적 혜택은 인민이 자신이 일하여 받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사회 속에서 받는 혜택을 말한다. 북한은 모든 인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년퇴직 이후에 받는 연금, 각종 생활보조금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치료는 무료이며 그 외에 여기에 인민이 받는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이 크던 작던, 재산이 많던 적던 기초적인 식생활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낮은 생활물가를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24]

사회주의 제도이지만 북한 안에서 개인은 서로 다른 계급, 계층에 위치해 있으며 그가 어

---

20)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 또는 품성,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700.

21)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을 찾아가서, 대중을 표현하며, 해결하며, 대중과 같은 의복을 입으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또한 대중을 배워주는” 김일성, 『김일성 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120-121.

22) 백옥련 외, 『사회주의 생활문화사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5, “부익부, 빈익빈,”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639.

23) ‘봉사,’ 사회과학출판사편,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622-623.

24) “사회주의적 분배,”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주체 정치경제학 독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329-349.

떤 가정환경에서 나고 자라 어떤 사회적 지위에서 근로하는지에 따라 재산과 임금에 따른 경제적 지위에 격차가 있고 소비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은 노동의 대가 즉 임금정책은 차차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변화해나갔지만, 1990년대 초기까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분배 몫 즉 임금(생활비)과 상품의 가격 차이를 더욱 더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인민이 다 같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 주민집단들의 소비 수준과 구조에서의 차이를 없앨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즉 사회주의적인 분배와 소유를 지향했기 때문이다.[25]

인민이 각자 어떤 가정형편,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던 생명을 보존하며 모두 골고루 먹고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국가예산에 편성된 추가적 시책비로 알 수 있다.[26] 국가가 가격의 격차를 보상한다는 것은 북한의 가격이 큰 틀에서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가격 즉 국정가격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협의가격이 그것이다. 북한 안에서 거래되는 소비품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현실물가를 적용하여 협의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러나 사치품, 기호품이 아니라 인민의 생활안정에 긴밀하게 필요한 부문에는 낮은 물가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국정가격으로 인민이 살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때 판매하는 단위에게 국가가 국정가격과 현실물가 사이에서 생기는 차액을 보전해준다.[27] 1999년 발행된 『주체 정치경제학 독본』도 인민에게 추가적 혜택으로 1. 무상교육 2. 무상치료 3. 사회보험제도 4. 극히 낮은 가격으로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적 혜택은 인민의 생활을 돌봐주는 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다르게 인민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인민이 몸으로 체험하여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28]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배급제가 붕괴되고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이 현실물가와 괴리된 이후 정당한 노동보수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기존의 '추가적 혜택' 즉 노동하지 않아도 북한사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복지혜택은 북한이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증거로 남겨두었다.

2005년 발행된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에서 '추가적 혜택'은 '사회적 시책' 즉 시국에 맞춰 대처하는 정책으로 다시 변경되어 표기되었다.[29] 해설서는 김정일의 교시

---

25) "인민소비에 대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규제적작용,"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62-278, 직접 인용 페이지는 268.

26) 국가식량가격편차보상금, 상품가격인하 보상금, 학생 및 어린이 옷보상금, 농촌지원로력생활비보상금, 석탄가격편차보상금, 연료보조금, 기타시책비 등이 포함되어 식생활을 기본으로 쌀, 간장, 된장, 채소 등 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문을 인민이 원가보다 더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가격격차를 보상하는 것이다. '추가적시책비,' 사회과학출판사편,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131.

27) '계획가격,' '협의가격,' '가격편차보상금,' 사회과학출판사 편,『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305, 1238-1239. 13.

28)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주체 정치경제학 독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345-349.

29) 사회적 혜택은 1961년 김일성의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 실적에 다음과 같이 언급된 바 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61년 9월 11일) 中-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하여 받는 것을 내놓고도 많은 국가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91-192.

“현실적 조건에 맞게 사회적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를 인용하며 “사회적 시책은 국가가 인민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 주는 사회주의 사회에만 있는 무상 또는 특혜조건으로 국가가 전체 인민을 위하여 베푸는 추가적 혜택”이라고 정의한다. 김정일의 교시에도 설명되어 있듯, 추가적 혜택에서 사회적 시책으로 표현이 변화한 것은 인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북한의 처한 현실에 맞춰서 실시되며, 어느 부문에 집중할 것인지 역시 조절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30]

‘사회적 시책’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에게 극히 낮은 가격으로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며 기존의 ‘추가적 혜택’에 포함되었던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과 정휴양, 영예군인 우대제도는 언급되며 자본주의 사회에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증명한다고 설명되었다.[31] 추가의 위치에 있었던 정책이 북한체제가 여전히 우월한 제도임을 증빙해주는 중심 정책으로 위치로 이동한 것이다.

인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춰 열심히 노동하면 그 결과 중 일부는 그 노동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보수를 받고 나머지는 그가 일한 기업을 거쳐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모인 국가 예산 수입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쓰이며, 전체 국가 예산 수입이 높아지면 국가는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영역에 정책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준다.[32] ‘사회적 시책’은 점차 ‘인민적 시책’으로 변경되어 표기된다. 추가적 혜택, 사회적 시책, 인민적 시책은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해당 시기에 북한정부가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그 강조하고자 하는 언어가 차용되는 것으로 보인다.[33] 김일성 시대에는 무료교육, 무상치료와 여러 사회보험제도와 더불어 인민이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차이가 있어도 생활 속에서는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낮은 물가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90년대를 지나며 김정일 시대에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가 책임지는 역할을 축소했다.

2. 능력에 맞춰서 소비하기

김정은 시대는 낮은 물가보다는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물질문화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며 이러한 정책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소비재의 다양화하고

30) 시책의 한자 표기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施策 : 어떤 정책을 시행함. 또는 그 정책. (베풀 시, 꾀 책), 時策: 시국에 대처할 정책(때 시, 꾀 책) 시국에 대처할 정책으로 판단하고자 함.

31) “로동에 의한 분배와 사회적 시책의 정확한 실시,”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00-210. 직접 인용은 204.

32) 최경인, “우리나라에서 추가적 혜택에 대한 통계적 연구방법,”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2호, 루계 63호), 191-192.

33) 인민적 시책 표기는 1952년에도 발견된다. 전쟁 중에도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인민적 시책을 해석하면, 해당시기에 갈급하게 인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제의 야수적 만행과 작년의 대홍수와 한재로 말미암아 조선인민들은 금년도 보리고개에 적지 않은 식량고난을 당하였다. 농민들이 금년도 춘경 시기에 종곡 부족에 부닥쳤을 때 당과 정부는 농민들에게 직접 국가 량곡을 대여하여 주는 배려를 돌리였었다.” “당과 정부의 인민적 시책을 애국적 투쟁으로 보답하자,” 로동신문, 1952.10.8.2면.

능력에 따르는 소비를 장려하는 문화로 이끌어진다. 김정은은 2003년 이후 10년 만인 2013년 전국 경공업대회를 개최하며 기본제품 생산과 생활필수품 생산을 다 같이 밀고 나가 맵시 있고 쓸모 있는 각종 소비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연설한 바 있다.[34] 이것은 기존에 낮은 가격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인민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업의 운영목표에서 벗어나 북한 내부 기업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며[35] 나아가 세계의 유명제품과도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질이 좋은 제품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끌어진다.[36] 더 다양한 상품, 더 다양한 품질의 상품이 다양한 가격대로 생산되며 인민이 자신의 소비능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새로운 소비정책인 것이다.[37]

2020년 발행된 도서『공화국의 인민적 시책 문답』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국풍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민적 시책에 담겨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역시 추가적 혜택과 사회적 시책에서 언급되었던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가 인민적 시책으로 언급되었으며, 새롭게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 건설이 언급되었다. 해당 도서는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개인 인민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민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서" 운영됨을 설명한다.[38]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은 인민적 시책의 성격이 인민을 위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친인민적이지만 또한 친현실적인 두 개의 조건에 따라 운용됨을 말한다.[39]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물질과 기호에 대한 소비욕망을 갖는다. 저마다 자신의 개성에 맞는 색, 모양, 형태 등에 대한 취향이 있기 마련이며 유행에 민감한 사람도 있다. 어떤 머리단장을 할 것인지, 어떤 옷차림을 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

---

3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3.19.2면.

35)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5.1.1.2면.

36)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6.1.1.2면.

37)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2018년 1월 1일.1면.

38) 리연선,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 문답』 (평양: 평양출판사, 2020), 2-3.

39) 물가는 낮추고 생활비는 높여서 인민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인민적 시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 물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아니다. 친인민적이지만 친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후 우리나라에서는 소금가격이 2중으로 정해져 있었다. 소금 1kg의 공급가격은 8원이고 일반 판매가격은 20원이였다. 당시 해당 부문 일군들은 소금의 국정소매가격을 낮춘다고 하면서 공급가격과 일반 판매가격을 유일적으로 10원씩 할 것을 제의하였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소금값을 현저히 인하한 것으로 보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급가격을 높이면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하시면서 공급가격은 8원으로 그냥 두고 일반 판매가격만 15원으로 낮추도록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홍성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인민적 시책을 위한 재정사업을 강화하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철학, 경제학, 제64권 제4호, 누계 538(2018): 109.

로 생활을 꾸려나갈 것인지 개인이 갖는 욕망의 기호가 소비를 통해 드러난다. 그 욕망 안에도 해당 시기의 규범이 작용한다. 과거 다 같이 골고루 잘 살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입는 것이 사회주의의 가치와 도덕, 고상함을 담은 사회주의적 문화로 장려되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제품이 다양한 가격대로 생산되며 자신의 지불능력에 맞춰 구매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김정은 시대 검소함은 남루함과 다른 언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인민에게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지불능력에 맞추어 질이 좋은 상품, 편리함, 내구성(견딜성), 주변과 조화되는 정도를 고려한 성숙한 선택의 과정을 거친 개인은 즐거움, 기쁨, 만족감과 같은 소비욕망을 충족하며 다양한 양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는 것이다.[40] 변화된 정책과 규범은 북한사회 안에서 새로운 소비문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것은 북한 인민의 소비태도에도 반영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과거 다 같이 골고루 잘 살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입는 것이 사회주의의 가치와 도덕, 고상함을 담은 사회주의적 문화로 장려되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제품이 다양한 가격대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불능력에 맞춰 구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Ⅲ. 능력과 소비

북한이탈주민은 비싼 가격의 의복과 기호품은 그 가격에 합당할 만큼의 좋은 재질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인지 가늠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다는 것은 북한이 맞이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의 모든 능력의 종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에서 통용되었다고 설명했다.

> 사람이 비싼 옷을 입지 않나요? 그럼 벌써 '비싼 옷이다' 알리죠.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지 어느 정도 돈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죠. 딱 보면 알려요. 무조건 알려요. 북한 브랜드는 다 알아. 나는 맞출 수 있어. 북에 사는 사람은 서로서로 딱 보면 저 사람 돈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쫙 보면 알 수 있고 그 격차가 커요. 바늘땀 봐도 남포가공이구나 평성가공이구나 이건 맞춘 옷이구나 개성공단에서 들어온 기성복이구나 남한상품이구나 알리죠. (40대, 여성, 평안남도, 2019 탈북, 2020 입국, 2022 인터뷰)

북한은 공식가격과 현실가격 즉 합의제 가격의 괴리를 타계하기 위해서 공장과 기업이 제품, 가격, 판매방법, 노동자에게 줄 인센티브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한 '기업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헌법 33조 개정을 통해 명문화했다. 이러한 시도는 현실물가와 임금의 격차를 일정 부분 조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 가능하다. 기업운영의 자율을 확대해줌으로써 시장에 맞게 이윤을 남겨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40) 리해연 외, 『상업봉사심리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9), 18-22.

비를 확보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게 되었지만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의 경우에 시장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도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북한인민은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는 걸까? 공식월급과 현실의 북한물가를 비교하면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수수께끼와도 같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인민이 공식 월급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비공식 행위를 통해서 충당하게 되며, 상당수는 자신의 직업을 활용하여 부차적인 경제적 이득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인민은 자신의 직업과 권한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월급'을 만들고 있으며, 경제난 등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공식 경제 영역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작동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식적 경제거래가 인민 사이에 만연하지만 동시에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인민은 불안정한 비공식적 경제거래를 위해 서로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래처인지 그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안전망을 필요로 한다. 이때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등장한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는 가장 먼저 보이는 그의 외양 즉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격대의 담배와 핸드폰을 사용하는지와 같은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을 통해 가늠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있었을 때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각자의 형편보다 무리를 해서라도 과시적 소비를 했음을 설명한다. 인민의 과시적 소비행위에는 단순히 자랑하고 싶은 개인의 욕망만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더 큰 이득이 돌아오게 되는 신용의 가치가 북한의 사회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돈 냄새가 나면 좋죠. 잘 살면 사람들이 더 잘해주죠. 나를 쉽게 대하지 않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봐주죠. 내가 뭘 하면 다 따라 입고 싶어 하고 내가 든 가방은 다들 들고 싶어 하고 유행을 따르고 싶어 하죠. 그러면 나는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했죠. 중국문화는 좀 천하달까. 이상하게 희귀하게 입고. 북한은 고상해야 하거든요. 고상하면서도 특이해야 하고. 사람들 볼 줄 알잖아요. 바느질, 소재, 더 고급스러운 거를 추구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입고 싶지 않거든요. 모든 것을 내 수준에 맞는 걸 하고 싶죠.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면 부유한 사람들하고 수평을 맞출 수 없어요. 못 사는 사람은 당연하게 자기가 못 사니까 그 수준으로 자기를 생각하죠. 그러나 허투루 입을 수 없죠. 그렇게 하려고 안하죠. 왜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못 살면 남한테 위축 받는 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더 위축 받겠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무리가 있어요. 못 사는 사람은 당연하게 잘 사는 사람 무리에 못 끼죠. 자기 격에 맞춰서 다 사는 거예요. (40대, 여성, 함경북도, 2019 탈북, 2019 입국, 2022 인터뷰)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에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어 시도했던 여러 전략이 등장한다. 고상

하고 검박하게 살아야 하는 규범을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 안전한 범위와 개성을 드러내기 사이에서 신중하고 섬세한 차별화 전략이 시도된다. 인민의 지위상징 경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발현되기도 한다. 북한정부가 아무리 인민 모두가 평등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인민은 전체 인민을 위해 봉사, 즉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도 일상 속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지위가 다름을 알 수밖에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 생활규범에 맞는 외양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교육하며 사회에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진 생활검열이 존재한다. 때문에 북한 사회를 멀리서 보면 모든 인민이 비슷비슷하게 검소하지만 단정하게 입은 풍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민의 생활에는 치열하게 각축되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등장한다. 거리에서 복장을 검열하는 사람은 아무나 검열하지 않는다. 검열을 하면 순응할 지위에 있어 보이는 사람을 검열한다. 인민은 매 순간 지위를 겨루지 않더라도 “지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일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해주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을 밝히고 지위를 겨루지 않더라도 지위가 높아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경제적 상황보다 더 과시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이다.

>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기를 꾸미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없는 티를 안 내려고. 그러나 얼굴만 봐도 진짜 힘든지 안 힘든지 막 알리거든요. 아무리 멋있게 꾸민다고 해도. 조금 뺨뺨하게 빼입고 나와도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남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꾸미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안 꾸며도 막 없어 보이지 않거든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가격대가 있거든요. 딱 보면 알려요. 티가 나죠. 차별이(40대, 남성, 함경북도, 2019 탈북, 2019 입국, 2022 인터뷰)

과시적 소비 전략은 검열에 걸릴 만큼, 혹은 주변 이웃과 직장동료가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노골적인 것이 아니다. 브랜드 로고가 커다랗게 표기되는 등의 사회주의 문화규범에 어긋나는 옷은 물론 검열대상이기도 하지만, 고상하게 지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어리석은 행위로 이해된다. 40대 여성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보이고 싶은 인민의 마음이 지위상징을 드러내는 전략으로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딱 보면은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싼 옷일수록 엄청 착용감도 무게가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거잖아요. 뭐 없어도 막 빚지면서도 입으려고 하는 게 있죠. 한 2016년, 2017년 들면서 더. 거기도 상중하 이런 게 있거든요. 고생하면서 산 사람은 벌써 딱 고생한 게 알려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살죠. 또래도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모인다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하고는 별로 대상하고 싶지 않아하고 그런 건 있어요. (30대, 여성, 함경북도, 2019 탈북, 2019 입국, 2022 인터뷰)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는 여전히 수

행해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받는 월급은 명목상의 월급일 뿐 현실의 시장물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은 공식/비공식적 경제관계를 통해 꾸려나가고 있다. 공식/비공식적 경제관계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며, 또한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북한은 고리대 자본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대부자본은 돈이 있는 사람 만 할 수 있으며 그는 돈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노력 없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그에게 돈을 빌릴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계속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돈이 있는 사람 즉 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한 가장 반동적인 행위로 비난받는다.

북한사회 안에서 만약, 상대방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에게 합당한 이윤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 때 이 문제는 쉽게 법에 호소할 수 없다. 비공식적인 거래는 특히 그러하다. 북한사회 안에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는 정부에서 오랫동안 강하게 규제해왔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 봉건시대 착취제도에서나 있었던 나쁜 습속이기 때문이다.[41] 그러나 북한사회 안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끼리 고리대를 지불하며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은밀하지만 성행하는 행위이다. 물론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주고받는 돈은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에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원이 확실한 사람과 거래한다는 점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옛날에는 남의 눈을 피해서 입고픈 것도 못 입고 막 이렇게 숨기면서 이랬거든요. 지금은 있으면 있는 대로 마구 티를 내요. 노골적으로 막 좋은 집도 사고, 집을 막 까부시고 엄청 멋있게 인테리어 꾸미고 살거든요. 지금은 문제 제기가 안돼요. 예전에는 그런 게 비사회주의 걸렸지만, 이제는 자기 능력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거니까 괜찮아요. 문제가 제기 되도 “제기되고 이러는데 좀 조용히 좀 하라”하면서 얘기해서 돈 좀 받아가죠. (40대, 남성, 함경북도, 2019 탈북, 2019 입국, 2022 인터뷰)

북한의 인민이 공식/비공식적 경제거래 속에서 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관계 자체가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은밀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태롭게 돈을 버는 북한 인민은 안정적인 거래망을 확보하고 싶기 마련이다. 법적 담보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는 결국 서로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거래상대는 그가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가족은 신용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이미 그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과도 거래할 수 있다. 새로운 거래는 더 큰 이윤이 약속되었을 때 시도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탄탄한 경제적 여건을 가진 사업가라면 그의 거래망 안으로 하며 진입해야 자신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더 높은

41) “모순과 대립의 격화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산물,”『로동신문』 2018.4.1.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외양을 지켜보기 마련이다. 때문에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과시적 소비가 등장하는 것이다.[42)]

Ⅳ. 욕망과 한계

‘과시’는 특정 재산 정도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었든지 그에 맞춰서 그보다 조금 더 소비했었음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대화의 맥락에서 물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의 증빙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능력이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고비를 기점으로 달라진 북한사회의 변화를 자신이 혹은 그의 부모가 어떻게 견뎌냈으며, 어떤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와 연결되었다. 능력 즉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외양은 그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능숙하게 새로운 경제체계에 적응했다는 이른 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하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오랫동안 북한정부가 강조한 “사회주의적으로 생활하기” 즉 금욕적인 생활규범 이념에 억눌렸던 북한인민으로 하여금 기존보다 높아진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거나, 혹은 그 지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점유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과시적 소비행태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 부자도 티를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나는 차도 사고 싶고 차를 살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은 차를 살 수 없어요. 기관에 적을 걸어야 차를 살 수 있고 그러면 국가재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집 꾸리고 외에는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요. 꿈 꿀 수 없는 건 안 꿔요. 꿀 수 있는 꿈까지만 꿔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층계층이죠. (40대, 여성, 함경북도, 2019 탈북, 2019 입국, 2022 인터뷰)

> 담배 가격 차이가 엄청 나죠. 풍년, 민들레는 중국 돈 2원, 고향은 일반이에요 4원, 5원. 장백산은 20원, 30원. 중화는 30원, 40원, 50원짜리도 있거든요. 세븐, 피스는 45원, 50원. 727은 40원, 50원정도. 안정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이나 보안원은 장백산이나 이런 걸 피우죠. 중화는 고위급. 엄청 생활이 가난해. 군대도 갔다 와, 대학도 졸업해. 그런데 돈이 많은 집 여자랑 결혼했어요. 사위한테 돈을 투자해서 법관이나 당 일꾼을 시키겠다고 소망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빠르죠. 북한에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지만

42) 40대 남성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잘 안 꿔줘요. ‘저 사람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돈 생산지가 있다. 돈 나올 데가 있다. 빌려줘도 괜찮겠다.’ 신용. 그 다음에 사람의 인품 세게 중요하게 여기죠. 모든 약속, 모든 거래, 모든 행동. 거기서 허물어지면 인품이 아주 떨어지잖아요. 신용이 중요하다. 신용이 곧 돈이잖아요.” (40대 남성, 2020년 탈북, 2021년 인터뷰)

> 최근에는 진짜 그게 드믈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진짜. 돈이 안 따라나서는데 부자로 될 수가 있나요. (40대, 남성, 함경북도, 2019 탈북, 2019 입국, 2022 인터뷰)

> 자기 능력으로 잘 사는 사람 되는 거 불가능해요. 누가 돌봐주는 게 있어야 가능하지 진짜로 능력은 있는데 돈 없고 아무 것도 없어 누구 받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능력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건 잘사는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죠. 못 사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죠. (40대, 여성, 함경북도, 2019 탈북, 2019 입국, 2022 인터뷰)

새롭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과 나머지 계층 사이의 분계선이 분명하며 이 차이가 점점 더 분화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소비가 개인의 취향과 경제적 여건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 객관된 지표이며,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문화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 경쟁에서 사회적 지위/경제적 지위에 따른 빈자와 부자 사이의 분열이 증가하는 조건에서 탄생한다는 점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다.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 대해 포착한 윤승빈은 북한 안에서 경제적 위기와 기회가 교차되며 북한사회 안에서 활발한 계층의 분화가 생성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안정적이며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 공고하게 주어져 있는 위계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며 결과적으로 고난의 행군기 이전보다 더 큰 소득 불평등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43] 최규빈, 박환보, 이요환은 북한정부가 무료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정치적 지위와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더 좋은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계급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44] 북한 안에서 시장경제가 활발하고 새로운 신흥부유층이 생성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기존의 사회구조와 완전히 괴리되기 보다는 그 구조에 기반을 두고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Ⅴ. 결론

북한 사회 안에서 소비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기준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과시적 소비는 개인과 사회 집단 차원에서 인민이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이자 체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범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부를 획득한 신흥 부유층에서만 나타나는

43) 윤승비, 『북한 현실 경제의 변화 가능성 분석: 시장과 소득을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44) 최규빈, 박환보, 이요한,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21)

현상이 아니며, 정부 정책과 별개로 운영되는 현상도 아니다. 변화는 북한정부가 새롭게 규정한 물질문화에 대한 정책의 결과이며 북한인민의 만난 사회적 현실, 계층화, 과도해진 사회적 불평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과시적 소비를 했던 행위의 사유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의 이야기 안에는 자신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어보이고자 하는 인상적인 자기표현의 도구였음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가격대의 상품의 제품을 사용하는지는 사회적 지표로 활용가능한데, 이것은 공식/비공식적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인민들의 삶의 경쟁전략이기도 하다. 소비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이 높아지는 것에 소용되고 그가 지닌 물건이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은 그를 둘러싼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한이 자본주의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역시 소비에서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은 아무리 변화된 사회규범에 능숙하게 적응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 구조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지에 따라 그 한계는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한계가 공식/비공식적 직접과 관행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인민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더욱 극명하게 양극화 되어 가고 있는지가 소비문화에서 더욱 드러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북한 인민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혹은 그보다 더 많은 투자를 “보여줄 수 있는 물건”에 소비하며 인상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경숙, 『사회주의 생활륜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김일성. 『김일성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2.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석진, 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리연선.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 문답』 평양: 평양출판사, 2020.

리해연. 『상업봉사심리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9.

마르크스, 카를. 엥겔스, 프리드리히, 『독일이데올로기』 서울: 두레, 2015.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박정인. 『북한 돈주의 소비행태 연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부르디외, 피에르.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서울: 새물결, 2006.

백옥련 외, 『사회주의 생활문화사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베블런, 소스타인. 『유한계급론』 서울: 현대지성, 2018.

사회과학출판사편.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출판사편.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사회과학출판사편.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사회과학출판사편. 『사회주의생활문화사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서사기. 『북한 여성 소비문화의 변화』 서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양문수. 『북한 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윤승비, 『북한 현실 경제의 변화 가능성 분석』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주체 정치경제학 독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정영철. “북한 경제의 변화-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역사비평』 126호(2019).

최경인. “우리나라에서 추가적 혜택에 대한 통계적 연구방법,” 『경제연구』 2호(1989).

최규빈, 박환보, 이요한,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21)

홍성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인민적 시책을 위한 재정사업을 강화하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철학, 경제학, 제64권 제4호, 누계 538(2018)

크레스웰, 존.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서울: 학지사, 2015.

로동신문

발표3

영상이 기록하는 기억의 언어와 몸짓

김 량(영화감독, 존 필름 대표)

저는 포스트 실향민 세대로서, 구술을 바탕으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첫 작품 <경계에서 꿈꾸는 집>은 철원 민통선 마을에 정착한 주민들의 개인사를 다룬 구술 다큐멘터리로서,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경쟁부문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 <바다로 가자>는 한국 전쟁 월남 세대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분단이 고착화 되면서 점차적으로 '사사화privatization' 과정에 놓이게 된 이산의 아픔이, 세대를 잇는 가족 내에서는 무관심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국내 8개의 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되었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초청 상영되어 뉴욕 시네마 인디펜던트 영화제에서 최우수 국제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국 공식 개봉하였습니다. 현재는 차기작으로 이산 세대가 대물림 받는 정신적, 물질적 유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제에 앞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술자에 대한 저의 접근성입니다. 구술 작업은 흔히 녹취로 이루어지지만 점차적으로 영상 촬영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 연출자로서, 영상이 기록하는 기억의 언어와 몸짓에 관하여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째는, 구술자의 기억을 구술하는 과정을 기록한 영상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창작자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저 스스로가 포스트 실향세대로서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체성과 경험에 입각하여 구술자와 대화를 진행하고, 기록합니다.

흔히 구술자분들을 섭외하고 구술을 진행하다보면, 과거의 기억을 언어화하는 과정에 익숙한 분들이 있고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텍스트가 중요한 구술 기록의 경우, 기억을 언어화하는 구술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언어화하는 데 능숙한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술자의 언어화 능력보다 구술자가 지니고 있는 기억 구조가 어떻게 표현되는 가,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한 구술자의 감정이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연구자가 아니라 창작자이므로, 구술자의 묵은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감성적 활동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구술자들 중에는 방송 출연도 자주하시면서 자신의 구술에 테크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청취자 혹은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는 언변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소개받으면,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구술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술을 영상으로 접하면, 가독성은 높지만 감정 전달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술은 텍스트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술자의 구술이 영상 이미지로 전달되는 것은, 이렇게 복합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을 포함하게 됩니다. 구술자가 이미 자신의 기억을 언어로 재현하는 1차적 과정을 기록하고, 그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2, 3차적 재현(촬영과 편집)의 영역에서, 영상의 결과물을 접하는 관객 혹은 시청자들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재현의 차원으로 연결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구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억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영역에서 출발하여 <듣고 보고 느끼는> 시청각적 감성으로 초대하며, 그러한 영역에서 표현되고 재현되는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술자의 기억에 접근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순식간에 발생하게 되고, 이로서 관객은 구술자와 정신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른바 '감정 이입'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또한 창작자는 구술자의 표정, 몸짓 등이 시청자, 혹은 관객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 것인지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냉철한 객관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Shoah 쇼아>(1985년)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막은 영어입니다. 이 영상에서 구술자의 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술자의 표정에 집중하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약 3분의 영상입니다. (13:26~ 16:20)

이 다큐멘터리는 프랑스의 클로드 란즈만 감독의 주도하여 1975년에서 1981년까지,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과 가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촬영을 진행했고, 1985년에 개봉하였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에서 구술자는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통역자(여성)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구술자는 웃음을 띤 표정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잊어야 한다'며,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란즈만 감독(질문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이야기하는가?'라고 구술자에게 질문하고, '나는 지금 의무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구술자는 답변합니다. 구술자는 자신이 유대인 대학살의 주요 가해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 사건에 관한 책도 받았지만, 그 책을 읽지는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란즈만 감독은 '당신이 생존자라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구술자는 강제수용소에 있었을 때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존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웃음을 짓고 있는 구술자에게 '당신은 왜 계속 웃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구술자는 '내가 울기를 바랍니까? 때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웃는 게 낫지요'라고 답변합니다. 그때 화면 프레임 안으로 누군가의 손이 들어와 그의 어깨를 어루만집니다. 손은 그를 위로하고 있는 몸짓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목격하려는 의지'를 구현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품에서 구술자와 카메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의 첫 작품 <경계에서 꿈꾸는 집>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 약 3분 <상처받은 남자의 귀환 40:33~ 43:50>

이 분은 철원이 고향으로, 소년기에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1969년부터 시작된 철원 지뢰밭 제거 작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무 살에 얻은 첫아들이 미군의 지프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지요. 그 보상으로, 국방부로부터 땅을 부여받았지만 그 땅으로 노름을 하여 날리게 됩니다.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분은 결국 고향 철원을 떠나게 됩니다. 서울에서 노동 운

동도 하셨고, 정치적 활동과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 후 다시 고향 철원으로 돌아온 분입니다. 저는 그 분이 아들을 잃었다는 스토리를 미리 알고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케이스로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흑백 화면으로 전개되는, 그 분의 가슴 아픈 고백은 그 분 스스로 이야기를 꺼낸 내용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총 12명의 구술자가 등장하는 데, 각각의 스토리에 소제목을 붙였으며, 마치 쉼표를 찍듯 1초의 암전 효과가 자주 등장합니다. 편집의 개입으로 구술 영상에 텍스트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저의 세 번째 작품 <바다로 가자>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약 4분의 영상입니다 (50:00~54:03)

이 장면에 등장하는 구술자는 포스트 실향민(2세)로서, 가족이 모두 해체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분의 스토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발견하였고, 그 스토리를 영상으로 인터뷰한 후 구성하기 위하여 섭외하였습니다. 첫 만남으로 진행되었던 1차 인터뷰는 그 분이 거주하는 세종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종 역 카페에서 만났는데 당시 사전 취재차 진행된 촬영이라 카페의 카페의 소음이 그대로 담겼고, 카메라를 구술자와 저 사이 에 놓인 테이블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구술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후 이 분을 서울의 스튜디오에 초청하여 촬영하였으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고, 내적인 분노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앞서 그분이 카페에서 구술할 때의 감정이 더 솔직하고 담백했습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카페에서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영상을 더 많이 편집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카페에서 촬영했을 때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느껴졌고(손을 얼굴에 갖다 대는 몸짓 등),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을 때는 카메라의 정면을 쳐다보는 구술자의 표정에서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에 구술자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모두 성격파괴자예요'라고 말하는 부분은 스튜디오 촬영 본입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기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스튜디오에 초대된 분들이 조명아래에서 증언이나 구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미장센(연출된 환경)이 설정된 경우 구술자의 태도 또한 연출될 확률이 높거나 지나치게 긴장하여 자연스러운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구술자는 친부의 이산으로 인한 아픔, 그리고 비극적으로 해체된 가족, 이러한 기억을 구술해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과되지 않는 감정들이 기억의 구술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텍스트성에서 벗어난 구술의 감성을 경험하고 공유(감정이입, 혹은 카타르시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문학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약3분입니다 (40:35~43:00)

여기 등장하는 50대 중반의 남자는 저의 친오빠입니다. 오빠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분단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구술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표정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감정은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분단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신경을 쓰면서 살 만한 여유가 없다, 라는 보편성입니다. 많은 관객이 오빠의 구술에 동의하고 공감하였는데 거기서도 관객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졌고, 분단의 피로감에 시달린 관객은 인문학적 치유(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분이 하셔서 통쾌하다)를 경험한 셈입니다.

이 두 영상을 보시면 편집의 개입이 명확하며, 인물의 구술이 교차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술의 텍스트는 관객의 감정이입을 돕기 위하여 재구성됩니다. 이것을 4차적 재현이라

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구술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기억과 몸짓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는 가에 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영상이 기록하는 기억의 언어와 몸짓에 관한 담론에 필요한 형상과 질료를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구술의 텍스트성도 중요하지만 시간성과 공간성이 부여하는 의미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구술이 진행된 시간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이 현장감을 공유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지만, 방송이나 다큐멘터리 영화에 있어서 대부분의 구술 영상은 편집의 과정을 거쳐 구성됩니다. 몇몇 일부 연출가들 혹은 미디어를 개념적으로 다루는 창작자들(예:상탈 아커만, 왕빙)은 가능한 장시간의 인터뷰를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편집이 개입하지 않은 영상은 텍스트성이 강화됩니다 : 언어의 힘과 언어의 한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관객은 영상의 현장성(시간성과 공간성)으로 초대됩니다. 따라서 구술자의 표정과 몸짓 또한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되지 않은 문*선(1929년생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기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약10분입니다.

부산에 피란을 온 뒤 정착한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문*선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피란 당시와 정착 과정에 대한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구술은 텍스트로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눈을 수시로 지그시 감는 그녀의 표정을 통하여, 그녀가 실타래처럼 엉킨 기억을 짚어 나가면서, 기억의 구조를 텍스트로 재현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술자가 손짓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을 소환하여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몸의 언어입니다. 그녀의 구술은 텍스트로 구성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그녀의 몸짓과 표정을 통하여 전달되는 감정이 구술의 모호한 텍스트성을 시각적 감성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줍니다. 이 영상에서 편집은 개입되지 않았지만 카메라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몸짓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과거에 겪은 경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이 기록하는 기억은 이미지로서 인지됩니다. 우리의 기억구조는 언어와 이미지가 뒤엉켜있습니다. 텍스트로 기록되는 기억이 있다면, 이미지로서 기록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 작고한 위대한 영화작가 장 뤽 고다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지는 정신의 순수한 창작활동이다’. ‘이미지에서 인간의 기억을 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기조강연

기조강연

구술사와 학문적 정체성

함한희(전북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며

서두에서 나는 이번 발표 제목에 대해 해명부터 하고자 한다. 구술사와 학문적 정체성이라는 제호를 달았지만, 사실은 구술사와 나의 학문적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는 뜻이다. 부제(副題)라도 붙여야 하는데 마땅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마도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야 적절한 제목이 생각날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내가 구술사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나는 현지조사를 할 때나 조사한 자료로 분석을 할 때나 인류학과 구술사에 구별을 두거나 경계를 만들어본 적은 없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였다. 그러나 내가 구술사 관련한 논문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또는 발표를 부탁받을 때면, 느닷없이 나의 학문적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된다. 내가 구술사가인가? 아닌가?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평소에 자문자답했던 것들을 가지고,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구술사의 특징을 짚어보려고 한다.

현지조사를 하면서 듣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를 연구자료 또는 사료로 사용할 때면 나는 무엇이 구술사를 구술사답게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구술사가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을 주장할 때,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다. 박이문에 따르면, 어떤 학문을 그 학문답게 하는 정체성에는 네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탐구 대상의 특수성인데 이는 그 학문이 선택한 연구대상의 성질에 의해 규정된다. 둘째는 인식론적 시각으로 그 학문이 선택한 연구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의해 규정된다. 셋째는 그 학문이 지향하는 목적에 대해 수단으로 봉사하는가에 의해 규정된다. 넷째는 그 학문이 소속된 국적, 지역, 공간,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였다(박이문 2002: 73-75). 구술사는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학문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객관적 기준은 통과한 셈이다. 그러나 구술사의 학문적 정체성 규명은 여전히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학제 간의 연구를 강조하고 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학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때에 구술사다움을 강조하는 나의 문제의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2. 역사인류학자의 구술사

“인류학과 역사학의 연구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보다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역사를 써 볼 수는 없을까. 이것이 나의 오래 전부터의 꿈이었다.”로 시작하는 나의 첫 번째 학회발표는 인류학자의 구술사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계획에도 없었던 ‘궁삼면 사건’이 논문의 주제가 되어버리면서 그 당시 내가 가졌던 역사인식과 해석의 문제를 소개하였다. 구술사와 기록을 오가면 진행했던 현장연구의 우연성과 필연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인류학이 역사를 소홀히 했고, 역사학은 현장 연구를 외면해 온 점을 비판했다. 특히 현지인들의 증언인 구술은 학술연구에서는 인용이 금지되는 분위기였다. 아마도 그

당시 학술논문을 쓸 때 구술을 사용할 수 있었던 분야는 인류학, 민속학, 구비문학 정도였을 것이다. 나는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서 궁삼면사건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의 구술을 듣고 나주지역에서 대지주 黑住猪太郎의 기록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간 현지였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시기였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농촌사회의 대변혁을 알아보려는 필자에게는 기록되지 않은/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자료를 찾는 일이 중요했다. 구술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기록에서 다시 구술을 찾는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론에 이르러서 나는 다음과 같이 고백 아닌 고백을 하였다.

> "사료(기록 자료)의 정확성을 밝히는 일에 매달리고 마는 고증사학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궁삼면 토지가 '나랏님의 땅'이었다고 하는 경우에, 경선궁을 왕실과 동일하게 여긴 것은 그들의 잘못이며 당시의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일이라고 해서 그들의 말을 간단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지인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 말들이 자아내는 분위기를 읽으면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는다. 기록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나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에게는 그냥 지나치려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여 보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45]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가는 말은 살아서 움직여야 힘이 있다. 최근의 구술사 연구에서는 이같은 '말'이 아니어서인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며 그래서 힘도 없다. 따라서 구술사는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는 '말'을 다루는 학문이어야 할 것이다.

2. 민중생활사와 구술사

20세기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구술생애사 작업이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거대한 변환의 시대인 20세기를 살아왔으면서도 역사를 남기지 못한 한국 민중들의 생활의 역사를 재구성"[46]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대형 연구작업이었다.[47] 100여 명의 연구원이 민중의 삶의 현장을 찾아 구술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모였으나, 구술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연구자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타 학문 전공자들이 삶의 현장과 구술의 힘을 알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구술생애사 전문가들이 되었다. 6년의 연구 성과로 48명의 구술 열전 편찬과 책으로는 내지 못할 분량이지만, 약 800여 명의 구술생애사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술사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1920·30년대 인류학계에서는 사라져가는 원주민들의 문화를 기록하는 데 집중했던'구제민족지

45) 함한희, 1996, "어느 인류학자의 역사인식과 해석", 『역사학보』 150, pp. 476-477

46) 박현수, 2002, "20세기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을 통한 한국 근현대사의 재구성" 연구사업 신청서의 내용 중에서 인용

47) 한국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기초학문육성 연구비를 지원받아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을 통한 한국 근현대사의 재구성 (1기 : 2002.08 ~ 2005.07)'과 '가까운 옛날 :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 (2기 : 2005.12 ~ 2008.11)'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slavage ethnography)'가 등장했다. 학계에서는 이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곤 했다. 민중생활사 연구도 '구제생애사'를 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20세기 민중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자료로 축적하는 일이 시급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이 때의 구술사는 김귀옥 교수의 시대구분에 따르면, 구술사 연구의 제 2기에 해당된다.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금기시 되어 온 영역에서 구술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구술사의 외연이 확장되고 자료수집 차원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김귀옥 2006).

민중생활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구술생애사 방법론이나 조사 지침을 만드느라 동분서주했다. 국내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국내 사정에 맞는 조사 방법을 찾느라 고심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구술사, 생애사, 현지조사 및 아카이빙 방법에 경험이 없었기에 공부를 해가면서 조사에 임하던 때였다. 전임연구원들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나 구술생애사 전문가로서 별도의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 시기 민중생활사의 구술사 사업은 아래로부터 역사쓰기의 선봉장이었다. 그런가하면 역사학에서는 이미 구 시대의 유산으로 여기던 실증주의를 소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증주의의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실증적 자료 수집에 충실하면서도 자체적인 사실발견적 접근(heuristic approach)을 중시했다는 점이 구술사를 구술사답게 키운 것이 아닐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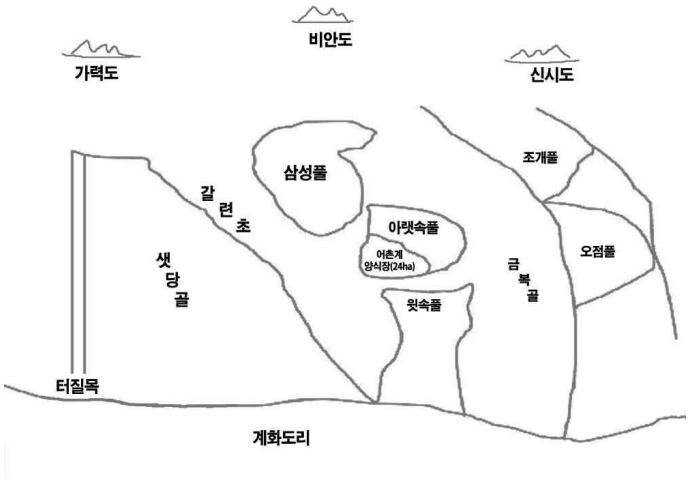
3. 미완의 기록-개발사업 현장에서의 구술사

나는 새만금 지역 어민들의 이야기를 담느라 오십이 넘은 줄도 모르고 여전히 피 끓는 젊은이 모양새로 갯벌, 바다, 마을을 누비고 다녔다. 내가 힘이 남은 줄 알고, 환경운동가들의 처연한 부르짖음에 소리를 보탰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녹음기와 사진기와 수첩을 들고 서 있는 볼품없는 연구자였다. 그렇다고 충실한 기록을 한 것도 아니었다. 갯벌이 사라지는 현장, 둑이 세워지는 현장,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데모 현장에서 나는 언제나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그러니 제대로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다큐감독들이 더 열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다. 망연자실 서 있었던 때가 더 많았고, 돌아보니 미완의 기록만이 남게 되었다. 2012년에 출간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사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록이라고 뜻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기록을 하지 못했다는 고백의 의미도 들어 있다.

새만금지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애사, 개발사업에 대한 증언, 마을의 역사 등을 구술자료로 담아냈다. 개발사업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주민들의 역사로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가사와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역사와 내가 구술로 기록한 현장의 역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그 평행선을 연결할 방법이 아직은 묘연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말의 힘을 믿고 있기에 누군가가 개발의 역사, 지역의 역사를 서술할 때, 주민들이 생생한 증언, 그들의 생애사 속에서 들어 있는 새만금 개발의 역사가 드러나리라 믿는다.

"개발론을 앞세운 정치인들과 개발주체들은 바다를 비어 있는 공간으로 사유하며, 언제라도 매립하여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을 앞세워서 보상금을 받은 어민들에게 떠나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바다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던 곳이며 그들의 과거사가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바다는 자연경관으로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실체이기

때문이다."[48] "바다 밑도 다 이름이 있고, 주소도 있어. 우리 문패단 거 모냥." 이러한 주민들과 함께 20년 전 바다 밑을 그린 그림이 남아있다.



계화도 어민들이 그린 바다밑 지도(2004년도 그림)

"

바다, 갯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새만금지역 아니, 국가적인 불행을 초래했다. 국가는 편협한 개발지상주의의 첨병인 과학자들과 지역 정치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만들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던 지역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의 '말'을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를 정해야 했다. 말, 말, 말의 잔치가 연중 쉬지 않고 계속되었지만, 나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갯벌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 어민들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수천 년 바다와 강의 만나 만들어진 갯벌이 내일 당장 사라진다고 해서 여전히 그래와 호미를 들고나와 조개를 잡아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하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다. 바다 밑을 보는 이들과 바다 밑이 보이지 않는 이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은 구술사가의 몫이다. 전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가 구술사가 가장 구술사다워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4. 기억과 해석 사이에서

최근 구술사에서뿐만 아니라 역사학, 사회학, 문화연구 등에서 기억 연구가 한창이다.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는지 나는 그 성과를 이제는 좇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미 다른 학자들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낡은 이야기일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2008년 하반기(7월~12월)에 대학원생·학부생들 10여 명과 함께 임실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피해조사를 한 적이 있다. 전수조사라는 전제가 있어서 임실에서 전쟁을 경험한 모든 사람을 인터뷰해야 했다. 임실군 가가호호를 다 방문해서 전쟁 경험이나 기억을 물어보는 현장조사로 진행했다. 전쟁이 끝나고 50여 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우리 연구진은 조

48) 함한희 편, 2013, 『미완의 기록-새만금사업과 어민들』, 아르케 pp. 16.

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전쟁 이후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 전수조사였지만 피해당사자나 가족을 만나면 반세기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고 분명했다. 그들의 가슴속엔 전쟁의 상흔이 매우 크게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달랐다. 증언이 엇갈리기도 하고 사건이 왜곡된 채 기억되기도 해서 교차점검을 위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야 했다.[49)]

나는 이 조사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전쟁의 피해에 대한 기억을 의뢰했다. 그들은 전쟁 기간 중 위태로운 경계에 서 있었고, 그 경계에는 위기의 순간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예측할수 없는 변화 또는 소멸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여성들의 기억과 해석 속에서 여러 가지의 경계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 ”전쟁 중 임실 지역의 여성들은 정치적 무질서 속에서 무력 충돌과 이념전쟁을 겪었고 그 와중에 문화적인 혼란을 경험했다 그들이 스스로 구성해야 할 정체성은 더욱 모호해졌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적 경계를 넘나들던 김할머니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더구나 가족으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난 뒤에는 가족관계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익의 남편이 피난간 사이 좌익의 내연의 처가 되어버린 정씨나 우익의 애인을 구해내기 위해 좌익의 수장과 혼인을 택한 장경님 역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 했다. 이종순은 어린 나이에 대부분의 식구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으면서 혼자서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이 그를 공황상태에 빠뜨리기도 했다.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확고해 보이던 것들도 죽음이나 배반 등으로 일시에 그리고 쉽게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따라다니던 이념의 기호와 문화적 권위가 상황이 바뀌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함한희 2010: 45)

이런 와중에서도 여성들은 살아야 했다. 경계에 선 여성들은 어느 한 편으로 기울어져 편승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존재의 초긴장 상태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혼란을 겪으면서 스스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념·가족·성의 규범이 흔들리면서 문화적 혼란의 소용돌이를 경험한 이 여성들은 기존의 문화에 얽매이기보다 그 권위에 도전장을 냈다. 임실 오지에서 만난 여성들의 기억과 자기 해석을 곁들인 말하기 그리고 청자인 나의 들음과 해석이 상호교차되면서 전쟁의 구술사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성들의 기억 속에는 자기 해석이 들어 있었고, 그 해석을 듣는 청자인 나는 사실과 해석 사이를 오갔다. 바로 이러한 작업이 오지에서 평생을 산 이름없는 여성이 꿈꾸며 실천해낸 문화적 전복을 기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청자인 구술사가는 여성들이 경계에서조차 그곳을 또는 그 상태를 새로운 문화가 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또는 상태로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구술사가인 것에 감사했던 순간이 많았다.

5. 대화과정을 중시하는 구술생애사

기억의 연구이든, 기록의 연구이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

49) 약 900명 이상의 증언자를 면담했는데, 259명의 증언만이 채택가능 하였다. 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민간인 피해자는 979명이었다 (함한희 2010, “한국전쟁과 여성-경계에 선 여성들”, 『역사비평』 91집 22-52.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한국전쟁의 경험이나 기억에 의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의 이 조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구술사의 경우는 다르다. 구술사에서는 결과 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게 된다. 발표자가 한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술생애사를 기록했던 경험의 사례를 들어본다.

한 구술자가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생의 경험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된 사례이다. 구술생애사에는 자기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의도 내지는 의지가 들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는 그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애사의 주인공인 화자는 결코 듣는 사람 없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구술생애사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인데, 단순한 대화-친구나 가족들과의 일상 대화-가 아니라 무언가 의도된 대화라는 점이다. 구술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경험이라는 토대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 때 청자는 구술자의 세계를 해석하는 주체가 된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화자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청자의 일방적인 질문에 대한 화자의 답변만도 아니다.

일생 동안 겪은 수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는 모든 구술자가 가지는 고민이다. 또 과거의 일이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해내기를 요청받을 때면 구술자는 부담을 더 느낀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구술사가가 필요한 것이다. 구술사가는 고고학자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지나온 생애는 하나의 미지의 발굴 장소이다. 지나온 생애의 경험들이 의식의 저변에는 잘 보관되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꺼내지 않는 한은 지층 속에 들어있는 고고학 자료와 다름이 없다. 고고학자들의 발굴할 때처럼 세밀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한다. 처음에는 넓은 지역을 설정하고 숨겨진 유물을 찾는다. 특정한 장소에서 유물이 출토될 낌새가 보이면, 유물의 특성에 맞게 집중탐구하게 된다.

구술사가도 미지의 세계를 방문할 때처럼 겸손한 태도로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구술자의 생애 전체를 조망해 본다. 그 과정에서 구술자의 기억이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멈추는 듯 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지점을 구술사가는 놓칠 수 없다. 그것을 흔히 실마리 찾기라고 부른다.

실마리는 어떤 일이나 사건의 첫머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생애사를 풀 때도 그것을 찾아서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기나긴 삶의 여정은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게 마련이다. 000씨는 한 세기를 산 역사의 증인이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을 경험한 그의 생애는 몇 권의 책이 될 법하다.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낸다면, 있는 그대로의 생애사가 될 터이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구술자의 기억에 한계가 있고, 구술사가의 작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속에서 계기가 되는 일을 찾는 것과 생애 전반에 흐르는 삶의 철학 즉 인생관을 담아낼 때, 구술생애사의 진가가 발휘된다.

6. 맺음말

구술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내가 콜럼비아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였다. Oral History를 수집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곳이 중앙도서관 내에 있어서 도서관을 오가면서 oral history 관련 프로그램 안내문을 자주 마주하게 되었다.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과목을 찾아 배울 기회는 얻지 못했다. 주로 참전용사들로부터 전쟁 관련 증언 수집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구술사 자료관에 들려서 증언 녹취록을 찾아보는 정도였다. 그러나 정확성과 세밀함을 동시에 갖추려는 구술사가들의 노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들의 구술을 토씨 하나라도 빠뜨릴까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에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구술사가 그리 간단한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술사 자료실 이용자로 그치고 만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발표에서는 내가 구술사의 구술사다움을 느꼈을 때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나는 구술사의 학문적 정체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첫째 구술사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살아 움직이는 '말'을 대상으로 하기에 연구대상의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 내가 처음으로 장기 현지 조사를 할 때, 마을주민들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구술사 수집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도 있었다. 어느 날부터 나는 말의 힘에서 압도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가는 살아있는 말, 바른말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둘째 구술사 인식론의 출발이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와 사실발견적(heuristic approach) 접근에 있다는 점을 민중생활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셋째 구술사는 청자와 화자의 대화 과정에 주목하며 맥락을 중시한다. 대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말을 중시한다는 점, 이는 결국 화자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청자와 화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뜻이 된다. 또한 화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맥락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극한 상황 속 기억을 가진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실천해 온 문화적 전복을 기술해서 마침내 새로운 문화가 태동되는 상황을 기록할 수 있었다. 구술사의 학문적 정체성은 바로 문화적 전복이나 창조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는 구술사가 학문적으로도 유동적이라는 점을 들고 싶다. 21세기 학문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데, 구술사는 여러 학문과의 접변/융합을 통해서 기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한 유동성, 포용성이 구술사의 정체성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김귀옥, 2006, "한국구술사 연구현황, 쟁점과 과제,"『사회와 역사』71, pp. 315-342.

박이문, 2002, "학문의 정체성, 경계선 및 주체성: 국문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국문학회』 131, pp. 71-93

박현수, 2002, "20세기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을 통한 한국 근현대사의 재구성" 연구사업 신청서

윤택림, 2019,『역사와 기록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함한희, 1996, "어느 인류학자의 역사인식과 해석",『역사학보』 150, pp. 476-477

함한희, 2010, "한국전쟁과 여성-경계에 선 여성들",『역사비평』 91집22-52.

함한희 편, 2013,『미완의 기록-새만금사업과 어민들』, 아르케 pp. 16.

제 2 부

“우리동네 이야기”

발표1

미용사는 어떻게 '장인'이 되었는가

: 1960~80년대 미용사의 삶과 직업정체성

최우영(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1. 머리말
2. '미용'이라는 선택과 상경하는 소녀들
3. '보조'에서 '일류'까지, 미용실의 위계와 직업정체성의 형성
4.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 - 기술적 자부심과 '서비스 정신'
5. 대한미용사회 활동과 미용기술의 전수
6. 맺음말
참고문헌 및 자료

1. 머리말

2018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담긴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교과서에서는 미용사, 소방관 등은 '아주머니', '아저씨'로, 의사는 '의사선생님'으로 표현하면서 특정 직업에 전문성을 부여하지 않거나 편견을 드러내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판사와 교육부에 중립적 직업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50]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4년마다 진행한 직업위세[51] 조사에 따르면 의사, 판사, 고위 공무원 등의 직업은 사회적 지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택시운전기사, 음식점 주인,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업은 낮은 사회적 지위를 보이고 있어, 종사하는 직업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편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위세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로 서비스 분야의 직종에서 직업위세가 과거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52] 그러나 직업위세가 낮다고 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을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예컨대 고객에게 머리 손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인 '미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만족도를 연구한 글에 따르면 "국내 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미용인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사회적인 위상 측면에서는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53]고 분석한다. 이는 바꿔말하면 사회적으로 낮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용사들의 직업적 자부심은 높게

50) 「의사는 '선생님' 소방관은 '아저씨'…직업 편견 담은 초등 교과서」, 『경향신문』, 2018년 2월 26일자; 「소방관은 '아저씨' 의사는 '선생님'… 초등 교과서의 '편견'」, 『국민일보』, 2018년 2월 27일자.

51) 직업위세(occupation prestige)는 직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특정 직업의 지위에 관한 사람들의 주관적 견해를 종합한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p. 91)

5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91~94.

53) 박미옥, 2010, 『미용사 직업에 대한 자긍심, 사회적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분장예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p. 2.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비스직의 직업경험을 분석할 때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해당 직업을 가진 이들의 경험과 삶을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문동[54] 어느 미용사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서비스직의 직업경험과 삶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즉 낮은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용사 개인의 구체적 생애 속에서는 기술 습득과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직업적 자부심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미용사 박영숙(가명)의 생애는 미용사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을 넘어 끊임없는 기술 연마와 전수, 미용사 양성 등을 통해 '미용장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여성 공간으로서의 미용실과 그 안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미용기술을 행하는 미용사의 삶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여성들의 경험을 다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과 고찰은 주로 2000년대 이후 미용학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식민지시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1세대 미용사였던 임형선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한 김미선과 김은정의 연구가 있다.[55] 김미선은 임형선의 근대적 직업여성으로서의 직업의식과 여성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바 있다. 또한 김은정은 미용원이라는 공간에서 일했던 임형선의 직업경험과 직업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김미선과 김은정의 연구는 임형선이라는 구체적 개인을 통해 '근대적 직업'인 미용사의 노동경험이 어떠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형성된 직업·여성 정체성이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 미용사와 미용실의 수가 크게 늘어났던 해방 이후의 미용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백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박영숙의 생애사를 통해 미용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해방 이후의 미용사가 기술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 명의 미용사가 어떻게 단순히 직업인을 넘어, 고도의 미용기술과 장인정신을 습득한 '미용장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 드러낼 것이다. 박영숙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미용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는가를 알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용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부심과 기술 전수에 대한 욕구는 미용사가 프라이드를 가진 직업이라는 것 또한 알게 한다. 따라서 미용사의 열악한 면만 드러내는 것은 그 직업경험을 단순화·주변화시켜버릴 위험이 있다. 오히려 미용사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서비스직이자 기술전문직'이라는 미용사의 특성이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서비스직)과 미용사의 직업적 자부심(기술전문직)이라는 대비점을 병존케 했던 지점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미용'이라는 선택과 상경하는 소녀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구술자 박영숙은 1945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1965년부터 현재(2022년)까지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오로지 미용 한 길"만 걸어온 인물이다. 필자가 그와 처음 만난 것은 2020년 성북문화원의 주민기록단 활동을 통해서였다. 당시 박영숙은 1970년부터 보문동[56] 한 동네에서만 줄곧 미용실을 운영해 온 미용사로, 보문동이라는 마을의 오랜 기

5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55) 김은정, 2021, "식민지 시대 미용사의 직업경험과 근대인식, 그리고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24(3), pp. 171-174; 김미선, 2009, "근대적인 '직업여성'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의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1세대 미용사 임형선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0, p. 165.

억을 간직한 주민으로서 구술인터뷰에 참여하고 있었다. 성북문화원에서는 이미 3달여 전(7월 27일) 기초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었고, 그 뒤 심화조사를 위해 필자를 포함한 3명이 추가 인터뷰(10월 19일)를 하여 박영숙의 생애 전반을 정리하였다.[57] 그리고 2년 뒤인 2022년 10월 7일에는 구술자와 필자가 단독 면담을 통해 140분 가량의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다.

구술자 박영숙이 정식으로 미용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64년부터였다. 사실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지역 예술대회에 입상하는 등 미술을 좋아하여 화가가 되고자 했다. 그런 박영숙이 미용의 길을 택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첫번째로는 그가 서울에 있는 학교의 미술학과에 불합격한 것이었다. 그의 집안은 공부를 잘하는 자식만 서울에 보낸다고 하여, 박영숙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에라도 합격을 해야 했다. 그때 그가 찾은 선택지는 바로 미용학교였다.

> 박영숙 : 고모가 이제 미용실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들락날락하면서 가서 머리도, 그때는 불파마 같은 거 그때는 좀 말하자면 지금 현 시점에서 하고는 영 엉뚱하게 파마를. 이 머리에다가 기계를 열어가지고 연탄 … 그거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요. 불을 이렇게 불파마를 해서. …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 그때서부터 그렇게 미장원에 들락날락하는 그게 이제 머리 만지는 거를 조금 좋아했던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거를 지금 초창기부터서 미용을 시작한 동기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58]

손으로 하는 일은 뭐든지 잘하는 편이었다는 박영숙이 다른 무엇보다 '미용'을 택하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민학교 시절 먼 친척 고모가 운영했던 '미장원'을 자주 드나들었던 박영숙은 미용 도구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고모의 미장원에서 미용기계들을 만져보고 불파마도 해보며 놀았던 경험들은, 박영숙으로 하여금 '미용업'을 낯선 직업이 아닌 익숙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어린 시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경험과 그로 인해 생긴 신체적 장애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5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 오랜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박영숙은 큰 수술을 거치면서 한쪽 다리가 짧아지게 되었다. 그래도 고등학교 이후로는 통증이 현저히 줄면서 이전보다 생활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으나, 당시 고려했던 진로 중 하나였던 의상 디자이너는 포기해야만 했다. 의상 디자이너가 되려면 미싱을 다뤄야 하는데, 당시 미싱의 특성상 발로 누르는 힘을 상당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헤어도 의상과 같은 '패션'이라는 생각과 함께, 손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미용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박영숙이 미용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처음 희망했던 서울의 미술학교에 불합격하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한 대안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다른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도 '미용'을 택한 것은, 어린 시절 미용도구를 자주 접하며 '미용'이 친숙

---

56) 1970년 당시에는 동대문구에 속해 있었으며, 1975년에 성북구로 바뀌었다.
57) 각 인터뷰는 약 90분씩 총 180분 가량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2020년 12월 성북문화원에서 『보문동에서 바니미용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라는 이름의 작은 책(비매품)으로 발간되었다.
58)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09:40~10:56)

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는 것과, 다리의 장애로 인해 손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박영숙 : 그러니까 건강한 체질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을 하면서 미용을 전념을 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미용과 장애자, 병마 (모두) 접목을 시키면서 열심히 살아온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 … 아파도 다 이겨내면서, 이 모든 것을 미용 하나를 갖고 내 생애를 만들어 간 것 같아.[59]

특히 그에게 질병 경험은 진로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살면서 총 5번의 수술을 겪게 되었는데, 이중 절반의 수술이 어린 시절 했던 다리 수술의 영향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건강한 체질'로 모두 극복하면서 미용에 전념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박영숙의 구술은 자신이 가진 장애와 직업적 자부심을 병치시키면서, '역경을 이겨낸 성공적인 미용사'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그가 가진 신체적 장애는 한편으로 직업에 전념하고 기술을 갈고 닦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는 곧 박영숙의 질병 경험이 많은 고난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미용장인'의 위치까지 오르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196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영숙은 곧바로 서울에 있는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여 1년간 미용기술을 배우게 된다. 학교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전기 고데기도, 드라이기계도, 심지어 머리를 연습할 가발조차 없었던 1960년대의 미용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매일 같이 머리와 씨름하며 연습하는 과정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박영숙은 "배운다는 일념"으로 1년간 열심히 미용 기술을 익혔다. 그 후 1965년 2월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면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박영숙은 얼마 안 지나 을지로6가에 있는 미용실에 보조(당시엔 '시다'라고도 불렸다)로 취업하게 된다.

박영숙 : 그 언니가 우리 이모님 단골 미용사였었어요. 이모가 내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 조카가 다리가 아픈데 미용을 배웠으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돈을 좀 쥐어 주고.[60]

박영숙이 바로 보조 미용사로 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당시 생활하던 집의 주인이었던 이모의 도움이 컸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박영숙의 이모는 박영숙을 딸같이 예뻐했다고 한다. 미술학교에 떨어지고 낙담하던 때에도 "(박영숙이) 장애자고 다리가 아프니 기술을 가지는 게 더 좋겠다"며 박영숙이 미용기술을 배우도록 이끌었던 것이 바로 그의 이모였다. 박영숙이 취업한 을지로 6가의 미용실 역시 이모의 단골 미용사의 소개로 가게 된 곳이었다. 그의 이모는 박영숙이 학교를 졸업하자, 자신이 자주 다니던 미용실에 돈을 주고 박영숙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것이었다.

박영숙 :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로 어려워 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는 기술이라도 서울 가서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배워가지고 기술자가 되라, 하고 보내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 이게 이래요. "아니 미장원에 우리 딸

59)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12:56~13:26)
60)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1:40:36~1:41:02)

> 을 보내고 싶은데" 이러면 동네에다 이러다가 동네 미장원에서 이렇게. 미장원이 뭐 많나? 한 개 아니면 두 개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서울로 갈라고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찾아 가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리도 아예 '성북구에 누구네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시다는 보통으로 그렇게 많이 났어요.[61]

박영숙의 경우처럼,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용실에의 취업은 대개 소개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62] 박영숙은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가 딸을 데리고 상경해 "미장원에 우리 딸을 보내고 싶다"며 동네 미장원에 보조 자리를 소개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동네에 미용실이 몇 개 없었던 시절이라, 동네 주민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미용실을 소개받아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박영숙에게도 고흥, 광양 등 지방에서 상경한 10대 여성들이 여러 번 찾아왔고, 덕분에 보조를 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

왜 상경한 여성들은 다른 곳도 아닌 미용실을 찾아갔을까? 당시 미용사 보조로 취직했던 이들은 크게 미용학교 출신, 미용학원 출신, 그리고 기술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었다. 어느 정도 형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박영숙과 같이 미용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학교가 어렵다면 비교적 돈이 적게 들고 3~6개월만 다니면 미용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학원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도 미용사가 되기 위해 학교나 학원에서 정규교육을 받기보다, 바로 미용실에 보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63] 즉 미용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미용실에 취직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용사는 1960~70년대 상경한 소녀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였다.[64] 1970년 『조선일보』에 따르면 상경한 소녀들 10,559명 중 절반 이상이 취업과 기술습득을 위해 상경하고 있었다.[65] 또한 1961년 통계에서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인 식모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기술분야 직업으로 전향하기를 희망했는데, 전체 응답자 중 30%가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드러나 같은 서비스 직종에서도 기술직인 미용사를 선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66]

박영숙은 당시 가난하여 기술로 먹고 살고자 했던 많은 여성들이 미용실에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기술 없이도 취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깨 너머로나마 미용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미용사라는 직업의 특성은 막 상경한 여성들에게 큰 장점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또한 공장이나 기타 대부분의 직업의 경우 결혼 후에는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미용사는 결혼 후에도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다. 1973년 『동아일보』에서는 미용사가 보수가 낮음에도 지망하는 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팁이 별도 수입으로 계산되고 결혼 후에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주부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67] 즉 미용사라는 직업이 기혼여성에게 기

---

61)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37:42~38:04, 1:50:45~1:51:09)
62) 「한국의 젊은이 (10) 서비스업」, 『경향신문』, 1971년 3월 6일자.
63) 김수정, 2005, 『한국미용100년』, 서울: 동서교류, p. 257.
64) 「가출부녀자 상담소」, 『조선일보』, 1970년 4월 10일자; 「거의가 취직 목적」, 『경향신문』, 1971년 3월 27일자.
65) 「가출부녀자 상담소」, 『조선일보』, 1970년 4월 10일자.
66) 「통계에 비친 그들의 생활실태-불우한 식모소녀들」, 『조선일보』, 1961년 12월 28일자.
67) 「여성 직업훈련(15) 미용사」, 『동아일보』, 1973년 3월 19일자.

술로 직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보조'에서 '일류'까지, 미용실의 위계와 직업정체성의 형성

미용실에서 미용사들의 직위는 대개 보조-중상-일류로 나뉘었다. 이들은 직위에 따라 분업을 이루었는데, 보조의 경우 주로 미용실 청소, 쇠고데 연탄불에 달구기, 가위, 파마롯드 등 미용 도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중상은 손님이 파마를 할 때 머리에 파마롯드를 끼워 마는 등 일류 미용사를 보조하였으며, 일류미용사는 손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손님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졌다.

> 박영숙 : (일류미용사에게) 잘 보이려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복종, 순종.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었어. … (일류)미용사들이 2, 3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기술이 좋은 능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고 최선을 다 하면, "너 이리 와라" 이래. 그러면 가서 그 사람한테 배우면 (가르쳐줬어요) … 미용사가 3명, 4명이 있어도 수입도 잘 올리고, 아주 손님한테도 잘하는 (미용사들) 밑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또 있잖아. 그럼 그런 애들은 그 언니(일류미용사)한테 잘하지 뭐.

보조에서 일류까지 철저한 위계 구조로 짜여진 미용실 안에서는, 기술 습득과 진급을 위한 보조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조들은 기술과 수완이 좋은 일류미용사의 눈에 들기 위해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밤낮없이 연습하는 등 진급을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따라서 보조의 하루 일과도 중상이나 일류미용사 못지않게 바쁘게 돌아갔다. 박영숙은 보조 시절 보통 오전 6시 전에 기상해 미용실에 출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일단 미용실에 도착하면 청소를 한 후, 연탄에 불을 피웠다. 전기 고데기가 상용화되기 전,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용실에서 쇠고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탄불을 피운 후 그 불에 쇠고데를 달궈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머리를 말리는 것 역시 드라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탄불 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처음 보조미용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업무도 연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박영숙은 연탄을 피워 독한 가스 냄새를 밖으로 내보내고 적당한 양의 불꽃만 남겨둔 연탄을 일류미용사 옆에 갖다 두는 업무를 매일같이 수행했다.

[그림1] 박영숙이 사용했던 쇠고데 (박영숙 소장)

박영숙 :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연탄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연탄불을 밑에 보조가 아까 나도 연탄불 피워봤지만은 요 연탄불을 온도 조절을 해서 가스 냄새가 이 독한 가스 냄새가 안 나게끔 만들어 넣는데 그게 기술이야. 연탄불 피워가지고 … 미용사 선생님이 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딱 갖다가 놓는데 그게 냄새가 엄청나게 독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에서 풀어내고 … 불꽃이 안 올라오고 불꽃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맞추는 거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 미용사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불만 (있으니까). … 지금은 이렇게 전기를 꽂아갖고 하는데 그때는 쇠야. 그게 달구는 건 … 이 온도 조절이 잘 되게끔 맞춰야 돼. 그 기술을 터득하는데 보통 한 달 두 달 갖고 안 돼요. 한 6개월 이하에서 1년을 가꿔야 이 온도 조절이 딱 맞춰 나가. 왜냐하면 이게 이 손바닥에 … 뜨겁지 않을 정도로 닿아서 미용사한테 딱 건네줘야 돼. 그러면 미용사가 이제 이렇게 안 봐도 딱 주면 이게 탁 받아요. … 예를 들어서 이 머리를 탁 잡고 이렇게 만들어 내잖아. 그러면은 이게 온도가 조절이 잘 돼야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뜨거우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툭 끊어져 버려. 타버려 또. 너무 열이 안 맞으면 이 되지를 않아. 이제 그러니 이 기술을 이 뜨거운 고데 기계를 온도 조절하는 데 6개월, 7개월 걸려야 돼.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 나는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딱. 딱. 해서 저녁에 앉아서 잠도 안 자고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갖고 미용사한테 딱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딱 줘서 선생님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내가 기술도 배우고 그 분한테서 전수를 받는 거야. 그리 안 하면은 가르쳐주지를 않아요.[68]

8시가 되어 일류미용사가 출근을 하고 손님이 방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연신 연탄불에 쇠고데를 데우고 손에 직접 갖다대며 온도를 맞추는 일이 반복되었다. 손바닥에 뜨거워진 쇠고데를 대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정 온도를 계속해서 맞추는 것인데, 온도를 제대로 맞추어야만 일류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제대로 말 수 있었다. 따라서 연탄불을 제대로 피우고 쇠고데를 적정 온도로 달구는 일은 미용실의 핵심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어느 정도의 요령과 기술을 필요로 해,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 숙련될 수 있는 업무였다. 박영숙은 잠을 줄여가며 연탄과 쇠고데 다루는 법을 홀로 익혔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를 눈여겨본 일류미용사가 보조를 불러 그제야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곤 했던 것이다.

박영숙은 보조로 일하며 스스로 기술을 터득하는 과정이 전부 '기술자'가 되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곁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던 미용학교 때와는 달리, 미용실에서는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혼자서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보조로 일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로지 기술력을 증진시키고 일류미용사에게 순종해야만 제대로 된 현장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현실은, 기술이야말로 미용사라는 직업의 본질이며 미용사란 즉 '기술자'라는 것을 체감하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보조로 일했던 경험들은 박영숙이 실제 직업현장에서 미용

68)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38:04~41:03)

실이라는 공간의 생태계를 체득하고 미용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었다.

박영숙이 1965년 을지로 6가 미용실의 보조로 일하며 받은 첫 월급은 500원이었다. 1971년 당시 서울 미용실에서 일하는 보조의 월급이 보통 5,000~10,000원 정도[69]였으니,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 이내 700원, 1,000원 등 월급이 조금씩 오르긴 했으나, 대체로 보조미용사의 월급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이는 보조들이 무엇보다 빠른 진급을 희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1983년 『경향신문』에 따르면, 가장 낮은 직위인 보조에서 가장 높은 직위인 일류까지 진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8년이 소요되었다.[70] 박영숙은 첫 직장이었던 을지로 6가에서 2년을 보조로 지낸 뒤, 금호동에 있는 미용실에 중상미용사로 '진급이직'을 한다. 그는 운이 좋게도 을지로, 금호동 미용실에 있는 동안 실력이 매우 뛰어난 일류미용사 밑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두 곳에서 보조와 중상을 거치면서 박영숙은 스스로 "손에 힘이 좋아"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였"다고 말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금호동에 있을 때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살을 에는 추위에 냉방에서 유담보(湯たんぽ)[71]를 끼고 자면서 생활할 정도로 기술을 배우는데 열성적이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가르친 일류미용사들을 "독종", "무식하다"고 표현하면서도 그들이 지닌 뛰어난 기술력만큼은 상당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72] 이는 미용사에게 다른 어떤 배경보다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 박영숙 : 이제 삼선교로 일류미용사로 온 거지. 근데 3년 동안에 내가 단계가 빨리, 이제 말하자면 일류미용사로 진급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진급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일류미용사가 되면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사람 머리를 딱 만졌을 때에 실수도 해도 안 되고 또 창의적으로 창작을 해내고 막 이런 것을 거기에서부터 이제 1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나서 이 보문동으로 들어온 거예요.[73]

금호동에서 1년동안 일하며 실력을 쌓아간 박영숙은 1968년 미용재료상 사장님의 소개를 받고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희미용실>에 일류미용사로 취업하게 되었다. 1965년 보조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일류미용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일류가 된 이후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책임감이 부과되었다. 일류는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고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또 남이 시키는 헤어스타일을 기계적으로 해내는 것이 아닌,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스타일을 창작해 손님의 만족도를 높여야 했다. 박영숙은 남들보다 빨리 일류미용사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말할 만큼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고 일에 전념하는 것으로 그 부담을 덜고자 했다.

박영숙은 삼선동 미용실에서 만 1년을 넘게 근무하고, 1970년 보문동에 있는 작은 미용실로 옮기게 된다. 이번에도 소개를 통한 이직이었는데, 박영숙이 "기술이 좋다"고 하여 보문동의 한 미용실 원장이 그를 "픽업"한 것이었다. 그런데 곧 미용실 원장이 폐병에 걸리게 되고 그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서 미용실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소문이 나고 얼마 안 되어 원장이 미용실을 내놓자, 박영숙은 그 미용실을 직접 인수하기로 결심한다.

---

69) 「한국의 젊은이 (10) 서비스업」, 『경향신문』, 1971년 3월 6일자.
70) 「미용사 거울 속 신데렐라를 연출하는 마술사」, 『경향신문』, 1983년 2월 12일자.
71)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물주머니로, 박영숙은 미군 물통에 끓는 물을 넣어 사용했다고 한다.
72)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1:40:05~1:43:05)
73)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17:18~17:44)

200만원의 빚을 내어 인수한 미용실에서, 박영숙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기 위해 미용실 운영에 필사적이었다. 이제 '원장'의 역할까지 겸하게 된 박영숙은, 지금까지 미용사로서 손님의 머리만 만지면 되었던 때와는 다른 새로운 책임감 앞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미용실을 인수하고 첫 3, 4년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고생"의 연속이었다. 그는 보조 때처럼 새벽 6시에 기상하여 밤 12시가 돼서야 미용실 문을 닫곤 하였다. 미용실이 있는 보문동은 동대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평화시장에서 주로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받았던 것이다. 그나마도 당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이었던 관계로,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가게를 닫아야 했다. 박영숙은 새벽 1시가 돼서야 잠에 들 수 있었고 다시 6시가 되면 기상하여 미용실 문을 여는 생활을 반복했다.

미용실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박영숙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그는 이제 본인의 기술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기술을 전반적으로 숙련시켜 미용실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했다. 이를 위해 박영숙은 미용사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동시에 서로가 '가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박영숙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기술만큼은 남들보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랜만에 찾아온 제자가 본인 밑에서 배울 때가 제일 무서웠다라고 말할 만큼 혹독하게 미용사들을 가르쳤으나, 한편으로는 "더불어서 형제간 같이"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영숙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밑에서 보조부터 시작해 12년 이상을 근무하고 나간 옛 직원을 자랑스럽게 회상했다. 박영숙의 미용실은 1990년대 초 이미 분점을 낼만큼 매우 번창한 미용실에 속했는데, 미용실에서 일했던 많은 직원들이 대개 3~10년씩 근무하고 나갔다고 한다.

박영숙 미용실의 번성과 직원들의 오랜 근속에는 미용실이 가진 '기술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미용실의 기술적 뛰어남을 여러 차례 강조하곤 했다.

> 면담자 : 그럼 다른 보문동 미용실과는 다른 바니미용실만의 차별점이나 그런게 있었을까요?
>
> 박영숙 : 기술이죠 뭐. 기술이 최고예요. 그리고 머리를 한번 해 놓으면은 머리가 금방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금방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걸 기교라 그러거든. 기교. 이게 손재주예요. …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쭉 계속해서 한거는 손재주는 있나봐요. 내가 봐서도. 손님이 아주 그만 꾸준하게 왔으니까.[74]

남들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빠르게 진급하고 자신의 미용실까지 가졌던 박영숙은 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다른 무엇보다 기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특히 원장인 박영숙에게만 머리를 받으러 오는 손님들은 항상 있었고, 분점을 내도 손님들은 박영숙이 있는 지점으로 찾아오곤 했다. 이를 지켜본 직원들은 박영숙의 기술이 증명된 것이라는 믿음으로 따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박영숙 또한 일류미용사이자 원장으로서 성공을 지속하면서 직업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다.

4.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 – 기술적 자부심과 '서비스 정신'

74) 2020년 10월 19일 인터뷰. (44:40~47:10)

193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외모관리에 대한 유행은 미용실을 외모관리에 대한 지식이 생산·소비되는 장소로 대두시켰다. 식민지시기까지만 해도 미용실은 상류층 여성들이 주로 방문하여 외모를 근대적으로 가꾸고 유지하는 장소였다. 또한 적지만 일반 여성들도 비듬을 털고 머리를 감기 위해 미용실을 이용하곤 하였다. 그러다 해방 이후로는 점점 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미용실은 여성들의 대표적 소비 공간이자 하나의 사교의 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75)]

박영숙이 운영하던 보문동 미용실에도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손님들이 방문하였다. 특히 1970~80년대 성북동의 이름난 고급 요정이었던 대원각[76)] 여성 직원들의 방문은 박영숙의 창작자로서의 감수성을 확인하고 증진시키게 되는 계기 중 하나였다.

> 면담자 : (대원각에서) 일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머리하는데 계속 새로운 스타일로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디서 ….
>
> 박영숙 : 요 머리에서. 내 생각이에요. … 헤어디자이너들이 자기가 뭘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자기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는 손님이 앉았을 때에 … 양장을 한다고 할 때는 양장에 맞춰서 머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몇 십 명이 와도 그 사람에 맞춰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 하던 걸 똑같이 못 만들어요. 한 가지 머리를 그대로 못 만들어. 자꾸 변해야지. … 그런 생각을 써서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는 안되지. …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머리할 때가 재밌어요. 피곤하지 않고 머리 예쁘게 만들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날마다 머리를 바꿔줬으니까, 그때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했으니까, 머리하고 미용실 문을 나설 때 즐겁고 기분 좋게 나갈 때 뿌듯하죠. 미용실이 나의 그림 속의 무한한 도화지가 되었으니까요.[77)]

성북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던 박영숙의 미용실에는 약 20명의 대원각 여성들이 머리를 받으러 매일같이 방문했다. 그들은 보통 오후 1시~4시 사이에 미용실을 찾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박영숙과 일류미용사 2명이 전부 매달려야 대원각 출근 시간에 겨우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매일 방문하는 손님들이었지만 박영숙은 날마다 새로운 스타일로 머리를 해주었고, 대원각 손님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어 박영숙의 미용실에 꾸준히 찾아왔다고 한다. 박영숙 또한 대원각 손님들의 머리를 하면서 상당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각 개인마다의 얼굴과 몸맵시,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를 떠올리고, 구상한 이미지를 통해 상대방을 돋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은 순수하게 재미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렇게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는 피곤함도 느끼지 않았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손님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박영숙의 샘솟는 아이디어는 다양한 문화생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미용실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특정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머리를 그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는

---

75) 김은정, 2021, "식민지 시대 미용사의 직업경험과 근대인식, 그리고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24(3), pp. 171~174; 김미선, 2009, "근대적인 '직업여성'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의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1세대 미용사 임형선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0, p. 165.

76) 1997년 법정스님이 대원각을 사찰로 바꾸면서 '길상사'가 되었다.

77) 2020년 7월 27일 인터뷰.

데, 미용사로서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영화감상을 해야 했고 많은 미용사들이 영화감상을 취미로 즐겼다.[78]

박영숙 : 많이 봤죠, 영화. 내가 취미가 영화 감상이고 음악 감상이니까 음악을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어도 어떤 때는 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관은 주로 외국에 옛날에는 외국영화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외국 머리가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아요. 색깔도 그렇고 어 작업하는 순서도 다 달러. 그거를 보면서 안자 말하자면은 내 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요. 내가 저럴 때는 어떻게 노랑머리를 어떤 색깔로 바꿔서 어떻게 만들면은 더 이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화를 볼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은 일단 보고 집에 오면은 생각을 하지요. 아, 저럴 때는 저런 머리보다도 요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수. 얼마나 바쁜데. 일요일이나 되면 영화관에 가지만은 영화도 날마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하기 바빴지 뭐.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무슨 예약제다 이런 거 없었어요. 손님이 무조건 들어오면 다 작업을 해서 내보내야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죠.[79]

박영숙 역시 영화 보는 것을 즐겼다. 그는 주로 을지로 6가에 있는 계림극장이나 명동의 명보극장, 스카라극장, 단성사와 같은 영화관에 가서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외화를 즐겨 봤다. <벤허>처럼 인상깊은 영화는 여러 번 보기도 했다. 서양인들의 헤어 스타일이 색부터 작업 순서까지 모두 상이했으므로, 박영숙은 그러한 차이점들을 파악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예컨대 노란머리를 어떤 색깔로 바꾸면 예쁠지, 어떤 스타일로 만들면 더 예쁠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감상했던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영화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곤 했다.

또 종로에 있는 쎄시봉에서 학교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만나가며 음악을 감상하기도 했다. 박영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머리를 구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나 음악을 즐길 여유가 자주 나는 것은 아니었다. 일요일이 되면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러 가기도 했지만 대개 여유를 누릴 새 없이 미용실에서 손님을 맞기 바빴다. 그래도 박영숙에게 위와 같은 경험들은 그의 미용기술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복사품이 아닌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주었고, 그런 점에서 박영숙의 미용기술은 기술과 예술의 경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영숙 : 보통으로 한 사십년 넘게 한 사람들이 지금 몇몇 있어요.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 그분들 머리는 다른 사람이 못 만져. … 젊은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만 하지. … 내 손 아니면 안 된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인 거 같아요. …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 그러니까 내가 56년 동안에 미용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78)「가발 아가씨」,『동아일보』, 1967년 12월 14일자.
79) 2020년 7월 27일 인터뷰.

유지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80]

한편 단골 손님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미용사의 기술적 자부심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박영숙에게는 많은 단골 손님이 존재했는데, 특히 그의 기억에 남는 손님들은 무엇보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결같이 자신에게만 머리를 맡기는 손님들이었다. 이 단골들은 40~50년 전 쇠고데를 사용할 때부터 찾아왔던 손님들로, 박영숙의 미용기술의 산증인이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숙에게 단골 손님들의 존재는 자신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방증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는 박영숙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미용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1971년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를 다룬 기사를 살펴보면, "비위 맞추다 자기 잃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이는 서비스업자가 자신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명랑한 표정을 꾸미고 손님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직업이라는 의미이다. 기사에서는 15년동안 이발소에서 일해온 한 이발사가 "진짜 희로애락에 따른 내 표정이 어떤 것인지조차 잊어버렸다"라며 손님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토로하고 있다.[81] 이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가장 피로감을 주는 업무적 요인에 대해, 서비스직에서는 고객 비위 맞추기가 42%로 1위를 차지해 다른 직업군과 구분되고 있다.[82] 즉 '비위 맞추기'가 과거부터 한결같이 서비스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업무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감정노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서비스직의 특성은 해당 직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동안에는 서로의 신체 일부가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미용사와 손님은 신체를 매개로 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여지를 갖게 된다. 더욱이 과거 미용실에서는 동네 주민과 단골을 위주로 운영되었으므로 미용실에서 손님과 맺는 인간관계는 미용실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을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용사는 스타일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나 결과물이 나온 직후 손님에게서 받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에 적절히 대처하고, 손님이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신경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일반 상점에서는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했지만, 미용실에는 이마저도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많은 미용사들이 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다.

박영숙 : 그때는 손님이 왕이라니까, 손님이. …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한 거는, 내가 머리를 해줬어, 근데 뭔지 모르게 자기 기분학적으로 안 좋을 때가 있어 사람이. 그쵸? 그러면 그 머리를 망가뜨려버려요. 말하자면 '싫다고, 이거 못하겠다고'하는. … 아무리 내가 잘해도 다 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83]

오랜 경력을 가진 박영숙에게도 손님들의 비위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1980~90년대까지는 헤어 스타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보다 미용사의 손에 자유롭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완성된 헤어 스타일이 손님의 취향과 맞지 않을 경

80) 2020년 7월 27일 인터뷰. (21:10)
81) 「한국의 젊은이(10) 서비스업」, 『경향신문』, 1971년 3월 6일자.
82) 「가장 힘든 업무는 '비위맞추기'… 출퇴근 전쟁에 피로↑」, 『이뉴스투데이』, 2015년 3월 16일자.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231
83)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54:05~54:30)

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미용사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잘해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박영숙의 말에서, 본인의 미용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있음에도 손님의 “기분”에 따라 형편없는 기술로 전락하는 데 대한 억울함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미용사와 손님 사이의 반복되는 갈등은 미용사라는 직업의 낮은 지위와 사회적 인식을 재확인하게 되는 상황을 조성했고, 이는 종종 미용사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렸다.

> 박영숙 : 그때는 손님들한테 매달려가지고 손님 머리 빗기고 돈 버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 생각과 내 삶을 만들어가면서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을 손님을 아름답게 해주고 예쁘게 해주는 반면에 그 손님이 나에게 와서 예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 사항에 맞춰서 해주는 거지, 옛날같이 막 구슬려가면서 그런 게 아니고.[84]

따라서 박영숙이 보기에 2000년대 미용실에 도입된 ‘사전예약제’는 미용사의 노동의 질을 크게 바꿔준 긍정적인 변화였다. 박영숙은 사전예약을 통해 손님과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완성된 헤어 스타일은 많은 손님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즉 전처럼 손님들을 “구슬려가며” 기분에 맞춰주는 일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이다. 특히 박영숙은 이렇듯 변화된 과정을 두고 “내 생각과 내 삶을 만들어가면서” 미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는 본인의 기술과 삶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미용기술이 존중받는 길이 미용사로서의 삶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제 과거와 다르게 내 미용기술을 자유롭게 펼치면서도 손님의 만족까지 이끌어내는, 이상적인 미용사의 삶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용사의 자긍심을 연구한 글에 따르면 자신이 완성한 헤어 스타일에 고객이 만족하면 미용사 자신도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긍심도 함께 향상된다. 이때 자긍심은 자아실현과 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미용사의 자긍심이 향상됨에 따라 미용사는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있는지를 깨닫게 된다.[85] 박영숙은 손님의 비위를 맞추고 때로는 결과물에 대한 손님의 불만에 여러 차례 자아가 손상되는 경험을 했으나, 한편으로 손님이 만족감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을 때는 미용사로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5. 대한미용사회 활동과 미용기술의 전수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미용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단체로 한국에 현존하는 미용관련 단체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1957년 “미용사회”라는 임의단체로 창립되었다가 1960년대 초 구성된 ‘환경위생협의회’의 한 분과를 거쳐, 1966년에는 보건사회부의 인가를 받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로 창립되었다.[86] 박영숙은 1983년 대한미용사회 서울지역구지회 부지회장에 임명된 것을 기점으로 활발한 단체 활동을 이어갔다. 그에게 대한미용사회 활동은 자신이 가진 “미용인으로서의 긍지”를 후세대 미용인들에게

84)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51:05~51:29)
85) 박미옥·최희자, 2010, “미용사 직업에 대한 자긍심, 사회적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6(3), pp. 851-852.
86) 김수정, 앞의 책, p. 211; 최희진·김성남, 2007, “현대 미용조직의 현황 및 개편안 연구”,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1(2), pp. 177~183.

전달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박영숙 : (보문동) 1동, 2동 전체에서 (미용실이) 9개뿐이 없었어. … 그래서 9개를 내가 이집, 저집 다니면서 말하자면 통성명을 하는 거지. …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제일 단합이 잘 될라고 하면은 반상회 같이 해야돼(웃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이자~ 이래 갖고 그렇게 돈을 모아 긁으니까 200원인가. 자장면 한 그릇. 자장면 한 그릇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몇 달 만에. … 보문동 식구들이 나를 잘 따라줬어요. 그니까 단합이 잘 된거지. 그래서 재밌게 잘 지낸거 같아요.[87]

박영숙은 지역구 부지회장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자신의 미용실에서 그러했듯 보문동의 미용사들도 서로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는 직접 보문동의 미용실을 한 곳 한 곳 방문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미용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보문동 미용사들의 단합을 위해 회비를 걷고 주기적으로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보문동의 미용사들은 모은 회비로 중국집에서 다같이 자장면을 먹으며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나누곤 했고, 이렇듯 여러 번의 만남을 거치면서 소위 '언니', '동생'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박영숙은 동네 미용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해 받기도 했다. 그는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방에서 가장 비싼 미용비를 받음으로써 손님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다른 미용실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지역 회원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었고, 박영숙 또한 구역장을 맡았던 기억을 즐거웠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구역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박영숙은 그 후 2010년대까지 성북구지회 지회장과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이사를 여러 차례 맡게 되었다. 그는 대한미용사회 활동을 통해 무엇보다 많은 미용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박영숙은 지역에서 미용대회를 개최하여 미용사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역에 대회가 열리면 대한미용사회에서는 미용사들을 분야별로 교육시키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미용사들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박영숙은 성북구 각 동마다 손이 뻗치지 않는 구석구석의 작은 미용실에까지 공문을 발송해 대회 출전을 격려했다. 그렇게 120명의 선수가 모이면 파마, 커트, 이브닝스타일, 업스타일 등 각 분야별로 외부 강사를 모셔와 선수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대회가 열리고 각 부문별 수상자가 결정되면 상을 받은 미용실은 동네에 소문이 나 미용실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었다.

박영숙 : 기교를 잘 부리면은 머리가 윤기도 나고 오래가기도 하고 아주 멋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그 정도 하겠지만은 조금만 어드바이스 해주면은 잘하는 사람 많지, (많아요 못따라 배우는 사람은 안되고) 배워야 되겠지만. 그 아껴놓으면 뭐할기요 다 가르쳐주고 가야지. … 그리고 지금은 일선에서 많이 안 뛰는 대신에 조직생활을 또 좀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 협회라는 것이 회원을 관리하는 거고 회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 그거를 후배들한테 잘 가르쳐줘서 싸우지 않고 잘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내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

87) 2020년 10월 19일 인터뷰. (34:55~41:55)

요.[88]

이처럼 박영숙은 미용대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의 미용사들을 실력을 키우고 동네 미용실을 번성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구 차원의 미용대회 개최는 박영숙이 최초로 벌인 일이었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이후로는 다른 지회에서도 저마다 미용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는 많은 미용인들이 남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대한미용사회에서의 활발한 활동도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박영숙에게 미용사를 양성하는 일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긍심을 다른 미용사들에게도 심어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박영숙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신념과 자긍심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박영숙 : 미국에 딸이 있어요. 지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고 있어요. 딸이 거기 간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동생(박영숙의 아들)을 불러들여서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내가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불러들여 미용을 시켰더니 지금 ㅇㅇ대학교 나가고 있어요. 미용과 교수로.

면담자 : '바니', 그럼 바니(미용실)는 며느님에게 물려주시는 건가요?

박영숙 : 그렇죠. 그래서 100년 가게가 나오는거예요. 우리 며느리도 ㅇㅇ대학교 조교로 나가고, ㅁㅁ대학교도 나가고 지금도 시간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고 그래요.[89]

박영숙 : 그니까 딸도 인자 미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며느리하고 네 명이 다 있잖아 잘 이렇게 미용 계통으로 있잖아요, 이 그거 한 거 같애서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요.[90]

또한 박영숙의 미용기술은 대를 이어 가족들에게 전승되고 있었다. 현재 박영숙의 딸은 미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박영숙의 영향을 받아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헤어까지 다룰 줄 아는 전문가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또한 아들은 원래 운동을 하다 뒤늦게 박영숙의 권유를 받고 미용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할 정도로 박영숙의 길을 제대로 잇고 있다. 또한 며느리의 경우에는 아예 박영숙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 전체가 대를 이어 미용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박영숙의 미용기술이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숙은 딸과 아들, 며느리까지 미용업을 잇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흡족해 했다. 그가 바랐던 미용기술의 전수와 미용사의 양성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도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자녀와 며느리가 자신의 미용업을 이어받아 성공적인 미용인으로 자립한 모습은 자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만족스러운 증거이기도 했다.

---

88) 2020년 7월 27일 인터뷰.
89) 2020년 10월 19일 인터뷰. (01:14:40~01:16:17)
90) 2020년 7월 27일 인터뷰.

6. 맺음말

박영숙 : 지금 우리사회가 미용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데요. 다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미용인들이 기술적인 것이기 … 손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 또 이 직업이 옛날같은 그런 직업이 아니고 굉장히 우수한 직업을 가진 미용인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옛날에는 못 먹고 그러니까 했지만, 지금은 다 잘 살고 하지만은 저는 미용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 지금은 '엄마들이 너 미용해라' 하지, '너 미용하지 마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미용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헤어디자이너로, 예술인으로 변신하는 시대가 왔어요.[91]

장인이란 예술을 창조해 그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기술을 후대에 전승하는 존재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개인정체성을 강화·발전시키며, 동시에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도 한다.[92] 지금까지 살펴본 박영숙의 생애는 한 명의 개인이 미용기술을 터득한 직업적 미용사를 거쳐, 어떻게 창작과 전승을 통해 '미용장인'으로 거듭났는가를 보여준다. 박영숙이 '기술자'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이 지닌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자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은, 서비스직의 직업경험이 단순히 열악한 면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게 한다.

오히려 미용사를 둘러싼 낮은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용사 개인은 기술 습득과 그 수행 과정에서 기술자, 예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박영숙은 1965년 보조로서 처음 미용사 일을 시작한 뒤 일류미용사에 이르기까지 밤낮없이 기술을 연마하면서 미용사란 무엇보다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일류미용사가 되어 다양한 손님들의 머리를 만졌던 경험은 단순히 복제품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예술성을 발휘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케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용사들은 자긍심을 갖춘 직업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서비스직이라는 미용사의 직업적 특성상, 손님의 기분을 맞춰가며 일을 하는 과정은 종종 손님과의 갈등을 빚어냈다. 그러한 갈등 상황은 미용사라는 직업의 낮은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게 만들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2020년 인터뷰 당시 박영숙에게 마지막으로 미용인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묻자, 그는 과거 못 먹고 가난하던 시절 살림이 어려운 여성들이 미용사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학력도 높아지고 '예술인'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술회하였다. 즉 과거는 열악했던 '암흑기'로 묘사되는 반면 오늘날의 미용사는 우수하고 발전된 것으로서 대비되고 있었다. 박영숙이 말하는 오늘날 미용사의 모습은 실제 현실을 반영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용인들이 사

91) 2020년 10월 19일 인터뷰. (01:16:17~01:31:21)

92) 김헌선, 1996, "장인문화의 사회적 성격과 장인예술의 특성 : 연구사 검토와 범주설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8, p. 9; 이병준·박응희, 2015, "수공업 장인의 문화적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 - 통영장인의 학습생애사 연구 -", 『문화예술교육연구』 10(3), p. 29.

회에 어떻게 비춰지기를 바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숙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용사의 직업경험이라는 것이 평평하고 매끈하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그 울퉁불퉁한 표면 위로는 기술전문직이자 서비스직이라는 직업적 특성이 갖는 혼란과 모순점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사회적 인식과 높은 직업적 자부심이라는 상반된 지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영숙의 구술생애사는 그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술의 전수와 후세대 양성을 통해 그 모순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논저>

국사편찬위원회 2008,『모던걸, 치장(治裝)하다』,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김광희, 2020,『헤어미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비교』,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융합학과 석사학위논문.

김라희, 2019,『미용사의 직업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직업 추천의도』, 경일대 디자인학과 뷰티산업전공 석사학위논문.

김문정, 2014, “1960, 70년대 서울과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의 서사”,『상허학보』41, pp. 467~500.

김미선, 2009, "근대적인 '직업여성'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의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1세대 미용사 임형선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여성과 역사』10, pp. 141-186.

김수정, 2005,『한국미용100년』, 서울: 동서교류.

김은정, 2012, "1930~4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통한 '직업여성'의 근대적 주체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 미용사 L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한국사회학』46, pp. 64~100.

김미선, 2012, "1950~1960년대 여성의 소비문화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 양장점과 미장원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46, pp. 59-101.

김은정, 2021, "식민지 시대 미용사의 직업경험과 근대인식, 그리고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사회사상과 문화』24(3), pp. 165-211.

김헌선, 1996, “장인문화의 사회적 성격과 장인예술의 특성 : 연구사 검토와 범주설정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8, pp. 7~43.

박미옥·최희자, 2010, “미용사 직업에 대한 자긍심, 사회적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한국미용학회지』16(3), pp. 850-860.

박미옥, 2010,『미용사 직업에 대한 자긍심, 사회적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분장예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박정미, 2017, “‘무작정 상경’ - 서울 이주자에 관한 담론과 젠더”,『사회와 역사』113, pp. 311~344.

이병준·박응희, 2015, “수공업 장인의 문화적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 - 통영장인의 학습생애사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10(3), pp. 27~43.

조민지, 2022, “1960-70년대 서비스노동의 특성과 버스안내원들의 저항”,『역사연구』44,

pp. 49~81.
최희진·김성남, 2007, “현대 미용조직의 현황 및 개편안 연구”,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1(2), pp. 177~18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
박영숙 구술, 조성윤(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 팀장) 면담, 2020년 7월 27일 인터뷰.
박영숙 구술, 김민경·오윤영·최우영 면담, 2020년 10월 19일 인터뷰.
박영숙 구술, 최우영 면담, 2022년 10월 7일 인터뷰.
성북문화원, 2020, 『보문동에서 바니미용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비매품)

발표2

어느 3대 농부의 자수성가 이야기

정현봉(국민대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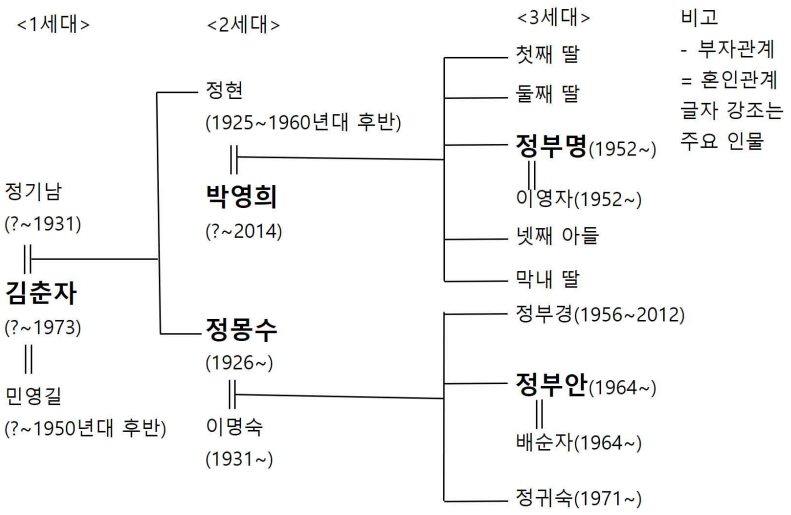
목차

1. 머리말
2. 김포시 하성면의 지리적 조건
3. 농업 경영의 변화
  1) 이주와 정착 - 1930-40년대
  2) 농업 경영의 확장 - 1950-70년대
  3) 패러다임의 전환 - 1980년대
  4) 3세대 경영의 지속 - 1990년대 이후
4.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A마을에 거주 중인 정씨 일가에 대한 구술 연구이다. A마을은 현재 5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원래 여흥 민씨 집성촌이었다. 정씨 일가는 1930년대 중반 이곳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가세를 확장하여 이곳에 유지가로 성장하였다. 이 논문은 일제 시기 이주해 온 가난한 정씨 일가가 해방과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농촌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성공담과 그들의 생존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사실 '정씨 일가'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1세대의 경우, 여성 '김춘자'가 정씨 자녀 2명을 데리고 마을로 이주하였다. 이후 그 자녀들의 가족들이 마을에 자리잡았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분석대상이 김춘자의 두 아들이므로, 편의상 '정씨 일가'라고 명명하였다.

아래 〔그림 1〕은 A마을 정씨 일가의 가계도이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인물들이 각 세대의 대표적인 분석 대상 인물들이다.



[그림1] - 정씨 일가의 간략 가계도[93)]

구술 인터뷰는 A마을에 살고 있는 총 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술자는 정몽수·이명숙·정부명·이영자·정부안·배순자·정귀숙이다. 1세대 주요 인물인 김춘자는 이미 사망하였다. 2세대는 이미 사망했거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각 세대의 직접 구술을 받지 못한 것이 이 논문의 한계다. 논문 내용의 대부분은 3세대의 구술에 의존하여, 2세대와 1세대의 삶을 조명한 것이다. 3세대의 구술에 의존하였기에 시기상으로 불명확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내용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구술자들의 구술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다행히도 정씨 일가는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헌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농지개혁 관련 자료, 토지소유권 관련 자료, 사적인 대출 관계를 꼼꼼하게 기록한 '치부책'이다. 이 연구는 주로 3세대의 구술과 정씨 일가가 소장한 문헌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3대의 성공담에 접근하였다.

2. 김포시 하성면의 지리적 조건

지리적인 조건은 전시기에 걸쳐 정씨 일가의 영농 방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이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논농사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도시들과 매우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김포는 굴포천 유역과 한강 하류에 위치하여 퇴적평야인 김포평야가 발달해 있다. 김포평야의 핵심부는 범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후습지가 매우 넓다. 일제강점기부터 인공제방의 축조가 이루어졌고 광복 후에는 양수장이 설치되면서 수리안전답이 개간되었다.[94)]

<표 1> - 김포시와 하성면 답 면적 비교[95)]

93) 등장인물들의 인명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다. 모든 가계 인물들의 정보를 넣지는 않았고 구술자 혹은 중심 등장인물들만 정리했다.

94) 김포평야 (한국민족대백과사전[Website] 2022, Oct 2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0902)

95) 김포군지편찬위원회, 『김포군지』, (김포 : 김포군, 1993), pp.756~757 ; 김포시, 『제 39회 김포시 통계연보』, (김포 : 김포군, 1999) p.80; 김포시장, 『제53회 경기도 김포시 기본통계』, (김포 : 김포시

(단위 : ha)

연도	김포시 전체 답 면적	하성면 전체 답 면적
1960	9,319	1,553
1970	10,020	-
1980	10,456	1,663
1988	-	1,964
1989	10,710	-
1998	8,230	-
2012	7,288	1,605
2019	5,964	1,543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김포시의 답 면적은 90년대 산업화와 함께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하성면의 답 면적은 크게 줄지 않았다. 이는 하성면에서 현재에도 대규모 논농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성면이 김포시 전체에서 논농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임을 말해준다.

한편 김포시는 남쪽으로는 부천과 인천, 동쪽으로는 서울과 인접해 있다. 덕분에 1980년대에 빠르게 공업화 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신도시 택지 개발로 많은 인구가 김포시로 유입되고 있다. 하성면은 김포시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김포시내의 택지 개발로 공업단지가 월곶면·하성면·대곶면 등으로 이주함에 따라 하성면에도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씨 일가가 거주하고 있는 하성면 A마을에서 서울시 강서구까지 거리가 30km 남짓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하성면은 서울과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농업 경영 방식의 변화

1) 이주와 정착 - 1930-40년대

김춘자는 1930년대 중반 아들인 정현·정몽수 형제를 데리고 하성면 A마을로 이주하였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김춘자는 자신과 아들들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고안했다. 본래 정씨 일가는 하성면 후평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두 형제의 친아버지인 정기남이 1931년에 사망하자, 김춘자는 A마을에 거주하던 민영길과 재가를 결정하면서 A마을로 이주하였다. 정부명은 자신의 할머니 김춘자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 정부명 : 할머니(김춘자)가 원래 결혼하신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어렵잖아. 떼거리도 없으셨어. 강릉 김씨 신데 친정이 고촌 퇴리라는 곳이 친정이었어. 아이들(정현·정몽수)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고촌까지 걸어가신 거야. 짚신 신고. 친정에서 보리 한 말을 주시더래. 겉보리. 그걸 갖

정책예산담당관, 2014) p.48 ; 김포시장, 『제60회 경기도 김포시 기본통계』, (김포 : 김포시 기획담당관, 2021) p.44

고 와서 사실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 할머니가 재가를 하신 거지. 재가보다는. 남편분(민영길)을 민씨 할아버지(민영길)랑 같이 사시면서 그 때 할아버지(민영길)가 땅이 조금 있었던 거 같아. 이 집 터도 할아버지 땅이라고 했던가.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우리도 그 할아버지가 고마우니까 그 할아버지 제사를 할아버지 때부터 지내드렸지. 내가 어릴 때 그 양반이 돌아가신 것 같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기억에 장사 지내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 사랑방에서 상복들 입고. 그 양반이 딸이 하나 있었어.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결혼하신 거야. 거기서 자손은 없고. 형제가 없으니까 그분을 고모라고 모셨어. 모신 건 아니고 왕래를 했지. 그 분의 아들들하고도 왕래를 했는데 지금은 끊어졌어. 그 정도로 우리 집안이 번창은 안 했어. (중략)[96]

193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재가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땅한 일자리도 역시 없었을 것이다. 결국 김춘자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 민영길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춘자와 민영길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재혼을 통해 김춘자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다. 자식이 딸 한 명만 있었던 민영길은 아들들을 얻었다. 이 때문에 민영길은 이들이 장성하면 앞으로의 생계가 보장되고 결혼하여 며느리를 얻는다면 수발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명이 민영길의 제사를 지내주고 그 딸과도 고모라고 부르며 왕래했다는 것을 보면 김춘자와 두 형제는 민영길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춘자·민영길 부부는 약 20년 간 같이 살았다. 민영길은 박영희와 이명숙에게 시아버지로서 대접받으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아들의 호적은 바꾸지 않았고 성씨도 계속 유지했다. 정현·정몽수 형제가 어떤 연유로 기존의 호적과 성씨를 그대로 유지하였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민씨와의 결혼 덕에 김춘자 가족은 민씨 집성촌인 A마을 주민들과 이후로도 큰 갈등 없이 지냈다. 그러나 당시 민영길의 형편도 그리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김춘자의 작은아들인 정몽수는 20살이 되는 1946년 이전부터 소위 '남의집살이'(머슴, 일꾼)를 했다. 그 상황은 정몽수의 작은아들인 정부안이 기억하였다.

정부안 : 아버지(정몽수)가 어렸을 때는 땅이 한 평도 없었데, 잘 사는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1월 달에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일을 하는 거야. 11월 가을걷이가 끝나고 겨울이 오면 1년이 끝나잖아, 1년 동안 일한 값을 쌀로 받는거야. 먹고 자고, 그걸 남의집살이라고 해.

면담자 : 일꾼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정부안 : 그렇지. 일년 내내 있는거야. 방 한 칸을 줘. 돈을 안 받고 일하다가 추수한 벼를 받아. 그게 일년치 일한 값이야. 일년 이년 한 걸 모아 가지고 자기 땅을 사기도 하고 그런거야. 자기 땅을 사서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다른 집 가서 품삯 받고 하면서 자기 농사 지은 거랑 합쳐서 또 땅을 사고.[97]

'남의집살이'는 지주와 분리되어 생활하면서 지주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과는 다른 형태이

96) 2022년 10월 2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1차 인터뷰 중에서
97) 2022년 9월 25일, 구술자의 집, 정부안의 1차 인터뷰 중에서

다. 땅 주인의 집에 들어가 1년 동안 살며 농사는 물론 집안의 일을 도우며 생활하는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가을걷이'(추수)가 끝나면 일꾼은 일이 끝나고 수확한 쌀을 받아간다. 혹은 겨울까지 남아 있으면서 일을 돕기도 한다. '남의집살이'는 돈이 없는 사람이 땅 주인의 집에서 생활비를 들이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본인 집의 생활비 부담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인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임금의 변화는 알 수 없지만 정부명의 집에 일꾼을 두었던 시기에 일 잘하는 일꾼에게 노임으로 1년에게 벼(?) 8가마, 겨울까지 남아있으면 10가마를 주었다고 한다.[98] 이 시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고용된다는 점, 고용인이 추수 때까지 거주한다는 점, 추수가 끝나고 임금을 치룬다는 점은 동일하게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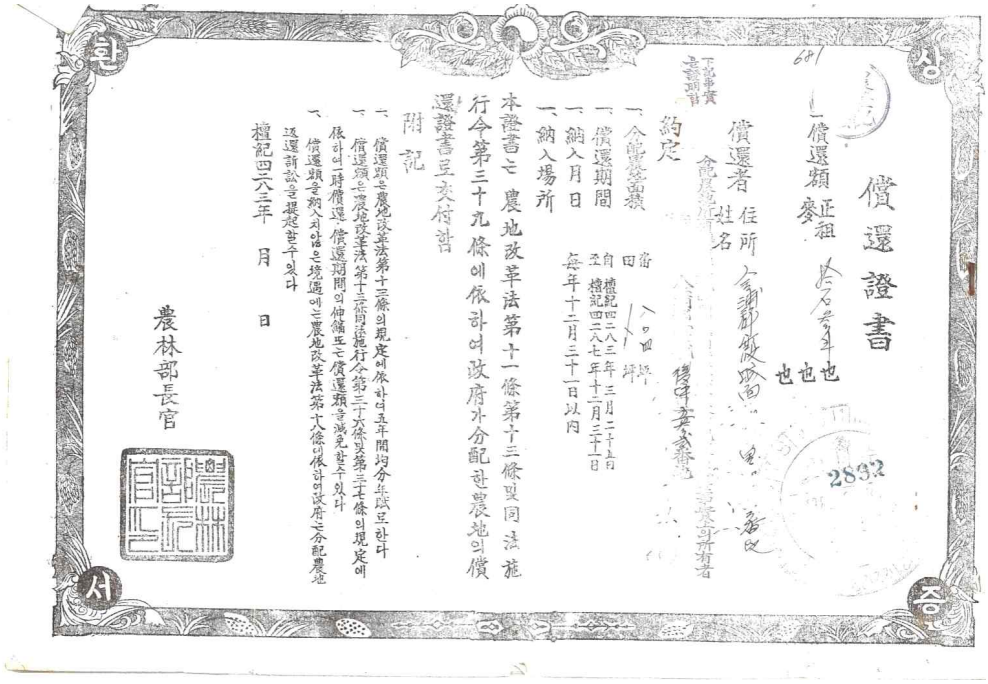
그러나 정몽수는 남의집살이를 오래 하지는 않았다. 어느 시점에 남의 땅을 얻어서 농사짓는 소작농이 되었다. 농지개혁 당시 두 형제 모두 약 6,500평에 달하는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은 소작지를 상당량 얻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농업 경영의 확장 - 1950-70년대

해방 이후 두 형제는 함께 농사를 지어 경영 규모를 크게 확대시켰다. 남의집살이를 할 정도로 매우 가난했던 정씨 일가는 1960년대 초반에 일꾼을 두고 일을 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 되어있었다.[99] 특히 정몽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 규모를 확대했다.

먼저, 1950년 농지개혁은 형제에게 큰 기회로 찾아왔다. 이전부터 소작 짓고 있던 땅들을 분배받게 되면서 순식간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A마을 분배농지부 자료에 의하면 두 형제는 모두 6,500평에 달하는 땅을 분배받았다.[100] 상환액이 부담되기는 했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의 상환 대금을 1960년대에 상환했다. 이 분배 받은 농지들은 이후 농지를 확장하고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98) 2022년 10월 2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1차 인터뷰 중에서
99) 위와 같음.
100) A마을 분배농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몽수와 정현의 분배농지를 합하면 모두 6,500평에 달하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대부분 답이었다.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Website] 2022, Oct 23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01083236;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01020573#2)


償還證書

[그림 2] - 정몽수 소장 상환증서

1950년대 정몽수의 두드러지는 활동은 방앗간 운영이다. 1950년대부터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었던 정몽수는 다른 두 명의 동업자와 방앗간을 공동 구매해서 운영하게 된다.[101]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50년대 초반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1950년대 어느 시점에 방앗간을 구매하고 70년대 초반까지 운영했다.

형제는 함께 농사를 지으면 긴밀하게 협력했다. 분배 농지의 상환 시기를 고려했을 때 1950년대까지는 농지를 늘리지는 못하고 상환액을 마련하는데 집중했을 것이다. 1960년대에도 정몽수는 방앗간을 그대로 운영했지만 1950년대보다 가정 형편이 크게 나아졌다. 정현의 큰아들 정부명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상당히 유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 정부명 : 나 때만 해도 상당히 동네에서는 부유하게 산 편이지. 학교도 어렵지 않게 다녔어. 남들이 대부분 책을 보자기에 싸서 매고 다녔는데 나는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 돌아가신 형(정부경)은 더 부유했지. 동네에서 다른 집보다는 부유하게 살았어. 나 어릴 때만 해도 일꾼을 두고 살았어. 일꾼은 1년 동안 집에 와서 일 해주는 사람이야. 우리 집이랑 작은 아버지(정몽수) 집. 소도 한 마리 키우고. 당시에는 일하는 도구였으니까 소가 밭 갈고 논 갈고 다 했어. 소를 하나 키운다는 거는 일에 도움도 되지만 새끼도 낳으니까 부의 축적도 가능한 수단이었어. 그걸 돌보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1년짜리 머슴, 일꾼을 뒀어. (중략) 일꾼을 둘 정도였으니까 이 마을에서는 몇 안되는 축에 들었지.[102]

정현·정몽수 형제는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협력하여 농사를 짓고 농사와 방앗간에서 번 돈으로 땅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정현이 사망하고 민영길도

101) 2022년 9월 25일, 구술자의 집, 정부안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02) 2022년 10월 2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950년대 후반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정몽수가 두 집안의 유일한 어른이 되었다. 가족들에게 엄한 아버지였던 정몽수에 비해 정현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두 집의 대소사에서 정몽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현이 사망하면서 두 집안의 농업 경영이 정몽수 주도 아래 진행되어 일꾼을 구하는 일, 농사의 진행과 일정 등을 정몽수가 담당했다.[103]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현의 아내 박영희와 딸들의 역할이다. 당시 농사는 남녀의 일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정현이 사망한 이후, 농사에서 정현의 아내 박영희와 그 딸들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이 시기 여성이 해야 할 일은 정현의 아내 박영희가 딸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박영희의 며느리인 이영자와 아들 정부명의 구술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 이영자 : 집에 일이 많아서, 같이 농사 짓고 뭐하고 그런 생활을 했지. 여자 일은 우리집에서 많이 했지 어머니(박영희) 혼자니까. 남자 일은 아버지(정몽수)가 총괄하고, 여자 일은 어머니가 하고. 우애 좋게 잘 사셨어. 형제 지간에. 의좋은 형제야.
>
> 정부명 : 농사일을 많이 도왔지. 누님들이(박영희의 첫째·둘째 딸들). 조력하는 걸 많이 했지. 예를 들어 벼를 베면 그걸 묶어야 돼. 묶으려면 벼를 묶을 게 있어야 하잖아. 짚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놔줘야 해. 먼저 해에 떨었던 짚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묶는거야. 그건 여자들이 다니면서 해주는 거야. 그리고 짚을 끌어들이고 타작할 때 날라다주고 그런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했지. 누님들이.[104]

위의 구술과 같이 박영희와 이명숙, 그리고 박영희 두 딸들은 추수 이후 논에 있는 짚을 묶는 일을 비롯해서 밭농사와 논에 새참을 가져다 주는 등 여자들이 전담하는 많은 일을 담당했다. 또한 이명숙의 구술에서도 당시 여성들이 담당했던 집안일과 농사일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5] 모내기 철이 되면 전라도에서 많은 여성들이 와서 모내기하고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데[106] 이는 고용노동의 일종이지만 여성들이 논농사에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몽수 집안의 농사와는 달리 정현의 집안은 정현이 사망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약 10년 이상 일꾼 노동력에 매우 의존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품앗이를 할 때도 일꾼을 보내어 품을 팔았다고 하니[107] 일꾼에 대한 의존성이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다. 두 집안은 농사일부터 경제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정씨 일가가 경영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성노동과 고용노동의 역할이 매우 컸다.

1960년대 후반에 정부명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에서 생활하게 된다. 정씨 일가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장남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명의 손위 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정몽수가 막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이들은 정식 학교가 아닌 재건중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아직도 정몽수를 원망하고 있다고 한

---

103) 2022년 10월 2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04)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2차 인터뷰 중에서
105) 2022년 9월 11일, 구술자의 집, 이명숙의 1차 인터뷰; 2022년 9월 12일, 구술자의 집, 이명숙의 2차 인터뷰 중에서
106) 위와 같음.
107) 위와 같음.

다.[108] 이는 당시 농촌에서 교육에 대한 성차별을 보여주며, 남성들이 도시로 떠난 빈자리를 여성 노동이 메꾸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들어 정몽수는 방앗간을 그만두고 삼포밭을 운영하게 된다. 정현의 큰아들 정부명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면담자 : 인삼밭 하신 게 방앗간 그만두고 인가요?

정부명 : 아니야. 방앗간 하시면서. 인삼밭이 1년 만에 되는게 아니야. 6년근이야. 인삼밭을 혼자 하는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같이 해. 리스크가 있으니까. 6년이야 해야 하고 자본도 있어야 하고 토지도 있어야 하고. 인삼은 거름을 안해서 비료나 퇴비를 주면 안돼. 인삼밭을 하려면 2-3년을 묵혀야 돼. 비료기가 다 없어져야 하니까. 거기다가 처음에는 1년짜리 종자를 심어. 그걸 종삼, 씨삼이라고 해. 1년 자란거를 좋은 거를 선별해서 하나씩 심어. 그 위에는 햇빛이 안 들게 나무랑 이엉을 엮어서 해준 거야. 거기에 비료를 콩 같은 거를 갈아서 썩혀. 다른 비료를 안 주고 6년 키우는 거야. 김포, 강화 인삼은 홍삼이야. 금산이나 그런 데는 수삼이고. 둘 차이가 뭐냐면 홍삼은 전매품이야. 담배처럼 홍삼도 허가제야.[109]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면 6년간 보존을 해야 해. 씨삼 1년이고 본포에는 5년을 키우는 거야. 6년 해서 가을에 캐는데. 전매품이기 때문에 주인도 그걸 먹으면 안돼. 그렇게 해서 삼을 수확하는 날은. 삼을 키우면 훔쳐가지 말라고 둘래를 다 쳤으니까. 삼이 6년 동안 잘 자라는 법은 없잖아.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어. 신청을 해서 폐포라고 해. 이거를 갈아엎겠다는 허가가 나와야 하고. 캘 때도 언제 캔다고 하면 전매청에서 가져가지.

면담자 : 정몽수씨가 하실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정부명 :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거야. 그 당시 할 때는 여기 다 홍삼이어서 허가를 해야 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캐고 나면 뿌리가 남잖아. 그런 걸 다시 캐서 먹고. 그래도 인삼을 풍부하게 먹었지. 나도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여기 뒷자리에도 인삼을 했거든. 여기 동네의 밭은 인삼밭을 한 번씩 다 했을 거야. 인삼은 윤작이 안되서. 김포는 인삼을 하는 데가 없잖아. 다 한 번씩 돌아서.

면담자 : 그러면 다 같이 하셔서 하신 거에요?

정부명 : 같이 한 거지. 지분을 한 거지. 이 밭을 하면 4-5명이서 같이 한 거야. 같이 투자하고 같이 캐서 같이 돈 받아서 나누고.[110]

108)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2차 인터뷰 중에서

109) 수삼(水蔘)은 말리지 않은 인삼을, 홍삼(紅蔘)은 수삼을 쪄서 말린 인삼을 의미한다. 수확까지 전매청에서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가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지칭하는 홍삼은 6년근 인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10)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1차 인터뷰 중에서

김포의 인삼 재배는 1970년대 정점을 찍고 1980년대부터 축소되는데[111] 사업을 시작한 시점과 그만 둔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몽수의 인삼 경영도 대략 같은 궤적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부터 정몽수의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 둔 것도 있지만 인삼밭의 경우 지력을 많이 소비해 윤작이 불가능하므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삼 재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정부명이 소유하고 있던 땅은 대부분 논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명은 새로 땅을 사고 오랜 기간 삼을 재배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같이 투자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 땅을 사야 하고 수익을 얻을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인삼 재배는 사업상의 위험성이 크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112] 정부명은 공통 투자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자본과 지속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인삼 재배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113] 즉 인삼 재배는 자산의 요소가 매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씨 일가는 1970년대에는 1950년대까지 살고 있던 오막살이 집에서 현재 살고 있는 기와집을 새로 짓고 이사하였다. 이는 이 시기 경제력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50-70년대까지 정씨 일가의 농업 경영에는 일정한 방침이 존재했다. 물론 3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기에 동일하게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돈이 생기면 논을 늘린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했지만 기본적으로 논을 늘려 더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돈을 버는 것도 결국 땅을 사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동기도 땅을 더 살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

111) <표 2> - 김포군 연도별 인삼 총재배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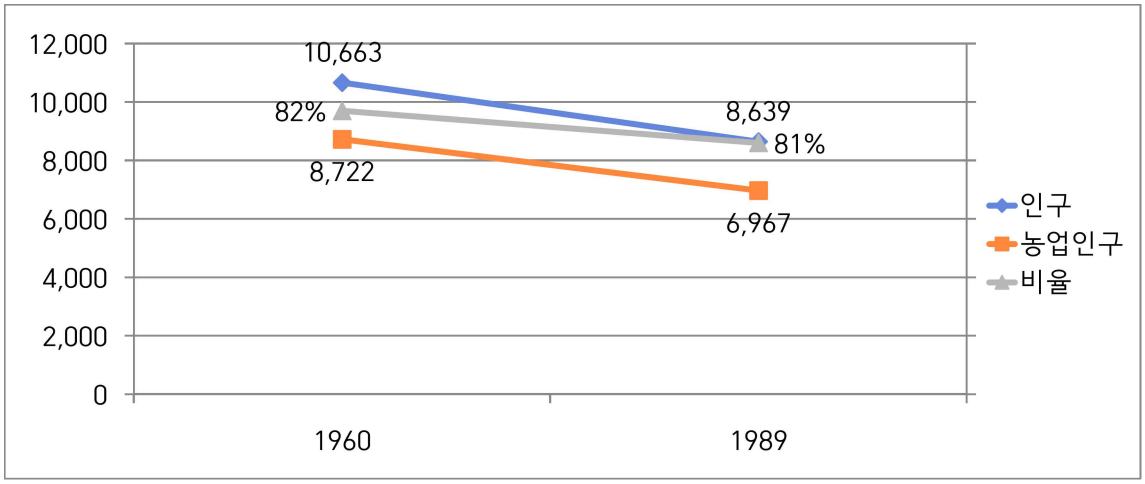
단위 : 평

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89
총재배면적	222,662	384,480	1,293,445	2,815,120	1,022,200	377,305	268,136

(『김포군지』, p. 1009)

112) 인삼은 재배기간이 길고, 그늘에서 재배해야 하며, 초작지 또는 10~15년 이상의 연작(連作)이 필요하고, 재배관리 시 잎·줄기·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속효성 비료나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 가리개를 설치해야 하고 재배기간이 길어 자본이 많이 들고 자본을 환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든다. (김포군지, p.1007)

113) 1970년 당시 하성면의 총 농가는 1,503호인데 반해 특용작물 재배 농가는 16호에 불과하다. (『김포군지』, p.755)



[그림 3][114] - 1960년·1989년 하성면 총인구 대비 농업인구 추이

[그림 3]에서 보이듯이 김포군의 공업화와 무관하게 하성면의 농업인구 비율은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와 농업인구는 꾸준히 줄었고 빠져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업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960-70년대 정씨 일가가 토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구의 유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집안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근검절약을 강조했는데[115] 이것이 기본적인 가풍을 형성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절약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토지를 확보하여 수입을 늘리는 것이 기본적인 농업 경영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가족들의 희생을 동반했다. 정부안은 자신의 어머니 이명숙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정부안 : 검소하게만 사시니까 어머니(이명숙)가 답답하신 거야. 돈을 못 쓰셔. 고기 같은 거 사와도 아버지(정몽수)랑 자식만 주고 자기는 못 잡수셨어. 그래서 저렇게 약하신 거야.[116]

세 번째 특징은 많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 일꾼과 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일꾼을 계속 부렸기 때문에 일정량의 노동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경작이 가능했다. 특히 정현이 사망한 후 박영희 집안의 농사는 일꾼이 전담했다. 또한 박영희와 이명숙, 그리고 박영희의 딸들이 '여성의 일'로 규정된 여러 농사일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 시기 정씨 일가의 농업 노동력은 정몽수·일꾼·여성 노동력이 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자본이 드는 큰 사업을 운영할 때는 동업자들과 함께 투자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방앗간과 삼포밭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동업자들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초기 자본 투자를 줄이고 사업의 위험 또한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방앗간은 정몽수가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한다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삼포밭의 경우 자본이 충분함에도 동업자들과 함께 운영했다. 정몽수에게 있어 경영의 중심은 논농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부차적인 수익으로 취급하여 사업의 위험성과 초기 자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

114) 『김포군지』, p.751
115) 2022년 9월 25일, 구술자의 집, 정부안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16) 2022년 9월 25일, 구술자의 집, 정부안의 1차 인터뷰 중에서

다.

다섯 번째는 정현·정몽수 집안 간의 긴밀한 관계이다. 정현이 살아있을 때부터 두 형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많은 규모의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또한 땅을 살 때도 두 집이 돈을 모아 올해에는 정몽수가 땅을 사고 이듬해에는 정현이 땅을 사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샀기 때문에[117] 자금을 확보하기가 수월했다. 정현이 사망한 후에도 두 집안 관계는 친밀하게 유지되었고 정몽수가 두 집안의 농사를 비롯한 각종 대소사를 관리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정씨 일가의 농업 경영을 살피기 위해서는 두 집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는 가족 내 권력 관계가 공고히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정몽수는 정현이 살아있을 때부터 두 집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이는 정현이 사망한 후 정현 집안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면서 더욱 강해졌다. 자식들의 교육을 관리하는 모습에서 이것이 잘 드러난다. 정몽수는 농사 전반을 관리했지만 박영희는 자신의 딸들과 이명숙을 통솔하여 '여자들의 일'을 관리했다. 특히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집안에서도 박영희가 상당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씨 일가의 권력 구조는 오랜 세월 동안 확고하게 유지되었으며 농업 경영의 확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숙은 정몽수의 아내로서, 박영희의 동서로서, 김춘자와 민영길의 며느리로서 권력의 최하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권력 구조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이명숙은 시집살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 이명숙 : 나 시집 오면은 시어머니(김춘자)도 있지 큰동세(박영희)도 있지 큰동세의 사내 시아주버니(정현). 아유 미워. 우리 친정 아버지(이명숙의 아버지) 환갑이 돌아온다. "너희 집에 가려면 막직한 동멩이나 하나 집어 가지고 가라" 그게 말이냐. 시아버지(민영길)가 되가지고. 그래서 미워서 내가 셋대문 있는데 있어. 시아버지가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그래야 하는 거거든. 그냥 "진지 잡수세요". 그랬더니 발끈 해서 안으로 드러눠서 "못된 년. 말버릇도 드럽게 뱄다" 내가 그 자리에서 미워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은 거에요" 그러고 악썼지. 오는 말이 고우면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러잖아. 왜 동맹이 가지고 가래. 동맹이 갔다가 뭐해. 아유 미워. 그래서 나는 우리 친정 아버지 환갑에 못갔어. 안 보내서. 안 보내. 어유. 저 사진 있잖아. 저 사람(정몽수)이 안보내.[118]

> 이명숙 : 그래서 정월에 저 사람(정몽수)이 세배를 갔어. 환갑에 안 보내고 세배를 가. 절하러. 그래서 퇴짜 맞았지. 우리 사촌 오라버니 댁 한테. 안 보냈다고. 그게 도리냐고 악을 써. 그래서 골이 이렇게 나서. 밤 중에 왔어. 나는 속으로 그래도 싸다 그랬지.
>
> 면담자 : 정월에 같이 안갔어요?
>
> 이명숙 : 안가. 안가. 혼자나 가지 나하고 가나. 혼자나 갈 줄 알아. 아유 미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이제 정월에 먹을라고 엿 꼬잖아. 엿 꼬는데 엿을 바구니 있잖아 바구니. 대 바구니. 요만한거 있어. 그러면 거기 두면 엿이 녹냐 안녹냐. 어유. 거기다가 담았으니까 저 사람이 들고 갔어. 우리 친정에. 다 샜지

117) 2022년 10월 2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18) 2022년 10월 2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1차 인터뷰 중에서

> 뭐야. 뚝뚝 땅으로 떨어지고. 그릇에 담아 주면 못써? 그래서 가운데서 좀 퍼 먹다 버렸어. 먹을 수가 없어서. 죄 세서. 그런 세상을 살았어. 어유. 미워.[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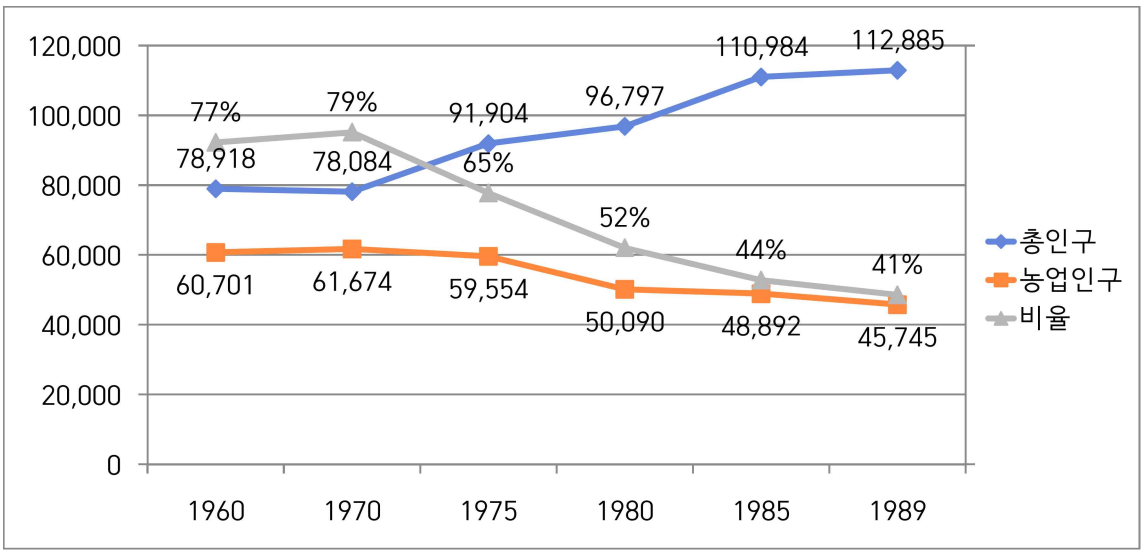
이명숙은 과거의 일들을 대부분 정보가 아닌 에피소드의 형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명숙은 그녀의 딸인 정귀숙에게 어릴 때부터 그녀로부터 위와 같은 시집살이의 고충을 반복해서 들려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로 기억을 강화했기 때문에 구술자들 중 유일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어린 딸에게 괴로움을 토로할 정도로 이명숙의 집안 내 지위는 매우 약했다. 평생을 같은 방에서 산 남편 정몽수에 대한 원망은 물론 시아버지 민영길에 대한 원망, 특히 동서 지간으로서 여러 일을 같이 했던 박영희에 대한 원망은 대단했다. 당시 박영희가 자신과 같은 여성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인물이라기 보다는 정몽수와 같은 가부장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몽수와 박영희의 권력 하에서 이루어진 정씨 일가의 경제 성장은 이명숙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동반되었던 것이다.

119) 위와 같음.

3) 패러다임의 전환 - 1980년대

1980년대는 농업 경영 방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씨 일가는 경영의 확대를 멈추고 기존의 경영 방식도 수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씨 일가는 농가의 성격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농업 경영 방식을 확립시켰고 이는 3세대 농업 경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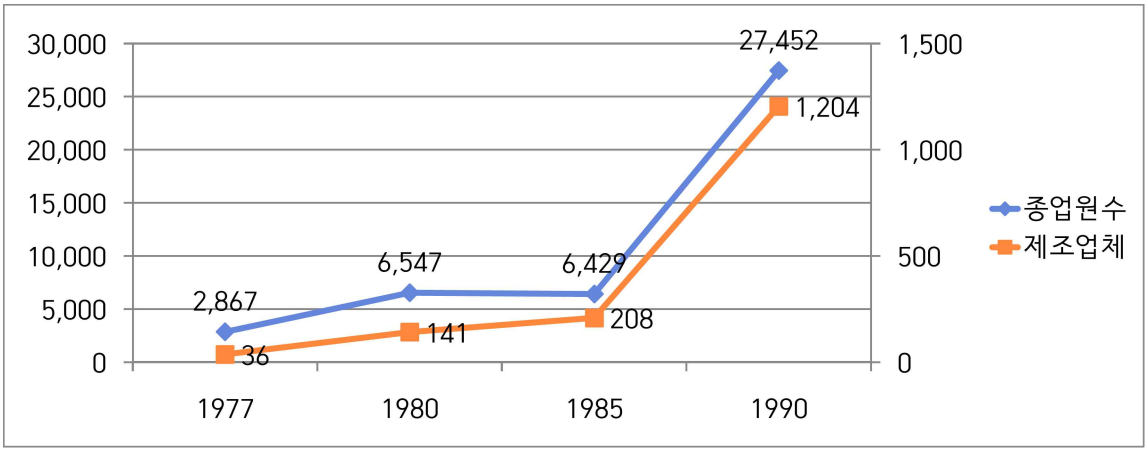
외부 환경의 변화는 경영 방식의 변화를 추동했다. 첫 번째로 김포군의 공업화를 들 수 있다. 아래 두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1980년대를 전후하여 김포군의 인구와 산업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김포군은 1977년에는 김포읍에 있던 소수의 섬유 및 의류업종 업체가 2차 산업의 전부였지만 1980년대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1982년까지는 섬유 및 의류, 그리고 비금속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1989년에는 조립·기계·전자 부문의 기업체가 가장 많았고 화학·석유·플라스틱 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120] 반면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업인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즉 1980년대 김포군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덕분에 김포군의 전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하성면의 농업인구가 2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앞의 [그림 3]와 같이 하성면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곧 정씨 일가 노동력의 큰 축 중 하나인 일꾼을 고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림 4] - 1960-80년대 김포군 총인구 대비 농업인구 추이[121]

120) 『김포군지』, pp. 938-940

121) 1960년 총인구 78,918명(『김포군지』, p.750)은 '김포군의 인구 변동'표(같은 책, p.50)에 나와있는 총인구 111,350명과 32,432명이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도별 농가 및 농업인구 추이'표가 1962년 김포군 양동면·양서면이 서울시 영등포구에 편입되는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 표를 작성한 결과로 보인다. 1961년 당시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의 인구는 각각 18,209명, 13,292명이다. (김포군, 『통계연감 제1호』, (김포 : 김포군, 1991), p.37)



[그림 5] - 1980년대 전후 김포군 제조업체 수 및 종업원 수 추이[122]

1980년대는 농촌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김포군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농촌의 기계화가 이루어졌는데[123] 김포군의 주요 논농사 지대인 하성면 또한 농기계의 사용이 크게 늘었다.[124] 이 시기 김포군의 농사법은 인력 중심에서 동력 농기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꾼을 중심으로 인력에 의존한 농사법을 활용했던 정씨 일가 또한 농기계 중심의 농사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두 가지 외부 요인은 인력 중심의 농사법에서 동력 농기계 중심의 농사법으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씨 일가는 이전 시기와 같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영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먼저 정몽수의 노화이다. 1940년대부터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몽수는 지나치게 많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몸이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정몽수의 작은아들 정부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정부안 : 아버지(정몽수)는 방앗간을 할 때부터 병이 엄청 많았어. 피를 토하실 정도로 위장병이 심했는데. 극진하게 죽 쒀드리고. 위장병 있는 사람은 밥을 잘 못 먹고 죽을 잘 먹어. 삼시세끼 죽 드시면서 좋아지신 거야.
> 면담자 :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건가?
> 정부안 : 밥을 제때 안 먹고 일만 해서 그런거야. 마구잡이로 밥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병이 생기는 거야. 한의원을 많이 다니셨어.[125]

특히 고된 방앗간 일 때문에 몸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안과 배순자는 정몽수가 노인이 된 후에도 쌀 한 가마니를 지고 다닐 정도로 체력이 대단했었다고 회상하기에

122) 『김포군지』, p.939
123) <표 3> - 연도별 김포군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 대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89
계	455	4,276	7,503	16,885	15,340

농기계 항목은 경운기·트렉터·이앙기·수확 예취기·콤바인·동력 탈곡기·동력 방제기·건조기·파종기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책, p. 810)
124) 1989년 말 하성면의 농기계는 총 2,679대로 대곶면과 함께 당시 김포 지역에서 농기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였다. (위의 책, p. 812)
125) 2022년 9월 25일, 구술자의 집, 정부안의 1차 인터뷰 중에서

농사일을 완전히 그만두어야 할 몸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기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많은 일을 해왔고 나이도 많았던 정몽수가 그정도의 열의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몽수를 대신하여 농가를 경영하고 농사법을 전환할 후계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두 집안 모두 농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명은 서울에서 생활한 지 오래되었고 정부명을 제외한 박영희 집안의 자녀들은 모두 결혼 후 출가한 상태였다.[126] 정몽수가 정부안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유학을 시켰던 것을 고려하면[127] 정몽수는 일찍부터 둘째 아들인 정부안은 서울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첫째 아들인 정부경에게 자신의 농사를 물려주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몽수의 딸 정귀숙과 작은아들 정부안은 정부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귀숙 : 그리고 큰오빠(정부경)가 지어야 하는데 짓다가 안짓고 그랬지.
면담자 : 짓다가 안지은 건 뭐에요?
정귀숙 : 좀 하다가는, 큰오빠가 계속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짓다가 소도 키웠다가 그랬어. 그런데 진득하게 키웠냐, 그것도 아니고 이걸 다 팔아가지고 큰댁에 공항에서 살 때 몇 년 가서 집에 없었어.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 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128]

정부안 : 조금 살다가 헤어진 거야. 큰형(정부경) 성격이 부드럽거나 다정다감하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직업도 일정하지 않으니까. 진득하게.. 아버지(정몽수)가 돈도 많이 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농사일 다 하면은 돈 쓰게끔 많이 안 주시니까 답답해서.
면담자 : 근검절약이라서 잘 안 주셨나? 정부경씨랑 정몽수씨는 사이가 않좋았나요?
정부안 : 사이가 안좋다기 보다는 대화가 많이 없으니까 서로 의견이 소통이 안됐지. 나쁜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많이 안하면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서로 통하지가 않거든.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두 사람이 성격이 약간 (후략)[129]

그러나 정부안과 정귀숙 모두 정부경과 정몽수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사자들에 대한 구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몽수의 집안 내 권력과 경영 규모 확장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구술자들은 정부경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정부경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130]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정몽수에서 정부경으로의 농업 경영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경이 농사를 짓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린 이후 정씨 일가는 전례 없는 경영 규모의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126)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27) 2022년 9월 25일, 구술자의 집, 정부안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28)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귀숙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29) 2022년 10월 3일, 구술자의 차 안, 정부안의 3차 인터뷰 중에서
130) 2022년 10월 3일, 구술자의 차 안, 정부안의 3차 인터뷰 중에서

결론적으로 1980년대의 외부적 요인은 일꾼 중심 농사법에서 농업기계화로의 변화를 추동했지만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씨 일가는 기계화에 실패하게 된다.[131] 결국 대규모 도지 대여라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명은 1979년까지 일꾼을 부린 것으로 기억하는데[132] 정몽수 집안과 달리 전적으로 일꾼 노동력에 의지했던 박영희 집안의 특성상 이후부터는 모든 토지를 임차지로 바꾸었을 것으로 보인다.[133] 정몽수의 집안은 정부경으로의 세습이 실패하면서 정몽수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만 다른 사람의 농기계를 빌려 경작하고 대부분은 임차지로 전환하였다.[134]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데 1980년대부터 대농들은 농경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자금 부담이 적은 임차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그 비율은 계속 높아져 갔다.[135]

1980년대 정씨 일가의 농업 경영은 규모에서는 확대 일변도에서 현상 유지로 바뀌고 운영 방식 또한 자작지 위주에서 임차지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일견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씨 일가 농경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은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에서 부수적인 수입으로, 토지는 농업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계속해서 늘려야 하는 재산의 근본에서 임차지를 통해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되었다.[136] 이전과 같은 경영 확장은 불가능하지만 자본의 투자가 거의 없고 꾸준한 수입을 매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었다. 비록 수동적인 변화이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영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작지의 비율이 줄어듬에 따라 정씨 일가는 농가로서의 성격이 크게 줄어들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몽수의 농촌 사채 운영이다. 치부책[137]에 기록된 대출 사례들은 주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집중되어 있는데 200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1부 혹은 2부 이자였다고 하는데 1부는 1달에 1%씩 일년에 12%를 이자로 받는 방식이라고 한다.[138] 개별 사채 기록과 차용증에도 이자를 얼마 받을 지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을 보면 모든 사채들에서 동일한 이자율이 존재했을 것이다. 몇 천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액수를 빌려주었다. 많은 돈을 빌려줄 경우 큰댁의 돈과 함께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큰댁과의 경제적 밀접성을 보여준다. 농촌 사채는 채권자에게는 불로소득을, 채무자에게는 담보의 부담없이 손쉽게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분 채무자의 성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돈도 대신 빌리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도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정몽수에게 있어 농촌 사채가 매우 안정적인 수입으로 기능했다는

131) 정몽수의 가정문서 중 '면세유류 구입카드'에는 '농기계 및 선박 신고명세'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관리기·예초기·이앙기·경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90년대 후반에 구매했다.

132) 2022년 10월 2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33)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2차 인터뷰 중에서

134)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귀숙의 1차 인터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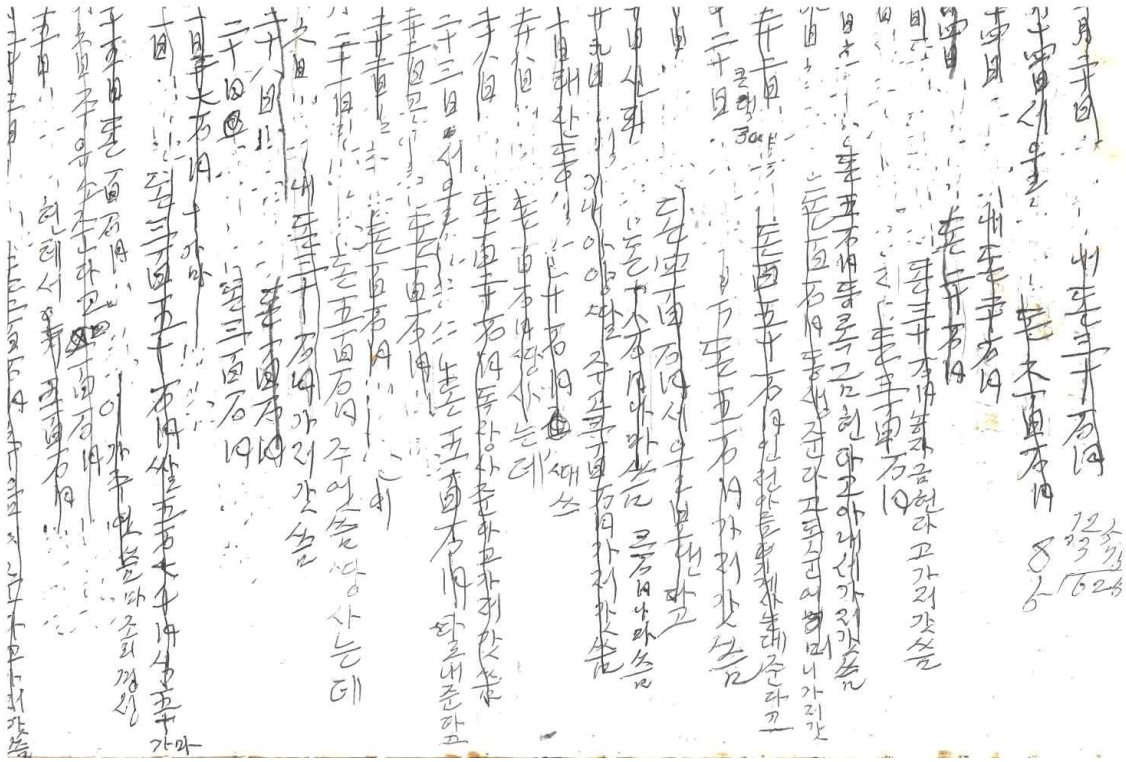
1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70년』, (나주 : 농림축산식품부, 2015), p. 38

136) 정부명의 구술에 따르면 추수 후 한 마지기에 한 가마를 땅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소작인이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한 마지기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1980년대에는 150평이고 이후에는 200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소작인이 가져가는 수입이 더 높아진 셈이다.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2차 인터뷰 중에서)

137) 置簿冊, 돈이나 물건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076653c7cef4e7bbb7b9adb3fc0d8b6)

138) 2022년 9월 25일, 구술자의 집, 정부안의 1차 인터뷰 중에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몽수가 경제활동을 줄이면서 중요성이 더 올랐을 것이고 농업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농어 이외의 수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는 3세대의 경영 방식과도 일치한다.



[그림 6] - 정몽수 소장 치부책 중 일부

이처럼 1980년대는 경영 규모의 확대가 멈추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임차지 면적이 크게 늘고 농업이 부수적인 수입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또한 농촌 사채와 같이 농사 외의 다른 수입을 찾기 시작했다. 만약 기존에 쌓아두었던 토지와 자본이 없었다면 그대로 농업 경영이 끝나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시기였지만 정씨 일가는 자신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채택하여 농업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4) 3세대 경영의 지속 - 1990년대 이후

이 시기에는 3세대 농업 경영자들인 정부명·정부경·정부안이 농업 경영을 지속하였다. 비록 경영의 확장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1980년대 확립된 패러다임을 지속함으로써 30년 이상 안정적인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데에는 특히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1980년대 갑작스레 집을 떠나버렸던 정부경은 1990년대 중반 고향으로 돌아왔다.[139]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타지에서 정착하지 못하다가 본가에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농기계 신고명세[140]에 기록된 농기계들은 정부경이 농사를 위해

139)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귀숙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40) 각주 43)과 같음.

1990년대 후반에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명과 정부안은 고등학교를 즈음하여 서울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농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안은 1997년, 정부명은 2003년 본가로 돌아와 거주한다. 두 사람 다 기본적인 동기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였지만 경제적 요건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와의 가까운 거리 덕분에 도시에서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 본가에 돌아와서도 각자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성이 시골이긴 하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면 김포 시내나 서울과 비교적 가깝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내와 결혼했고, 박영희의 첫째 딸이 강서구에 거주하고, 정부명은 서대문구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등 정씨 일가는 서울에 있을 때도 보통 본가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곤 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본가를 자주 오갈 수 있어 부모님들과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하성과 도시의 접근성이 정부명과 정부안이 귀촌할 수 있는 심리적·경제적 요인을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영 방식은 1980년대 패러다임과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198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먼저 임차지 위주의 경영 방식이다. 정몽수의 작은아들 정부안은 집안의 농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정부안 : 아버지(정몽수)가 지으실 때도 70년대, 80년대 그때 농사를 많이 지었지. 90년대까지 많이 지으셨는데 형(정부경)하고 아버지하고 거의 다 했어. 그리고 2000년대 되면서는 아버지는 힘드시니까 안하고 형 혼자 했지. 그런데 형 혼자 할 때는 집 가까운데 것은 형이 다 했지만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것도 있었단 말이야. 후평리 같은 거. 그런데 것은 근처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했지. 그걸 도지준다고 해. 집 주위에 있는 가까운 논은 형이 했지. 그러다가 형이 돌아가시고,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할 때는 시간이 안되니까 내가 일부하고 외사촌이 일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형 친구 일부하고. 몇 명이 내가 도지를 줘가지고 내가 한 반 정도 했다고 보면 돼.
>
> 면담자 : 많이 지었네요.
>
> 정부안 : 반 정도는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것도 외사촌이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조금씩 배워가면서 한 거지[141]

1990년대 후반부터 정몽수 집안의 농사를 담당하던 정부경이 2012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정부안이 경영을 이어받게 된다. 본가로 돌아온 후에도 정부안은 도시에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고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농기계를 대여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기존의 일과 농사일에 모두 시간을 분배해야 했기에 정부경이 지었을 때보다 경작지가 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명의 집안은 이미 1980년부터 일꾼을 두지 못하자 대부분 임차지로 전환했다.[142]

두 번째는 토지 가격의 상승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몽수의 작은 아들 정부안은 하성면의 발전과 지가 상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 정부안 : 서울에 있던 공장들이 김포로 내려왔다가 김포에서 다시 또 하성이나 대곶

141) 2022년 10월 3일, 구술자의 차 안, 정부안의 3차 인터뷰 중에서
142) 2022년 10월 16일, 구술자의 집, 정부명의 2차 인터뷰 중에서

이나 월곶이나 그런대로 가는 거야. 공장들은 70년대까지는 서울에 많았어. 영등포, 구로동.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장들이 밀려났다고. 보상받고 보상 받은 돈으로 서울 근교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김포로 내려 온거야. 김포가 또 사람이 많아지고 개발이 되고 서울에서 사람이 밀려 내려오니까. 90년대 가면서 중반 후반 가면서 김포에 있던 공장들이 김포 외곽 지역으로 또 가야 되는거야. 그게 이제 하성, 월곶, 대곶 이런 데로 가는 거야.[143]

정부안 : 농지 가격이라는 것은 땅이잖아. 부동산은 시간 지나면서 항상 올라. 여기는 서울 근교잖아. 김포는 서울과 가까워서 재경지역이라고 하잖아. 재경지역은 수도권 주위에 김포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거야. 그런 데는 전부 시간이 가면서 땅값이 계속 올라.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땅값도 계속 오르는 거고. 공시지가 올라가고 시가 올라가고 다 오르는 거야. 저절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오르라고 해서 오르는게 아니고.

면담자 : 물가 대비 올라가는 체감이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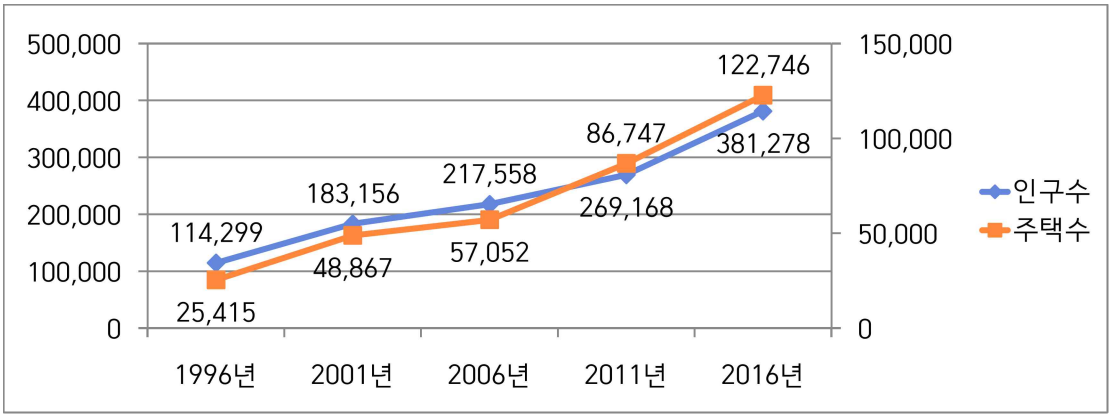
정부안 : 옛날에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별로 안올랐는데 2000년 한 10년 넘어서면서 막 오르기 시작했어. 2010년까지만 해도 별로 많이 안올랐는데 2010년 넘어서면서부터 많이 올랐어.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지. 2015년 이후.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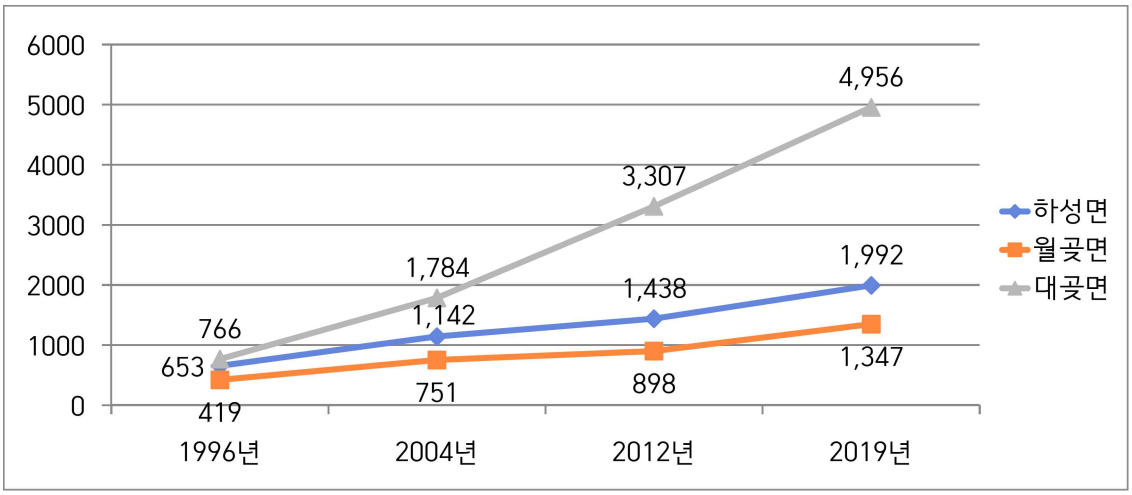
정부안 : 그게 이제 서울 근교라서 그런거야. 수도권이라 그래. 농사 짓는 땅도 같이 올라. 원래 농사 짓는 땅은 잘 안 올라요. 농지는 절대농지라서 가격이 안 오르는데 수도권은 달라. 수도권은 농지 가격도 엄청 올라.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 농지는 땅값이 별로 안올라요. 근데 이 수도권에는 농지도 땅값이 오른다고.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될 지 모르니까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확 올라가고[144]

김포군의 산업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김포의 도시화로 인해 기존 산업 지구나 개별 공장들이 하성면·월곶면·대곶면과 같은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김포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토지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143) 2022년 9월 26일, 구술자의 차 안, 정부안의 2차 인터뷰 중에서
144) 2022년 10월 3일, 구술자의 차 안, 정부안의 3차 인터뷰 중에서



[그림 7] - 김포시 인구·주택수 추이[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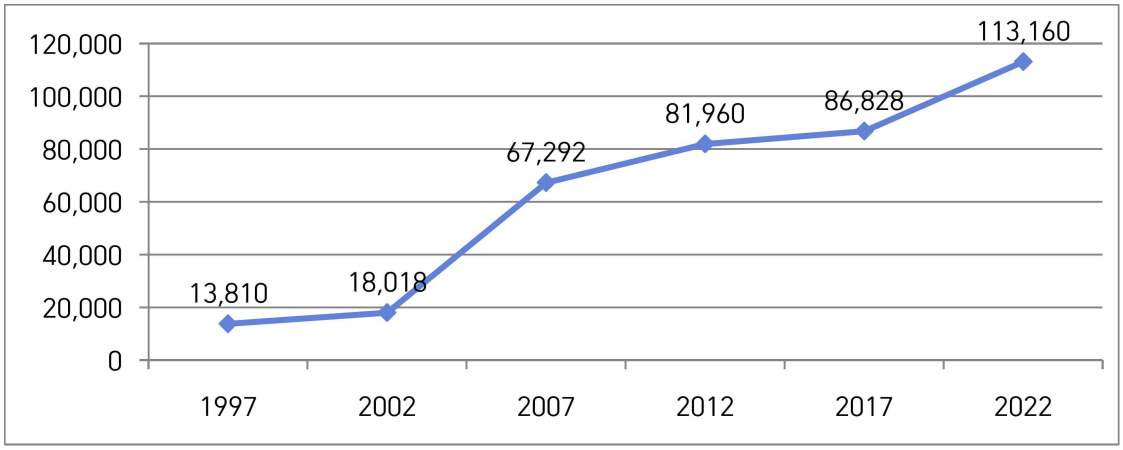


[그림 8] - 하성면, 월곶면, 대곶면 사업체 증가 그래프[146]

[그림 7]와 [그림 8]은 1990년대 후반부터 김포시의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이 활성화되고 농촌 지역으로 사업체들이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145) 김포군, 『제37회 김포군 통계연보』, (김포 : 김포군, 1997) p. 202; 김포시장, 『제45회 김포통계연보』, (김포 : 김포시, 2005) p. 252; 『제53회 기본통계』, (김포 : 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 2014), p. 244; 『제60회 기본통계』, p. 68, p. 218

146) 『제37회 통계연보』 p. 72; 『제45회 통계연보』 p. 86; 『제53회 기본통계』 p. 120; 『제60회 기본통계』 p. 104



[그림 9] - 정부안 소유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값 변화[147]

결과적으로 [그림 9]과 같이 정부안이 소유한 부동산의 지가는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상승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농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조건으로 인해 이 시기의 경영 방침은 가급적 토지 매매를 피하는 것이 되었다.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 덕분에 농지를 매매하지 않고 소유하고만 있어도 자산이 계속해서 증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 매매를 늦추는 것이 기대 수익을 높이는 이상적인 방법이 된 것이다. 이는 토지가 농경지가 아닌 부동산 투자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시기와 경영 방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1980년대에는 외부적 환경에 수동적으로 선택을 강요당한 결과라면 이 시기에는 기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농업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자본의 투자가 거의 없고 매년 꾸준한 수입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농업의 이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3세대 경영인들에게는 아버지 세대가 확보한 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유교적 명분이 농업 경영을 유지하는 심리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4. 맺음말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기별 농업 경영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0-40년대 김춘자는 남편 정기남이 사망하자 자신과 아들들의 생존을 위해 민영길과 결혼하여 A마을로 이주한다. 정몽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의집살이를 나갔다. 이후 어느 시점부터 상당한 땅을 소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0-70년대는 정씨 일가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이루고 땅이라는 재산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이다. 농지개혁 덕분에 상당량의 토지를 분배받게 된 정씨 형제는 이를 기반으로 계속 땅을 확장해 나간다. 특히 정몽수는 1950-60년대에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70년대에는 인삼을 재배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많은 땅을 경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사업을 전개한 것은

147) 정부안에게서 받은 토지 소유 정리표에 나와 있는 지번들을 사이트(부동산정보통합열람[Website] 2022, Oct 23 http://kras.gg.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에서 찾았다. 이 사이트에는 지번별로 평당 공시지가가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평균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만들었다.

농업인의 팽창적 경영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 대규모 농업이 진행되는데 일꾼과 여성 노동력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박영희와 정몽수가 각각 여자와 남자의 일을 관리하고 상당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특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영 확장의 행보는 1980년대 들어 멈추게 된다. 김포군의 산업화로 농업인구가 줄어 일꾼을 구하기 어렵워졌고 농업의 기계화로 기존과 같이 많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기계와 농사법에 대한 배움이 필요했지만 이를 주도할 사람이 없었다. 정몽수가 나이가 들면서 일을 줄였으며 큰조카 정부명과 작은아들 정부안은 일찍부터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농사를 맡기고자 했던 큰아들 정부경은 갑작스럽게 타지로 나가버렸다. 결국 많은 땅을 임차지로 전환했으며 직접 경작하는 땅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농사를 통해 얻는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던 반면 많은 인맥과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농촌 사채를 운영한다. 이는 정몽수가 노동력이 들지 않는 부수적인 수입을 찾은 것으로 당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대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임차지는 늘리고 자작지는 줄이는 농업 경영 방침은 1990년대 이후 본가로 돌아온 3세대 경영자들에게 이어졌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김포의 공업화와 인구증가로 하성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크게 수혜를 본 것이다. 즉 1980년대와 경영 방식 자체는 동일하지만 잠재적 이익은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명과 정부안은 아버지의 땅을 지킨다는 유교적 명분과 더불어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 토지 매매는 피하고 소규모 경작과 대규모 임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씨 일가의 정착과 확장, 축소와 유지의 과정은 농촌 몰락과 구분되는 개별 농가의 성장과 지속 경영의 모습을 보여준다. 1950-70년대 이촌향도에 따른 농업 인구 유출, 그리고 현대의 농촌 고령화와 농촌 소멸 문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몽수·정현 형제의 근면함, 정몽수의 사업 수완, 두 집안의 협력, 가족들의 희생, 정부명·정부안의 효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농기계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경작 비율이 크게 줄었음에도 최근까지 정씨 일가의 농업 경영이 좌초되지 않은 것은 하성의 지리적 요건과 시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발달에 따라 농촌의 거주민들이 이익을 보게 된 사례로 농촌과 도시의 경제적 호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씨 일가의 사례는 쇠락하는 농촌, 성장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도농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명과 정부안이 본가로 돌아온 것은 귀농과 농업의 세습에 있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경제력과 인간 관계가 주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1990년대 이후의 경영 방식은 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농지의 성격이 경작지에서 부동산 투자지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김포의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씨 일가의 농업 경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포군지편찬위원회, 『김포군지』, (김포 : 김포군, 19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70년』, (나주 : 농림축산식품부, 2015)

통계연보

김포군, 『김포군 통계연감 1991년 제1호』, (김포 : 김포군, 1991)

김포군, 『제37회 김포군 통계연보』, (김포 : 김포군, 1997)

김포시, 『제 39회 김포시 통계연보』, (김포 : 김포군, 1999)

김포시장, 『제45회 김포통계연보』, (김포 : 김포시, 2005)

김포시장, 『제53회 경기도 김포시 기본통계』, (김포 : 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 2014)

김포시장, 『제60회 경기도 김포시 기본통계』, (김포 : 김포시 기획담당관, 2021)

인터넷 자료

한국민족대백과사전[Website] 2022, Oct 2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0902)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Website] 2022, Oct 23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01083236;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01020573#2)

네이버사전 [Website] 2022, Oct 23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076653c7cef4e7bbb7b9adb3fc0d8b6

부동산정보통합열람 [Website] 2022, Oct 23 http://kras.gg.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제 3 부

“구술사료 수집 관리의 제도화”

발표1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구술사료 수집관리의 제도화

박준규(한양대학교)

1. 서론

한국에서 구술사료 수집관리 또는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1980년 말부터 시작된 한국 구술사 발전과 함께 한다. 역사학의 외곽에서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으로서 시작한 한국 구술사는 1990년대에서야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제적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다양한 과거사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사회적 효용성을 인정받아 하나의 학문 분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부터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의 대중화는 탈식민적 관점에서 미시사, 일상사, 신문화사 등등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영역을 다양화시켰고 그 결과물은 인문학의 붐을 타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2000년대부터는 기억연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구술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역사학자들의 구술사 연구는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산업화 전후 시기 지역사와 개인적, 집단적 기억을 연결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기억으로서의 역사가 대중화되며 역사 소비와 역사 상품의 시대가 도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윤택림 2020).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다큐멘터리, 역사 만화, 역사 대중서에서 생산된 팩션(faction)을 소비하는 역사교육의 현실이다. 이는 역사와 역사 소비 사이의 문제점을 야기했고 학자들은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대중 역사를 공공역사로 대체하여 역사의 대중화에서 나아가서 역사의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구술사료의 수집은 박물관, 전시, 역사교육,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등등 다양한 영역과 사업에서 활용되기 시작됐었지만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파악이 되어도 수집된 구술사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쉽게 공유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윤리 등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접촉이 되면서 법적 윤리적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주최와 기관들의 구술 자료 수집 기획과 생산이 활성화 되면서 구술자료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구술사료 수집관리의 공공성은 새로운 지식창출의 보고이며 구술 자료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학자-학생-시민-후속 세대를 위한 정보 활용 및 공유의 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구술사의 공공성은 개개인들이 모두 역사적 존재이고 개인적 삶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도출해내서 다원적 토론을 통해 도달한 과거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면서 재현의 민주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발표문은 구술사료 수집관리의 제도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외국사례를 기관 및 법적 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서의 구술사료에 대한 수집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책임 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외국 구술사료 수집관리는 주로 국립도서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지만 미국의 경

우 재향군인과 가족 및 민권운동에 대한 구술사료 수집관리는 특정 법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 한편 영국은 영국국립도서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National Life Stories(NLS)라는 독립재단이 다양한 주제의 구술사료 수집관리를 제도화 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과거청산과 관련된 특별한 주제에 대한 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제안이 제시된 후 정부의 지원으로 국립도서관이 구술사료 수집관리 프로젝트는 진행했다. 싱가포르는 구술사를 통한 건국 역사 편찬을 목적으로 국립아카이브에서 구술사료 수집관리의 제도화가 이뤄졌다.

2. 해외 공공 구술사료 아카이브 제도화 사례

1) 미국 의회도서관

사실상 미국의 국립 도서관인 미국 의회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크며 중요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1800년 존 애덤스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정부 소재지를 이전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당시 5천달러의 예산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1802년 대통령이 사서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서명하고 도서관 공동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규제하고 감독하게 하였다.

구술사료는 American Folklife Center (이하 AFC)가 중심이 되어 수집, 처리 및 관리하고 있다. AFC는 1976년 의회도서관 부속 기관으로 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1928년 미국 의회도서관의 Music Division Archive of American Folk-Song을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국립중앙도서관의 보고서(2019)에 의하면 AFC를 위해 Public Law 94-201, 94th Congress, H. R. 6673, January 2, 1976,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Folklife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라고 한다. 이 법령은 의회에서 공표하는 내용과 법령의 정의, 센터 설립과 위원회 운영, 센터의 기능을 담고 있으며, 의회도서관장이 이 법령에 근거하여 센터의 기능을 완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법령은 국가 아카이브로서의 설립과 유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 하고 있다. 1999년에 AFC는 Public Law 105-275, AFC permanent authorization을 의회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한편 2000년에는 Public Law 106-380, Veterans' Oral History Project Act가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전쟁 영웅, 참담함, 공포, 승리를 배울 수 있는 정보원을 미래 세대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의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의회도서관에 관련 기록자료를 컬렉션으로 만든다는 법령이다.

이후에는 Public Law 114-246, 114th Congress, H. R. 4511, November 28, 2016, Gold Star Families Voices Act가 제정됨으로써 Veterans' Oral History Project Act를 참전하여 사망한 모든 군인들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구술사까지 포함하게 수정 되었다. 또한 2009년 5월 12일에 미 의회에서 The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Act of 2009(Public Law 111-19)가 통과되면서 국가 주도로 시작된 민권 역사 프로젝트가 의회도서관과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와 협업으로 민권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여 서비스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 구술사의 법제도화 사례는 위에 언급된 4개 사업이다. 특히 미국 포크라이프 보존법은 아카이브 설립과 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구술사료 수집관리의 법제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머지 수많은 구술사 사업은 대학교, 재단, 시민단체 등등에 의해 수집되고 개별적으로 아카이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중앙 집중화 된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례는 2003년부터 시작한

StoryCorps라는 비영리단체의 대중적인 구술사 사업이다. 이 구술사 사업은 다양하고 평범한 미국인의 삶 이야기를 수집한 이후 구술사료를 미국의회도서관에 기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미국 구술사협회(Oral History Association) 홈페이지에 있는 영어 자료를 중심으로 한 주요 구술사 센터와 컬렉션 목록이 있다.

2) 영국국립도서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술 컬렉션으로 가장 많은 구술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영국국립도서관이다. 대영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 영국국립도서관은 1972년 영국도서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1973년 대영박물관에서 독립하여 지금의 국립도서관이 되었다. 흥미롭게도 영국 구술사학회가 같은 해에 공식으로 설립되었다. 구술사료에 관한 구체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술사료 수집관리는 영국국립도서관 구술사 섹션의 장서 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을 통해 구술자료 수집 목적, 수집 대상, 기탁, 구술 컬렉션의 역할을 비교적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구술사 섹션의 핵심 역할은 1) 영국 구술사의 지도적 역할 담당; 2) 관련 단체 및 학계 지원; 3) 이용자들이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수집한 자료 관리; 4) 다양한 매체로 구술사료 발행 및 사용 증진; 5) 구술사학회와 협력하여 구술사 방법 교육; 6) 구술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와 협력; 7) 다양한 문화유산 분야 단체의 구술사료 활용 활성화; 8) 지역 및 지방 구술사 사업 정보 교환을 통해 수집 중복 방지; 9) 국립도서관 내 구술사 방법 및 사업 증진; 10) NLS와 국립도서관, 그리고 외부 구술사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11) 구술사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이다(British Library 2014).

영국국립도서관 구술컬렉션은 영국 최대의 구술 컬렉션을 구축하고 영국 내 구술사의 중심기관으로서 표준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제공 및 타 기관의 구술 아카이브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Sounds라는 디지털 카탈로그 내에 구술사를 포함하여 공유하고 있다. Sound & Moving Image Catalogue 검색 엔진을 통해 음성, 비디오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제, 장소, 언어, 수집, 생산연도 등 상세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이 방대한 구술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술사 섹션이 1987년 독립적으로 설립한 재단인 National Life Stories(NLS) 때문이다. 구술사 Paul Thompson과 Asa Briggs에 의해 시작된 NLS는 처음에는 National Life Stories Collection이란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2005년 NLS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NLS는 영국인의 삶에 대한 구술사료를 주제별로 수집하고 있다. 첫 사업은 1988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새로운 인터뷰를 추가하고 있는 Leaders of National Life 이다. The Living Memory of the Jewish Community가 같은 해에 시작하여 1999년까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NLS는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생존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186건의 구술 음성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후 온라인에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은 2015년 Save Our Sounds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영국 전역에 퍼져 있는 488개의 소유기관 및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3,015개의 음성자료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내목록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구술사료는 이 중 가장 큰 부분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3) 호주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은 1901년 의회도서관으로 시작하였다가 1960년 의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도서관에서 분리되어 1968년 국립도서관 건물이 완공되면서 출발하였다. 호주 또한 구술사

료 수집관리를 제도화하는 법은 따로 없고 국립도서관의 장서 정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구술사 프로젝트가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제안에 근거하여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호주국립도서관은 5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술사료는 Oral History and Folklore와 Indigenous 이라는 2개의 컬렉션에 속해 있다. Oral History and Folklore 컬렉션에는 호주 유명인들과의 구술사 인터뷰, 평범한 호주인들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주제에 대한 인터뷰 및 호주의 민속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한 분야에서 국가적 명성을 얻은 호주인, 두 번째 인종, 직업, 특정한 장소 거주인, 소아마비 경험 등 같은 경험을 공유한 호주인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사 인터뷰, 마지막으로 호주의 사회적, 언어적,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 하는 민속자료가 포함된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대표적인 구술사 프로젝트는 Forgotten Australian and Former Child Migrants Oral History Project이다. 이 구술사 프로젝트는 2001년과 2004년 상원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2개의 보고서의 제안에 의해 호주 연방정부의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가 지원하고 호주국립도서관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이 직접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시작부터 협력자로 참여하고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구술사 프로젝트로는 Monash University의 Alistair Thompson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Australian Generation Project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로 진행된 구술사 프로젝트이다. 면담자와 1대1 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되었다. 면담자에게는 시간당 100달러와 여비, 조사 시간에 대한 추 가 비용이 지급되는 반면 구술자들에게는 인터뷰 사례를 지급하지 않는다. 생산된 구술자료에 대한 접근은 구술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면담자가 접근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Indigenous 컬렉션에는 원주민 자녀 강제 분리정책으로 피해를 본 원주민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2까지 진행 된 Bring Them Home Oral History Project 구술사료이다.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정부에 의해 자행된 원주민 자녀 강제 분리정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이와 관련된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1997년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원주민보호위원회(ATSIC)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고 Link-Up (NSW) 단체는 쇼아재단의 나치 홀로코스트 피해자 구술사 프로젝트를 모델로 한 원주민 구술사 아카이브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고하였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1997). 이후 호주 정부는 호주국립도서관이 제안된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4) 싱가포르 국립아카이브

싱가포르 구술사센터(Oral History Centre)는 비공식적으로 1978년 문화부의 구술사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다가 1979년 구술사단(Oral History Unit)으로 공식 출범하였다(Wong 2017). 구술사단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을 인터뷰하여 권위 있는 싱가포르 건국 역사를 편찬 하는 것이었다. 이 후 1981년 조직이 개편되어 아카이브 및 기록물 센터(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Centre, NARC)와 병합되어 the Archives and Oral History Department (AOHD)가 되었지만 목적은 변함이 없었다. 아카이브 및 기록물 센터는 싱가포르 국립아카이브의 전신으로 1967년에 제정된 “국립아카이브 및 기록물 센터법”에 의해 1968년에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OHD는 싱가포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전 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일반인을 인터뷰하였다. 1985년 AOHD는 국립아카이브와 Oral History Department으로 분리된다.

1993년 Oral History Department는 구술사센터로 명칭이 바뀌며 다시 싱가포르 국립아카이브(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의 산하 기구가 되었다. 그리고 1993년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예술작품, 문화유물 및 중요한 역사적 기록 등을 보존, 전시, 출판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예술공보부 산하 국립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가 구성되면서 싱가포르 국립아카이브와 국립박물관이 산하 기관이 된다. 이후 2012년 싱가포르 정부의 조직개편에 의해 국립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로 이관하여 국립도서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구술사를 통한 싱가포르 건국 역사 편찬이라는 목적을 가진 구술사센터는 첫 사업으로 1945년부터 1965년까지의 싱가포르 정치발전사(History of Political Developments in Singapore 1945-1965와 싱가포르의 개척자들(Pioneers of Singapore)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술사 연구 경험을 취득한 후 일본점령기에 대한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The Strait Times 1979년 12월 15일). 그러나 어떤 배경에 의해 싱가포르 정부가 구술사를 통해 건국 역사를 편찬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기가 어렵지만 1978년 유니버시티칼러지런던에서 아카이브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릴리 탠(Lilly Tan)이 NARC 센터장 대행이 되자마자 구술사단이 만들어졌고 1985년 공식적으로 센터장이 된 후 2001년까지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구술사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릴리 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Tan 2019). 더 나아가 구술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UNESCO의 도움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난다(Business Times 1979년 12월 15일).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의 구술사료 수집관리 제도화 과정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립도서관으로 집결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처럼 구체적인 법에 의해 구술사료 수집관리를 제도화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호주처럼 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의 제안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립도서관이 구술사료 수집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반편 국립도서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대학교 연구팀 또는 자선재단 또는 비영리재단이 구술사료를 수집하고 관리는 국립도서관이 하는 사례도 있다. 마지막 유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요 국립아카이브를 통해 구술사료를 수집관리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구술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아는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 발표는 외국의 구술사료 수집관리 제도화를 기관과 법적 틀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위한 구술사의 제도화는 구술사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또한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이 직면한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이슈로는 개인정보 공개,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개인 및 조직에게 적용되는 유럽의 데이터보호법과 이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있을 수 있고 구술사와 인문사회과학 연구와 거리가 먼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IRB 제도도 이슈가 된다. 비록 본 발표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2019.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윤택림. 2020. 개인적 서술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구술사와 공공역사. 구술사연구 제11권 1호, pp. 9-45,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1997. *Bring Them Home Report*. https://humanrights.gov.au/our-work/bringing-them-home-report-1997
Blackburn, Kevin. "History from Above: The Use of Oral History in Shaping Collective Memory in Singapore". In Paula Hamilton and Linda Shopes, eds. *Oral History and Public Memories*, pp. 31-46.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British Library. 2014. The British Library Oral History S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1. *Lost Innocents: Righting the Record - Report on Child Migration*.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4. *Forgotten Australians: A Report on Australians who experienced institutional or out-of-home care as children*.
Tan, Fiona. 2019. "Pioneers of the Archives". *BiblioAsia* Vol. 13, No. 1, pp. 56-59.
Wong, Mark. 2017. "Voices That Remain: Oral History Accounts of the Japanese Occupation". *BiblioAsia* Vol. 15, No. 1, pp. 14-20.

신문 기사

Business Times. 1979년 12월 15일
https://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Article/biztimes19791215-1.2.12.4
The Strait Times. 1979년 12월 15일
https://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Article/straitstimes19791215-1.2.48

인터넷 사이트

American Folklife Center. https://www.loc.gov/folklife/index.html
British Library Oral History. https://www.bl.uk/collection-guides/oral-history
Library of Congress. https://www.loc.gov/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https://www.nla.gov.au/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https://www.nlb.gov.sg/main/home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https://corporate.nas.gov.sg/
Oral History Association (US). https://oralhistory.org/

Oral History Australia. https://oralhistoryaustralia.org.au/
Oral History Society (UK). https://www.ohs.org.uk/
StoryCorps. https://storycorps.org/

발표2

구술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I. 들어가며 – 디지털시대의 구술사, 구술자료 그리고 민간기록물

본 연구는 한국에서 구술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이 공공/민간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정부 법령 및 지자체의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에 규정된 구술자료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구술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적 방향을 시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시대 대중의 역사소비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구술사 연구단체, 공공기관, 학회가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구술자료 수집 사업에 참여 혹은 자문을 통해 지역 기록수집 담당그룹과 신뢰를 형성하고, 구술자료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구술채록이 지닌 중요성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지역으로부터 공공의 역사, 구술사 쓰기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자체 민간기록물관련 조례에 구술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 등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간 거시적 차원의 구술사 전문기관의 필요성이나 이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 마련 등이 술자료센터, 구술사종합연구센터, 구술사통합검색시스템 등 여러 이름으로 제안되어 왔다.[148] 이런 제안이 구체화된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성장하고 대중적으로 폭 넓게 활용되기 시작한 구술자료수집과 구술사 연구가 존재한다. 특히 2010년대 이후 공공기관 구술자료 수집은 이제 각종 구술자료 관련 서식, 매뉴얼, 관리 등에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역사적 자료로서 구술자료를 수집한데서 일보 전진해, 역사쓰기, 전시, 마을공동체의 역사, 르포타쥬, 도시재생,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대중의 역사쓰기 참여가 다양해졌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립예술자료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영상자료원, 국립외교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기록을 수집, 분류하고 정리해왔다.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서 구술자료의 수집과 구술사를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사, 지방사 등에서도 구술자료 수집은 당연한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한 자료의 영구적 보존 및 문화콘텐츠로 활용도 모색 중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자료들이 수집, 정리, 분류, 보관되어 왔다. 이 점은 구술자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작된 구술자료의 수집 작업은 국립예술자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영상자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정부 유관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을 필두로 한 큰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로 이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사 연구나 시사, 군사 등 지방지 편찬 과정에서도 구술자료 수집은 빠지지 않는 연구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앞서 지적한 공공역사 차원에서 전시, 연구, 교육, 미디어 활용 등 다차원적인 구술사, 구술자

*이 발표에서 국내 구술자료 수집 현황에 대한 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김선정, 윤충로, 송치욱 선생님이 수행한 결과물이다. 어려운 조사를 수행해주신 점 다시 감사드린다. 3장에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지자체 조례와 도서관법 등에 대한 정리를 조언해주신 이호신(한성대학교)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148) 윤택림(2015)와 현대한국구술자료관(2020)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된 바이다.

료의 수집과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2020년대는 '아카이브의 전성시대'이다. 아카이브 용어는 흔히 기록보존물 혹은 기록보존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독일어권이나 라틴어권에서 아카이브라는 용어의 의미는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춘 기록물과 기록물 보존소를 전체를 뜻한다. 유럽과 미국의 대학연구소, 박물관 혹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놓은 장소와 조직을 흔히 아카이브라고 통칭한다(이상현 2011, 130). 자료의 집적, 수집, 보관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점차 여러 영역의 자료를 기획, 수집, 관리 그리고 활용에 이르는 넓은 의미로 아카이브는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학술논문 등에서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수집된 구술자료에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혹은 수집된 자료가 교육이나 연구 등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수집된 자료가 잘 보존되고 이를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지 자문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보관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나 매뉴얼조차 부재한 시기에 비해선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연구자/연구기관 및 연구프로젝트에서 진행되는 구술자료 수집은 목적의식을 지닌 기획을 통해 면담의 준비, 면담의 실행과 결과물의 정리 등의 절차를 어느 정도 거치게 됐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해 제대로 된 기획과 절차를 거쳐 구술자료가 수집되고 있고, 그 결과물도 검독이나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관리된다는 의미이다.

구술자료는 문헌자료와 성격은 다르지만, 동등한 기록물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 구술자료의 아카이빙은 그 단계로 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구술사 연구는 크게 2번의 결절점을 거쳐 현재 다다르고 있다. 첫 번째는 '묻기에서 듣기'로, 다시 말해서 구술자료의 구술성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기획/수집 과정에서 진전시켰던 단계였다. 다른 한 단계는 현재 진행 중인 '수집에서 활용으로'이다. 바로 수집된 구술자료를 어떻게 연구, 전시, 콘텐츠 및 교육 등으로 연결시켜 기록물로서 활용하느냐는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활용이란 문제의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 디지털시대 대중이 스스로 역사를 소비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지역, 공동체에서 스스로 역사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등장중이다. '공공역사'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런 흐름은, 지역공동체 속에서 과거에 대해 작업을 하며 구술 인터뷰,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기억들을 상기하기, 자료들의 수집과 보관, 박물관과 전시관의 창조, 여러 곤혹스러운 과거 및 이에 대한 해석들과 대면하기 등을 통해 가시화되는 중이다. '역사를 문화적 기억의 공간'으로 재개념화 하자는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전문 역사 연구 및 교과서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박물관 및 전시관 종사자, 저널리즘, 영상매체 종사자 및 IT산업, 심지어 게임 산업 종사자들과의 탈학제적 작업을 목표한다(나인호 2018, 77-78).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지역에서 역사쓰기의 주체인 역사교육학 분야의 전문가, 프리랜서 역사가, 박물관 큐레이터, 기록관리사(archivist) 등이 속한 기관들의 참여와 소통은 구술사가 당면한 또 다른 숙제일 수 있겠다.

이 점에서 디지털시대의 공공역사는, 다양한 역사 재현의 대중적 소비와 언젠가 구술사의 자료가 될 것인 각 개인의 기억들을 연결하는 피드백을 만드는, "어떻게 역사가 실행되는가?(how history is performed?)"란 문제의식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편 가까운 과거를 (새로운 매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재현하며 다른 한편 가까운 과거에 대한 담론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면서, 가까운 과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증진시키는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나인호 2018, 85).

다시 한국의 현실로 되돌아와 보면, 과거보다 개선되었지만 연구자가 찾는 구술자료가 어느 기관에,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간단치만은 않다. 이전보다는 상세목록이나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어떤 성격의 자료이며, 이것이

기존 자료에 비해 무엇을 드러내어 주고 있는지 각 구술자료 수집기관/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시된다. 디지털 문화의 확산 이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술채록, 구술인터뷰에 기초한 역사쓰기, 문화콘텐스,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고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 개인정보법,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윤리 등 기왕에 점검된 구술자료와 구술사를 둘러싼 제도적 논점과 더불어[149], 향후 시민사회에서 구술자료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출발점으로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국내 구술자료 수집, 관리 현황을 2019년부터 진행된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의 국내 기관 전수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지자체 민간기록물 조례에서 규정된 구술자료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구술자료/구술사 전문기관 설립이란 제도적 기반 구축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역/일상에서 구술채록이 지닌 중요성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에게 널리 알리고 거기서부터 구술사 쓰기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자체 민간기록물관련 조례에 구술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 등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공공역사 시대에 한국 구술사가 지닌 밑으로부터 실천이란 미덕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소결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II. 국내 구술자료 수집, 관리, 활용 현황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학계에서는 구술사가 연구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2010년대 이전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적지 않은 녹음 테이프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거나 자료화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고 활용 계획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윤택림 2019, 296). 이제 상식이 되었지만 구술자료는 면담의 원자료인 음성/영상뿐만 아니라, 면담 및 연구과정에서 동반되는 문서, 사진, 박물자료 등까지 넓게 포괄한다. 2010년대 이후 수집자료의 경우 다양한 활용을 위한 최소한 서식이나 양식이 널리 공유하고 구술자료 결과물은 현재 공공연구기관 이외에도 여러 연구기관/단체에서 이전에 비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은 과거 2009년에 총 26개에 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구술 자료 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150] 최근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조사 작업이 있었으며(선영란 2019),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현대한국구술자료관에서 다시 1,2차에 걸쳐서 공공기관, 지방정부 산하단체, 대학연구소 등 56여 곳 이상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기관 및 단체명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구술사 관련 조사대상 단체, 기관>

149) 기왕의 쟁점에 대해서는 박준규(2022)는 피해자중심 접근, 공공연극 등 사례를 통한 구술사의 공공성 문제, 법적 증거와 강제적인 공개(강제소환), 형사재판에서 사실조사 절차 등을 다루었다. 이호신(2017a, 2017b) 등 연구를 참조.

150) 2009년에 조사한 2009년 총 26개 기관으로, 단체은 아래와 같다(무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5·18기념재단, 강원발전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구,부천만화정보센터), 서울대 한국교육사고,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아르코여성사전시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영상자료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전남대 5·18연구소, 전주문화재단,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대구KYC), 한국청년연합(천안KYC).

조사 연도	조사 단체, 기관명(괄호안은 조사일자)
1차 조사(2019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2019.10.11.) 서울역사편찬원(2019.10.11.) 국립한글박물관(2019.10.29.) 군사편찬연구소(2019.10.29.) 부산민주공원민주주의연구소(2019.11.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9.11.27.) 4.9통일평화재단(2019. 12. 19) 대한민국역사박물관(2020.01.04) 부산시청도시재생균형국(2020.02.04.) 부산 임시수도기념관(2020.02.04.) 국립해양박물관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사이버도서관 용인문화원 부산시사편찬실(2020.02.06.) 아르코예술기록원(2020.02.11.) 통일연구원(2020.02.19.) 순천대 여순연구소(2020.02.20.) 여수지역사회연구소(2020.02.20.)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2020.02.24.) 부마항쟁기념재단(2020.02.25.) 국립국악원(2020.02.20.) 한베평화재단 인천계양문화원
2차 조사(2020-21년)	수원문화원(2021. 3. 16.) 수원박물관(2021.3.9.) 제주 4.3연구소(2020. 8. 28) 제주 4.3평화재단(2020. 8. 28.) 무형문화연구원(2020. 8. 6.) 5.18기념재단(2021.2.26.) 5.18연구소(2021.2.26.) 국사편찬위원회(2021. 1.) 서울대학교사회과학자료원(2020.7.29.) 평택문화원(2021. 3. 12) 홍성문화원 사회적기업 더페이퍼(2020. 11.) (재) 대구여성가족재단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김대중도서관 사료관 국가보훈처 한국노동연구원 독립기념관

	헌법재판소 한국영상자료원 안산시(산업역사박물관)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서울역사박물관 인천연구원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충북여성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라북도립 국악원 경북여성정책연구원

* 출처: 김선정, 윤충로, 송치욱(2021)에서 재구성

2019년~2021년 1, 2차 조사에서 주되게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19년 이후 조사한 구술자료 수집기관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래 <표2>와 같다.

① 구술 자료 주제·내용 ② 현재 보유 하고 있는 구술 자료에 대한 개황 설명: 구술자 수, 시간, 자료집 발간 상황 등 ③ 구술 자료 수집 과정 : 프로젝트 혹은 실제 수집과정의 특성

- 구술 조사 배경과 구술 자료의 특성
- 구술 자료 생산 작업 : 구술 면담자, 구술 면담 시기 및 기간, 당시 예산 규모와 지원처 등
- 구술 자료 정리 상황 : 구술 공개·활용동의서, 구술자인적상황, 공개 범위, 녹취록 등 서류와 절차
- 현재 자료 상황 및 자료 활용 계획: 자료 보관 현황과 출판·아카이브 계획 등

<표2: 수집 구술자료의 자료화 상황>

1	부산시청 도시재생균형국 (2020.02.04.)	- 부산 지역사 - 마을재생사업과 연계	- 2010년부터(각 구청과 협업) - 용역사업으로 진행	- 관련 서식중 일부를 갖추지 않음(면담자 등 수집주체가 자체 진행)	- 자료집 출간 - 기타자료는 면담자 등 수집주체가 관리
2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2020.02.04.)	- 한국전쟁기 임시수도 - 피난민, 이주민 삶	- 2차례 이루어짐 - 2013년 밀면, 2014년 피난민, 이주민	- 관련 서식을 갖추지 않음 (기관의 목적이 구술자료보다 전시임)	- 자료집, 연구서 2권 출간, 다른 자료는 남아있지 않음
3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2020.02.20.)	- 여순사건 - 여수지역사 - 생활문화사	- 1996년부터 여순사건 구술조사로 시작 - 2007~2009 향토마을지 조사	- 구술동의서 등 구술자료생산기본원칙	- 2013~2016년 영상생산, 이후 녹음 파일만 - 보고서(증언채록집) - 2003년 이전 자료 일부 소실
4	인천계양문화	- 지역사, 지역문화	- 2018년부터	- 개인정보, 자료활	- 2018년부터 주민

	원	- 주민들 구술		용, 면담자, 구술자 신상정보	20여명 구술(녹취록/사진) - 아카이브 자료화 되지 않음
5	수원문화원 (2021. 3. 16.)	수원지역 사람들과 문화관련 자료	2008년부터 부정기적 계속 진행	비공개 자료(구비서류 일부 미비)	사진자료 및 책자 발간
6	5.18기념재단 (2021.2.2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정신계승 관련 자료	2000년경부터 시작	2010년 이전자료 서식 미비	2010년 이전-녹취록, 사진, 음성자료 중심 -녹취록은 대부분 작성(일부는 원본아닌 편집본)
7	평택문화원 (2021. 3. 12)	평택지역 문화 보존과 지역사료 수집	2009~2010년「평택민속지」편찬과정에서 일부시행 2014년 이후 본격 시행	구술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구술자료활용동의서, 구술자신상정보, 면담자신상정보 등(개인정보활용동의서, 구술자료 활용동의서는 수집에 어려움 겪어 일부 미비)	음성. 사진, 녹취록 조사보고서(자료집)
8	홍성문화원	홍성지역 문화 보존과 지역사료 수집		초기 서식미비 2019년 이후 서식 갖춰 수집	
9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자의 실태, 상황에 대한 연구를 위해 면담	- 2009년 중고령자 - 2013년 숙련공(명장)에 대한 생애사 - 2020년 기계산업 숙련공	- 녹취록 보존	- 보고서(구술자 실명 공개 안함) - 구술자료 연구자 보관
10	독립기념관	- 강제동원피해 - 독립운동가생애사	- 2004년부터	- 동의서 모두 갖추지는 못함. 테이프, 녹취문 보존	- 구술자료 CD

*출처:김선정, 윤충로, 송치욱(2021)에서 재구성

1) 도시재생균형국: 2010년부터 각 구청과 협업을 통해 구술자료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구술자료 동의서, 활용동의서 등 서식이 일부 갖춰지지 않았고 면담자 등 수집주체가 자체적으로 자료화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2013년 밀면, 2014년 피난민, 이주민을 주제로 구술자료를 수집했다. 자료집, 연구서 2권을 출간했지만 다른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구술자료 기본서식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는 기관의 목적이 구술자료보다 전시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6년부터 여순사건 구술조사로 시작해 2007~2009년에는 향토마을지 조사가 이뤄졌다. 2003년 이전 자료는 일부 소실됐고, 진화위 요청으로 테이프를 디지털해 진화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탈화/자료화가 현대한국구술자료관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4) 인천계양문화원: 크게 지역사, 지역문화에 관한 주민들 구술에 기반한 자료집 출간이 주된 목적이다. 2018년부터 주민 20여명 구술이 이뤄졌지만 자료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5) 수원문화원: 수원지역 사람들과 문화관련 자료를 주로 수집하며 2008년부터 부정기적으로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구술자료는 비공개 자료(구비서류 미비)이며 사진자료 및 책자 발간 책자로 발간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있다.

6) 5.18기념재단: 2000년경부터 구술자료 수집 시작해 왔다. 2010년 이전 구술자료의 경우 서식이 미비되었지만, 그 이후 서식을 갖춰 구술자료 수집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7) 평택문화원: 평택지역 문화 보존과 지역사료 수집이 목적인데 2009~2010년 「평택민속지」 편찬과정에서 구술자료 수집을 일부 진행했고,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중이다. 서식 가운데 일부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구술자료 활용동의서는 수집에 어려움 겪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8) 홍성문화원: 홍성지역 문화 보존과 지역사료의 수집이 목적으로 2019년 이전 초기 구술자료의 경우 서식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

9) 한국노동연구원: 2009년 중고령자, 2013년 숙련공(명장)에 대한 생애사, 2020년 기계산업 숙련공 등에 대한 구술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녹취록은 보존하고 있고 보고서(구술자 실명 공개 안함)가 갖춰져 있지만 구술자료는 연구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독립기념관: 2004년부터 강제동원피해/독립운동가 생애사를 중심으로 구술자료 수집이 이뤄졌다. 다만 동의서를 모두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대 이후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공공/민간기관의 경우 구술동의서, 활용동의서, 구술자 신상정보 등 서식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상당수 였다.[151] 동시에 구술자료 수집, 관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도 있다.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지만 구술자료 수집을 진행 중인 공공/민간기관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1) 구술동의서, 활용동의서, 상세목록 등 구술자료 관련 서식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2) 자료집, 출판 등 목적으로 구술자료 수집이 이뤄져 출판, 전시 등 결과물이 나온 뒤에 별도 자료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자료가 관리/활용되기 어려운 조건인 경우, 3) 2000년대 전후로 오래전에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자료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녹취록, 동의서, 활용동의서 등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III. 제도적 측면에서 본 구술자료: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그리고 조례

1. 공공기록물과 도서관법[152]

그렇다면 구술자료는 기록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안타깝게도 2022년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구술자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동법을 보면, 제2조(적용 범위)에서 "...

151) 인용된 단체, 기관의 경우, 자료집 발간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경우 시기별로 구술자료 서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된 경우 등이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현지 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추후 추가조사로 보완할 것이다.

152) 이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검색한 것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강조 인용자).

또한 동법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의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서도 "국가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기준을 강조하는 데, "...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에 '민간기록물'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먼저 제11조 제5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을 규정함에 있어 제7호에 "관할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10장에서는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라는 제목으로 장을 구성하고, 제43조에서 제46조에 걸쳐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하지만 「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술자료' '구술기록' 등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법령에 명시적인 구술채록이나 구술자료에 대한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

다만, 동법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에는,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테이프, 비디오 등 영상자료의 범위에 구술자료의 음성/영상자료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 가능하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외에 공공자료로서 '도서관자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역시 넓게 보면 시청각자료 등 지식정보 저널을 목적으로 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내에 구술자료가 포함된다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기록물 관련 법령에 구술채록, 구술자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이는 아직 구술자료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상황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반면 2010년대 이후 제정된 시도군구 지자체의 민간기록관리 조례에는 상당수가 "구술채록"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2. 민간기록물 관련 지자체의 조례[153]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설립은 지방기록물관리에 관한 주목과 더불어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을 이끌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민간기록물이나 기록관 등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4]

한편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내용을 제46조2

153) 이하 민간기록물관련 지자체 조례는 모두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검색한 것이다.

154) 2절에서 다룬 민간기록물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이정은 외(2020)의 연구결과를 정리, 보완했고, 2021년과 2022년 새로 만들어진 조례의 경우 별도로 찾아 정리한 것이다.

조항으로 신설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또한 제10장에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라는 제목으로 민간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로 전부 개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만을 범주로 하고 있지만, 2006년의 개정 법률은 기록관리의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에서 '공공성을 가지는 기록물'로 그 범위가 변화됐다. 그럼에도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구분에서의 핵심은 '기록물 의 생산주체'이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인정되는 기록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을 위한 최소한 관리 양식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화되고 있다. 여기서 지자체의 '조례'가 지니는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조례란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하위법으로 성격을 지닌다.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지역 사회 상황에 맞는 규범을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즉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각 지역의 공공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색과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대한 자치권은 조례의 제정을 근거로 한다.[155)]

지자체별로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의 제정 시기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2022년 11월까지 총 26개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2008년 제정), 인천광역시(2012년 제정), 충청북도 괴산군(2013년 제정), 서울특별시(2014년 제정), 경상남도(2017년 제정), 청주시(2018년 제정), 전라북도(2019년 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9년 제정), 대구광역시(2019년 제정) 등이며, 교육자치단체로는 경기도교육청(2017년 제정)과 대전광역시 교육청(2017년 제정)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만들어진 사례들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 3> 지자체별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07.01
2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8.09
3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05.03
4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2019.05.13.
5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06.07
6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2019.07.01
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09.30
8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2.06
9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0.02.14
10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2020.03.02.
11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7.10.
1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2020.12.31
13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03.19
14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03.31.
15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2021.07.01.
16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7.30
17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전라북도	2021.09.17.
18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경기도	2021.12.13
19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2021.12.24.
20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06.30.
21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06.30.

155) 이정은 외(2020, 125-127).

22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경기도	2022.08.12
23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09.20.
24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09.30.
25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22.10.07.
26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2022.10.14

우선 원론적으로 위의 조례들의 기본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각 지역의 조례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민간기록물은 시민적 관심, 역사적 의미, 문화적 자산 등 목적 아래에서 수집되는 듯 하다.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조례 목적은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키워드로 하기도 하고,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조례에서는 기록물의 활용을 규정하면서 수집된 민간기록물이 지식정보자원으로, 성남시와 양산시 조례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범례를 들면;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2018년 5월에 개관했는데 2017년에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했다. 파주도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 끝으로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16년도부터 구축 계획이 수립되어 2019년에 개관한 '남원다움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조례이다.

다음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후술하겠지만, 지자체의 민간기록물 조례에는 구술채록의 정의, 수집방법의 하나로 명시화, 예산 및 기록사 명시, 구술채록을 포함하는 사료수집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술자료를 포함한 지자체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해당 자치단체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정책 및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한 기본계획, 즉 수집계획의 수립, 수집대상, 수집요원 등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주시와 파주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운데 전주시를 보면; 제5조 (수집대상)에서, ① 수집대상은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고 정했다. 전주의 경우 앞서 강조한 역사적 가치/시민적 관심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 ... 1. 전주시의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전주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방법>도 각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집방법의 원칙을 '기증' 혹은 '기증과 위탁'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수집방법으로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으로 정해, 수집방법 가운데 하나로 구술채록을 명시적 적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수집주체>인데 조례에서는 필요한 인력 규정을 민간기록물조사위원, 기록조사원, 시민활동가 등 혹은 '전문인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구술채록에도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로 몇 가지를 들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6조에는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기간을 정하여 둘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했다. 또한 성남의 경우, 아카이브 차원에서 "전문인력"과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남시 도시역사

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제4조 (전문인력)에서, “ …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조례에서 규정했다.

다음으로, 민간자료 수집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는 조례가 대부분이었다. 지자체별로 명칭은 민간기록물자문위, 자문위, 기록관운영위 등 다양한데, 후술하겠지만 이들 위원회를 통해 구술채록 여부, 예산 등을 포함하는 심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전주 민간기록물 자문위의 경우,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구술채록비 산정, 그 밖에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다. 이는 경상남도도 유사한데,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도시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마다 대동소이하다.

끝으로 <관리>에 있어서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는 보존/관리 장소 등에 대한 규정이 일정하지 않다, 앞서 본 것처럼 구술자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후 아카이빙, 활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서식, 목록 등을 지닌 자료화이며, 동시에 자료화된 자료들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간기록물의 보존 장소는 유휴 공공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이 활용되지만,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서고 및 수장고의 기본 규정과 이를 위한 예산의 지원과 관련한 조항 또는 규칙 및 규정이 모든 조례마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성남시, 양산시는 조례에 아카이브 기록물 수집 및 자료의 보관을 명시하는 조항에서 시공립 박물관과 양산시립박물관으로 그 보관 장소를 명시하고 있다. 파주시 조례에서는 기록관의 명칭을 ‘파주 라키비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파주시조례 제17조 제2항), 기존의 파주 중앙도서관에 디지털기록관 공간도 구축할 예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민간기관, 개인이 수집한 구술자료를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보관장소는 많지 않은 상태로 추정된다.

3. 구술자료 관련 지자체의 조례의 검토

구술자료/구술채록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조례>에서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후술할 전주시, 경상남도, 순천시 조례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정의를 언급하면서 ‘구술채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남도의 조례의 경우에도 민간기록물–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 기록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더불어 수집방법에서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과 함께,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구술자료의 ‘정의’에 대해 언급한 대부분 조례에서는 국가기록원 규정을 따라, 구술채록 정의를, “면담 등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으로 공통적으로 조례에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수집 및 관리절차」에서 규정하는 ‘구술채록’을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 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준용한 것으로 추정된다.[156)]

앞서 개괄적으로 소개한 민간기록물에 대한 조례가운데 도, 시군구에서 구술채록, 구술자료에 대하여

156) 이정은 외 2020, 149

조례에 명시적으로 기록한 경우는 20여건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네 가지 정도 범주에 따른 분류는 아래 <표4> 참조).

<표 4: 지자체 조례의 구술자료 관련 조항의 유형>

	구술자료 관련 내용	조례명	조례내 구술자료 관련 내용
기본적 내용 포함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의, 수집방법, 구술채록의 정의, 구술채록물에 대한 구술자 동의, 구술채록 예산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의, 수집방법, 구술채록의 정의, 구술채록물에 대한 구술자 동의, 구술채록 예산 관련 위원회 설치
		담양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구술채록의 정의, 민간기록물 수집의 방법(구술자료 수집 주체, 예산,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기록물에 구술채록이 포함된다는 것만 정함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의, 수집방법, 구술채록의 정의, 구술채록물에 대한 구술자 동의, 구술자료 관리(사전동의), 구술채록 예산 관련 위원회 설치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기록물에 구술채록을 포함, 수집방식, 수집시 구술자 동의 확보, 구술채록 결정, 예산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용어의 정의, 구술채록을 수집범위에 포함시키는 점, 구술자의 의사 존중, 구술채록 수집 여부 및 구술채록 비용 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	용어 정의, 수집범위, 수집시 구술자 의사 존중, 구술채록을 위한 위원회 설치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정의, 수집범위, 수집시 구술자 동의, 구술채록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의, 수집방법, 구술채록의 정의, 구술채록물에 대한 구술자 동의, 구술채록 예산 관련 위원회 설치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의, 수집방법, 구술채록의 정의, 구술채록물에 대한 구술자 동의, 구술채록 예산 관련 위원회 설치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의, 수집방법, 구술채록의 정의, 구술채록물에 대한 구술자 동의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의, 수집방법, 구술채록의 정의, 구술채록물에 대한 구술자 동의, 구술채록 예산 관련 위원회 설치
구술채록에 대한 독자적 장 포함	역사적 사실정보 수집, 시민의 관심에 대한 환기 등을 근거로 구술채록을 진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신안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구술채록'이란 독자적인 조례 장을 마련해서 역사사실 수집의 방법이자 구술자의 역할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마을기록물"이란 차원에서 구술채록, 구술시청각기록물 규정, 구술채록이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다수 시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시민의 기억을 기록하도록 정함, 마을기록인의 역할로서 구술채록
활용에 대한 내용 포함	스토리텔링, 교육, 학습, 전시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시정과 도시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리, 교육, 학습, 전시 구체적인 '활용' 문제를 명시적으로 정함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 지역공동체의 스토리텔링, 교육, 전시, 연구및 전문인력 명문화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한 수집, 조사에 대해 규정(구술채록 포함)
기록관 차원의 조례 제정	기록관, 기록문화관 등에 대한 조례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할 것으로 명시, 기록물 수집방법으로 구술채록, 연구용역 등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마을기록문화관에 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	수집 대상 민간기록물의 목록의 하나로 구술채록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그 기준으로 시민적 관심, 학술적 조사, 역사적 가치 등을 제시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록원장 관련 조례, 민간기록물의 구입비용, 평가단 구성, 수집요원 명시화

첫 번째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의, 수집방법, 구술채록의 정의, 구술채록물에 대한 구술자 동의, 구술채록 예산 등이 조례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향후에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는 구술채록과 자료 수집의 결과물이 영구적인 보존과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술자에게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조례에는 '구술자의 동의' '기억보유자의 사전동의' 등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나, 구술자의 동의가 영구기록보존, 자료집이나 특정한 목적으로 출판되는 등 활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향후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다. 세부적인 조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1.03.19>>에서는 먼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보령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이 가운데 구술채록을 포함시켰다. 또한 수집(방식)에서, 2. "수집"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 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보령시 조례에서는 구술채록의 구술자의 사전 동의에 기반한 자료 관리, 예산 및 평가단 등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10조(시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에서 "시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록 내용 전반을 기록화해야 하며 그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 ③ 보존시설의 설치, 기억 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4.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 가격·구술채록비 산정 및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담양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22.09.21]>>의 경우 앞의 조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구술채록의 정의, 민간기록물 수집의 방법으로 구술채록을 규정했다.[157] 이 경우 구술자료 수집 주체, 예산,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2021.12.24]>>에서도 민간기록물에 구술채록이 포함된다는 정도로 조례에서 소략하게 밝히고 있다.[158]

세 번째,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06.30.>>에서도 민간기록물로 구술채록을 포함하고 수집방식도 거의 유사하다. 잠시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전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말한다"라고, "2. "수집"이란 시장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러고 규정했다. 다른 조례와 유사하게, 제6조(수집방법)에서 "② 기증·위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술자료의 관리에 대해서도 '사전동의'를 명시적으로 밝힘(제9조 (시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② 시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록 내용 전반을 기록화해야 하며 그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 ③ 보존시설의 설치, 기억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시 유사하게 기록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술채록비 산정을 심의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5.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구술채록비 산정 및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 외에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2020.02.06]>>에서도 앞선 사례들과 유사하게, 민간기록물에 구술채록을 포함, 수집방식, 수집시 구술자 동의 확보, 구술채록 결정, 예산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서 앞선 조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159]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

---

157) 제2조(정의) 8.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15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158) 제2조(정의) 1. 민간기록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말한다.

1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 기록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5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도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② 도지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및 기억 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5.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한 조례(2020-07-10)>>도 용어의 정의, 구술채록을 수집범위에 포함시키는 점, 구술자의 의사 존중, 구술채록 수집 여부 및 구술채록 비용 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160]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2020-07-10)>>의 경우, 앞선 조례들과 용어 정의, 수집범위, 수집시 구술자 의사 존중, 구술채록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유사했다.[161]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2021.07.01.]>>에서도 정의, 수집범위, 수집시 구술자 동의, 구술채록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대동소이했으며[162]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7.30]>>[163]와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6.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② 도지사는 제1항 제6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60) 세부적인 조례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집”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5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② 도지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둔다.
5.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6.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② 도지사는 제1항 제6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집”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5조(수집)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 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4.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5.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② 시장은 제1항 제5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62) 조례 가운데 구술자료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 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5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수집과 구술채록의 경우 소유자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도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도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해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및 기억 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5.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6.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문화”란 기억과 기록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정신적ㆍ물질적 유산과 문화를 말한다. 2. “민간기록물”이란 당진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2022.09.20]>>[164]에서 구술자료에 관한 조례내용도 거의 유사해서 특징적인 점은 없었다.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20.12.23.](일부개정) 2020.12.23.>>도 앞선 조례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첫 번째로 제2조(정의)에서 “수집”이란 정읍시장이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6조(수집방법)에서는,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위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하고, 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의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했다. 또한 제9조(시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에서 시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고 그 명예를 드높여야 하고, 보존시설의 설치, 기억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구술자에 대한 동의, 구술채록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정해져 있다. 끝으로 제11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는 다른 조례와 비슷하게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구술채록비 산정 및 시장으로 하여금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차원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12.31.]도 앞의 조례들과 별 다른 차이는 없으며, ‘관리’에서 구술자의 동의 등 내용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에서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 “수집”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제10조(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에서 “②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교 정해서 역시 유사한 내용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조례 내용 가운데 <구술채록>에 대한 장을 독자적으로 마련한 경우이다. 이 경우 역사적 사실정보 수집, 시민의 관심에 대한 환기 등을 근거로 구술채록을 진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관련된 조례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신안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5.15.]>>에서 신안군의 민간기록물 조례도 구술채록의 정의, 수집 민간기록물로 구술채록을 포함시킨 점,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술채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험과 기억을 영상, 문자, 음성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구입、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및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6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구술기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위탁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위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등.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록 비용 등을 심의하는 점은 유사하다.[165] 신안군 조례에서 주목할 지점은 구술채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정한 점(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은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소장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이미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채록을 할 수 있다)이다. 그리고 '구술채록'이란 독자적인 조례 장을 마련해서 역사사실 수집의 방법이자 구술자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밝힌 내용이 매우 특징적이다. 관련된 조례 내용을 보면; 제10조(구술채록)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 수집 시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술채록 시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구술자로부터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다음으로 이천시 조례를 살펴보자.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21.11.05.]에는 구술채록의 정의, 수집방법의 하나로 구술채록을 규정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마을기록물"이란 차원에서 구술채록, 구술시청각기록물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3조(정의)에서 "마을기록물"을 민간기록물 가운데 각 읍·면·동 마을공동체가 생활하는 모습과 기억을 담은 문서·사진·영상·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박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166] 이처럼 이천시에서는 민간기록물의 하위 범주로 마을공동체 기록을 규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두 번째, 조례 제13조에 (구술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란 장을 두어서, 시장은 시의 행정역사 관리를 위하여 직원 또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구술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17조에 (구술채록)이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장이 1. 다수 시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시민의 기억 2. 민간기록물의 생산, 취득, 보존의 이력에 대한 소장자의 기억에 해당될 경우 구술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막연한 구술자료 수집이 아닌, 시민, 마을공동체의 기억 등을 중심으로 구술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밝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세 번째로, 제18조에 (민간기록물 조사관)을 규정,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조사관을 둘 수 있고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인력, 예산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끝으로 제31조에서 마을공동체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으로 구술채록을, 이를 담당하는 마을기록인의 역할로 구술채록을 구체적 기록했다. 상세 조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31조(마을기록물 수집)
② 마을기록물의 생산·수집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민과 마을공동체의 생활과 관련된 기록
2. 마을공동체의 전설에 대한 기록

---

165) 자세한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집"이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은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소장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이미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채록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구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신안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구입가격, 사본수집을 위한 원본 제공 사례비, 구술채록비 산정 등 민간기록물 수집 시 지급하는 비용 결정

166) 이는 제31조(마을기록물 수집) ① 시장은 이천시민과 마을공동체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마을기록물로 생산·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에도 명시되어 있다.

3. 마을공동체의 변천과정에 대한 시민의 구술 기록

제32조(마을기록인) ① 시장은 마을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수집을 위한 활동가로 마을기록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기록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이천시민과 마을공동체의 역사 보존을 위한 시청각기록물 생산
2. 이천의 명소와 관련한 소문의 수집
3. 구술 기록 생산
4. 일상기록 수집
5. 그 밖의 기록화가 필요한 마을기록물의 생산ㆍ수집

세 번째, 자료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명시된 경우를 보면,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2020.03.02.]>>에서는 앞선 조례 명칭과 다소 다르게, 민간기록물이 아닌,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정했다. 민간기록물의 수집, 정리에서 시정과 도시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교육, 학습, 전시 구체적인 '활용' 문제를 명시적으로 조례에 담은 점이 특징적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제15조(활용)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이 활용의 세부적인 내용이다.

실제로 제2조(정의)에서 "사료"라 함은 시정과 관련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류(도서, 사진류, 금석, 금석문류, 서화류 및 녹음, 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시정실록"이라 함은 시와 관련된 시정전반에 관한 사건, 사고, 행사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슷한 점도 있는 데 구술채록에 대한 내용과 민간기록물 범주내 구술채록이 포함되는 것, 기록물의 생산 - 민간기록물에서 '수집'으로 규정했던 - 에 구술채록이 포함된 것이 그러하다. 내용을 조면, 제2조(정의)의 3.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4.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 취득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비슷한 조례는 용인시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용인시도 민간기록물과 기록문화진흥을 동시에 조례에 담고 있다.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1.12.13.]>>에서도 '활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9조(활용)에서, "시장은 조사 결과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조사 결과물을 1.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3.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 지역공동체의 스토리텔링, 교육, 전시, 연구 등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이한 점은 민간기록물[167]의 활용, 구술채록, 아카이브 구축, 공개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다른 조례들에서는 예산, 인력에 대해 추상적으로 밝힌 것과 비교하면 중요한 지점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4조(전문인력)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67) 조례 제2조(정의)에서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고 다른 조례와 유사하게 정해져 있다.

1.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2.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협조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와 관련, 민간기록물이라고 적시한 조례는 아니지만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17]>>는 향토사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한 수집, 조사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5조(향토사 자료 수집 등)에서는 "① 시장은 향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사 자료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기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집, 연구에 구술채록을, "③ 기증·기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활용의 영역에서 민간기록물을 포함, 구술자료의 활용이 조례에 명시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수집된 자료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 등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168] 민간기록물 담당자나 관련 위원회에 구술사 연구자, 전문가가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기록관, 기록문화관 등 형식으로 조례를 정하고 구술채록이 그 일부로 포함된 경우인데, 우선 파주의 기록관(파주 라키비움) 관련 조례이다.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0.02.14]에서는 제17조에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제6조(수집 방법)에서 주요 민간기록물 수집방법으로 1. 기증 2. 기탁, 사본수집이나 구술채록 3. 구입 4. 연구용역 등으로 규정했다. 구술채록이 포함된 점은 다른 지자체 조례와 유사하며 '연구용역'이 포함된 것은 제2조(정의)에 ""수집"이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고 정한 바와 같이, 시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을 수집, 조사하며 기록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21.07.15]의 경우, 마을기록문화관에 대한 조례로 앞선 조례와 비슷하게 기록물의 수집방법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도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기록물의 수집 및 전시 등).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2019.07.01]에서는 수집 대상 민간기록물의 목록의 하나로 구술채록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그 기준으로 시민적 관심, 학술적 조사, 역사적 가치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세한 조례 내용을 보면; 제21조(민간기록물의 수집)에서, ① 구청장은 구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구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을 명시적으로 수집대상 기록물로 정했다.

끝으로, 강원도 기록원에 대한 조례인데,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06.30]>>

168) 북미에서 구술자료의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는 박준규(2022, 205~207) 참조. 다만 한국에서는 제3자의 보호에 대한 방안이 명시적이지는 않다. 면담자, 구술자 그리고 구술자료의 내용과 연관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공개되고, 구술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이호신 2017a, 212).

에서도 앞의 기록관과 유사하게 기록원장 관련 조례, 민록물의 민간구입 비용, 평가단 구성, 수집요원을 둘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조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민간기록물의 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 외에도 위탁보존, 사본수집, 구입,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을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에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을 구입 및 구술채록 시 적정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민간기록물 수집요원)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IV. 소결: 구술사를 둘러싼 제도적 전환의 몇 가지 가능성

2010년대 접어들면서 아이폰, 블로그(blogs),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메시지 보드(Message Boards), 팟캐스트(Podcasts), 위키스(Wikis),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블로그(Vlog)가 지배하는 디지털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대중의 정동 생산, 교환,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중의 두드러진 역할을 강조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디지털 과거(Digital past)' 팀이 운영하는 온라인(on-line) 역사- "트히스토리(Twhistory)"로 불린다고 한다 - 로, 온라인 역사는 나치 및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사와 관련된 각각의 프로젝트를 웹사이트 홈페이지와 트위터 계정을 연계시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한 구술자료 생산,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나인호 2018, 90-92). 한국에서도 구술채록이나 인터뷰에 기반한 자기역사, 사건기록, 사회현안에 대한 유튜브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아카이브 기록경영, 편집과 출판, 역사보존과 문화자원 경영, 박물관 연구, 구술사, 미디어 등 여러 영역에서 대중이 스스로 적극적인 역사소비의 주체가 되는, 대중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윤택림 2020, 13-14). 실제 이전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회기록보존소 등에서 구술동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과 달리, 기관 지원에 의한 구술자료 수집만으로 구술자료 생산, 활용이 국한되지 않고 앞서 본 것처럼 디지털을 매개로 한 광범위한 활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다만 자발적인 구술면담, 채록이 연구, 교육, 전시 등에 활용하기 구술자료로 자료화되고 관리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구술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앞서 소개한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지자체 구술채록/자료관련 조례 제정은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그 주요한 매개로 구술사 연구단체, 공공기관, 학회는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구술자료 수집/기록화 사업에 참여/자문 등을 통해 지역 기록수집 담당그룹과 신뢰 형성, 구술자료 교육을 집단화해서 제대로된 자료화의 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마을역사 쓰기, 전시 등 다양한 지자체 연구용역, 구술자료 수집에 참여하거나 지역 민간기록 담당자와 지역 구술자연구자-공공기관 구술사 담당자-관련 학회의 연계로 지역별 담당자 워크숍 등의 개최 등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범례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포츠담 현대사연구소(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in Potsdam)와 협력 속에 운영하는 대중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기반한 역사 연구 및 교육', '역사적 관점에서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공공 영역(특히 역사적 매체 분석의 여러 형태에 대한

논의가 주목적)', '공공영역 속에서 작업과 문화경영' 등 내용으로, 전통적인 역사학과 공공역사 프로젝트를 결합시켜 실제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참고 사례다(나인호 2018, 82-83). 바로 구술자료는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나열한 개인정보파일이 아닌, 학술적이고 문화적인 목적과 맥락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 보존되어야한다는 점을 조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기록수집, 관리, 활용 담당자들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소통을 통해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169]

다음으로 조례에서 수집한 구술자료의 관리/보존/활용 방향에 대해 입안할 수 있도록 '수집자료 관리 등록 의무화' 등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지자체에서 구술채록 사업과 수집, 관리, 활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역사, 마을공동체의 역사, 시민의 관심과 조응하는 구술자료 수집, 활용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술자료 수집/관리/활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구술자료를 정례적으로 수집하는 연구/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구술자료의 수집 못지 않게 지역/개인이 수집한 기채록 구술자료의 자료화 지원을 인력, 연구비 등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이미 일정정도 안정적인 구술자료 수집, 관리가 가능한 기관 가운데 기수집 구술자료를 자료화하고 이를 관리,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2010년대 이후 동의서, 활용동의서 등 양식이 갖춰져 자료화된 구술자료의 경우, 장기적으로 관련 구술자료의 상세목록을 온라인 상으로 검색해서 소장처, 활용, 연구 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왕의 한국 구술 네트워크에서도 목록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오히려 민간기록물로서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기관, 연구단체, 개인 등의 자발적인 가입에 근거해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상 구술자료 상세목록 제공시, 자료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민간생산 구술자료의 보존을 위한 방법도 지역,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지차체의 지원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생산한 구술자료를 자체적으로 자료화해서 관리, 보존이 어렵다면 일정한 심의 과정 - 예를 들어서 민간기록물자문/심의위원회의 평가 등 -을 거쳐 '도서관'을 통해 관리/보존하는 방식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방법도 고민 가능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하는 근거는, <도서관법> 제4장2 (공공도서관 조항)을 보면,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170] 이 가운데 제2항, 즉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란 기능은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시민의 관심이 다수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술자료의 관리, 보존의 의무도 포함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동법 제7장 (전문도서관)에도 해당되는데, 제40조(등록 및 폐관)에서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여년의 한국 구술사 연구 및 구술자료 수집의 성과와 의의를 견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구술사의 대중적인 필요성과 왜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구술자료 수집 및 연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한 학계, 정부, 지역사회 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1971년부터 정부지

169) 이미 이호신(2017a, 210)이 정리한 것처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보도, 문학, 창작/표현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독일, 영국의 경우도 유사하다.

170) 여기서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원 아래 향토사자료관이 만들어 지기 시작해 현재 현립 자료관이 약 20여 개, 시나 군, 정, 촌립 자료관은 약 400여 개에 달한다. 이런 자료관 등이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정부 문화청이 주축이 되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사와 지역문화의 전승 주체인 지역 주민들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주관 2012, 101).

과거 공공역사의 출발이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업 등 이른바 '공공적 전환'이었다면(윤택림 2020, 9),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간기록물 조례를 매개로 한 구술사가와 지역간의 협업은 한국적 맥락에서 '공공적 전환'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동시에 대중람들은 역사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affect)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거대한 전환'에 구술사 연구자들이 개입하기 위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김선정, 윤충로, 송치욱, 2021,『<현대한국구술자료관 고도화 연구> 국내 구술 자료 생산·보유 기관 현황 조사 보고서』(미발행 자료)

김주관,「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기록학연구』33, 2012

김주관,「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지방사와 지방문화』9:2, 2006

김주관,「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8:1, 2005

나인호, 2018.「시민을 위한 역사교육으로서 독일의 공공역사(Public history)」,『역사교육논집』69권

박준규, 2022.「공공역사 구술자료 활용과 법적/윤리적 쟁점 : 북미 사례를 중심으로」,『구술사연구』13:1

선영란, 2019.「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집한 구술 자료의 현주소」, 한국구술사학회 학술대회

안병우, 이상민, 심성보 외. 2012.「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기록학연구』, 34, 3-28.

윤택림, 2020,「공공역사와 공공역사가」,『현대사와 박물관』3

윤택림, 2019.「구술, 기억, 공공 역사」,『구술사연구』10:1, 2019

윤택림, 2015.「기관구술채록의 진단과 과제 :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채록사업을 중심으로」,『구술사연구』6:1, 2015

이상헌,「민속아카이브의 정리 방법과 민속학 연구 -독일민속학을 중심으로」,『韓國民俗學』54, 2011

이정은 외, 2020,「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연구」,『기록학연구』제64호

이호신, 2017a.「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한국기록관리학회지』Vol.17 No.1

이호신, 2017b,「구술사 연구와 기록관리, 녹취문을 넘어서」,『구술사연구』Vol.8 No.2

이호신, 2017c, "구술사 연구와「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17(3): 1-21

현대한국구술자료관 편, 2020.『현대한국구술자료관 현황과 전망』, 선인